

2018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무역 정책과 한국

초판 1쇄 발행 2018년 12월 31일

펴낸이 사공 일

지 원 우형주

디자인 김정진

인 쇄 한진기획인쇄

펴낸곳 세계경제연구원

전 화 02-551-3334~8

팩 스 02-551-3339

등 록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ISBN 979-11-6177-008-6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2018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세계 경제: 전망과 현황

Danny Leipziger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 무역 정책과 한국**

Jeffrey Schott

세계 경제: 전망과 현황

Global Economic Outlook: 2019 and Beyond

대니 라이프지거
(Danny Leipziger)



대니 라이프지거

—•—
Danny Leipziger

미국 조지워싱턴대(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국제경영학 교수.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를 역임했으며,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 국무부 등에서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고위직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경제, 재무, 산업, 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저술,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과 현황¹

대니 라이프지거

前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오늘 강연에서는 현재의 국제적 상황, 주요 시장과 신흥 시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역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하는 한국에서 관심을 둘 만한 유익한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관찰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을 살펴보면, 2010-2017년 사이 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은 매 개정때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국제 경제는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실물을 나타내는 모든 조정값과 그래프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여러 경제에서 산출 격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유동성이 매우 좋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불확실성도 큼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바뀌는 무렵에 와서야 IMF에서 더욱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국제 경제가 4%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그만큼 낙

¹ 본 글은 2018년 10월 5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사 강연 포럼(IGE DLF)에서 대니 라이프지거(Danny Leipziger)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의 강연 내용을 녹취·번역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강연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본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IMF에서 하방 위협에 대해 언급 했는데, 하방 위협은 언제나 상방 위협을 상쇄하는 듯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다음 주 후반에 발리에서 개최되는 연례 회의가 있기 전에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전망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였고 여기에 하방 위협에 대한 내용을 더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세계 경제 전망은 2017-2018년 이후로 개선되는 듯하지만, 새로운 외생적, 또는 대비하기 어려운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예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재정 상태도 긴축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정 상태가 긴축되면 특히 경화(hard currency)로 차입한 국가와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은 고정 환율 제도를 사용하거나 부채가 큰 신흥시장 국가(EME)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단기적으로 무역에서도 불확실성이 발생하겠지만,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가 무역 전쟁을 벌이면 다른 나라에도 파급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X라는 국가의 정책 입안자라면 동아시아, 한국 등지에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누리게 해주었던 개방적 무역 제도가 유효한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는지, 국내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는 중국 자체가 있습니다. 중국은 금융

시스템 내에 과잉 자본을 줄이는 것과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대로 성장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강 총재는 진퇴양난에서 빠져 나올 방법을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침체가 지나고 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역이 예전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00-2009년에는 무역 성장률이 세계 GDP 성장률의 두 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무역은 예전보다 확장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MAIN DRIVERS FOR GLOBAL UPSWING: TRADE AND INVES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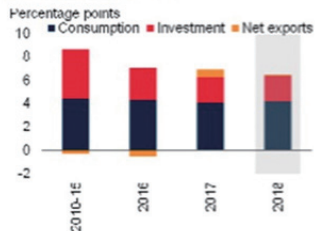
Global trade and investment growth, volumes



Stronger investment spending in advanced economies and an end to fixed investment contractions in commodity exporters were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pickup in global growth.

Source: World Bank (2018), O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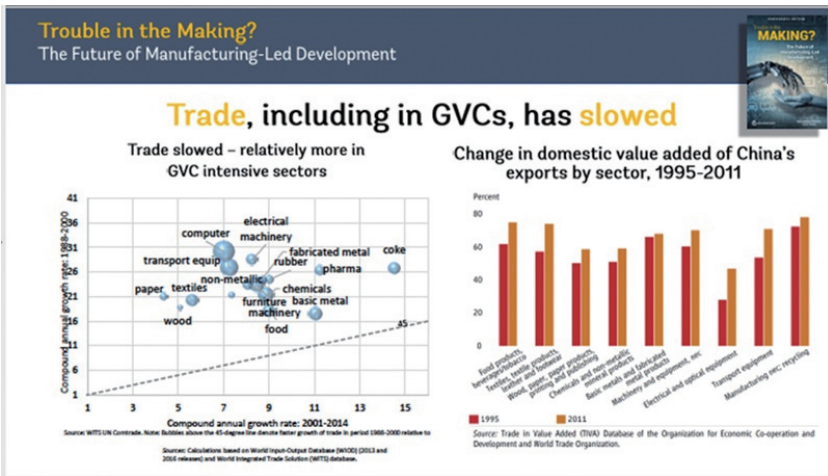
Contribution to growth



Growth in global trade of goods and services combined is expected to moderate to 4.3 percent in 2018, down from a six-year high of 4.8 percent in 2017.

왼쪽의 그래프는 무역 성장률입니다. 여러분도 보드시피, IMF가 예측한 성장률과 비슷한 4%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자율이 예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실질 투자, 시설 장비 투자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일까요? 와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영향으로 수명이 20년에 불과한 시설에는 투자를 꺼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 유혹적이어서 일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역이 활발히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수출은 세계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거와의 차이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제조의 미래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메리 홀워드-드리에메이어(Mary Hallward-Driemeier)는 이 연구의 주요 필자입니다. 왼쪽에는 국제적 가치 사슬이 강점인 산업별 그래프가 있습니다. y축은 이 산업들의 1980-2000년의 무역 성

장률이고 x축은 2000-2014년의 무역 성장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 국제가치사슬에 무슨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알아내기 위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꼭 집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부 국가 정상들이 국가주의적 정책을 쓰기 전부터 국제 가치 사슬은 정점을 찍은 듯합니다. 모든 이익이 실현되고 물류가 포화 상태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더욱 빠른 컨테이너선을 건조하지 못하고, 항구 효율을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류를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셔츠가 6바퀴를 돈 다음에야 월마트(Walmart)에서 판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 외에도 물건을 이리저리 운송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제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수출 부문에서 기여하는 부가 가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IE(‘수입 대체’의 이전 용어)로 인해 중간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시장인데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진 중간재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중국은 이른바 국내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단체에서 세계적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위의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가능성과 영향력

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이른바 시나리오 분석을 다룰 예정인데 이런 사건 중 하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확률은 낮더라도 영향력이 큰 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확률이 높은 위험 중에는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와 연준(Fed)의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착륙(hard landing)에 대한 위험도 있는데, 꼭 경착륙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 경제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문제는 해결 방법입니다. 이 모든 국제적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은 큼니다. 보호무역주의나, 연준의 긴축 정책,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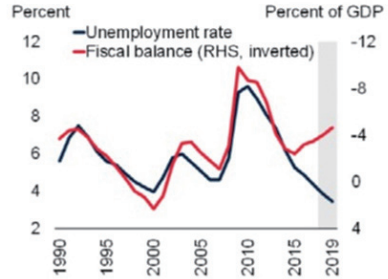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이 파월(Jay Powell)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호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약 3.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 통계가 노동 시장의 성격을 정확히 측정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시간제 고용과 취업 의욕을 상실한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산출량 꺾이나 설비 가동률을 보면 완전 고용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비 가동률이 정점에 이른 상태로, 일반적으로는 설비 가동률이 80%에 그칩니다. 따라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oductive capacity



Source: The World Bank (2018), GEP

Federal deficit and unemploymen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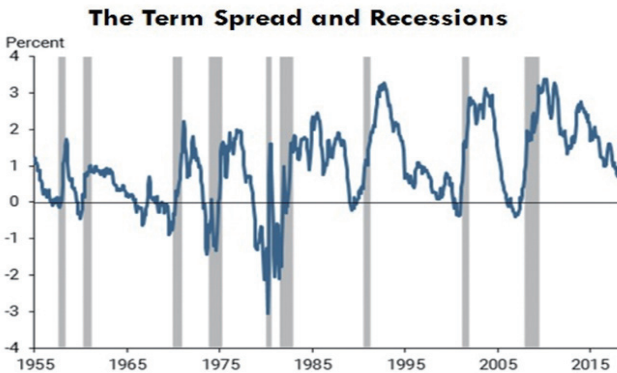


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요소도 있습니다. 첫째, 관세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실업률이 대폭 하락했지만 미국의 재정 균형이 현재 3-4% 적자인데 1월에 발효될 새로운 세법을 생각하면 GDP의 2%p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세법'은 자신의 캠페인에 기부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법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처럼 포장했지만,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의 독립적인 분석 전문가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인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위 1%나 그에 가까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득 분배 효과와 무관하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완전 고용 상태의, 산출량 갭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외생적 요소로 인해 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 우대를 제공하면 수요가 팽창합니다. 이미 완전 고용 상태라면 나타날 결과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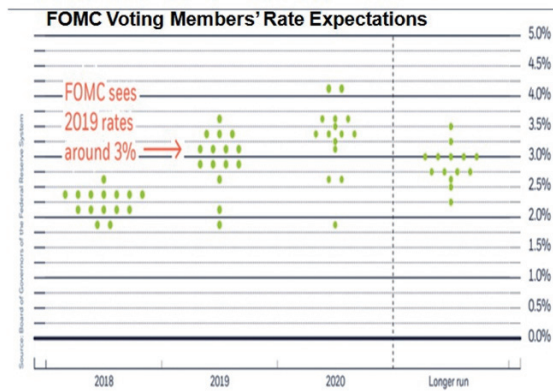
역 수지 효과와 무관하게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부문 간 효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것입니다. 갑자기 중국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월마트(Walmart)에서 판매하는 셔츠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FRB)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수익률 곡선을 분석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익률 곡선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물 채권 금리와 10년물 채권 금리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기보다 장기로 돈을 맡겼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2년물 채권 금리와 10년물 채권 금리 사이의 차이는 약 20-30bp이므로, 일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단기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장기 계약을 꺼리는 것입니다.



Source: Federal Bank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March 5, 2018.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사례를 분석합니다. 지금의 미국 수익률 곡선은 역전되지는 않았지만 평평합니다.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후 침체가 이어질 확률은 약 90%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역전된 수익률 곡선이 나타나고 6-24개월 사이에 침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연준(Fed)에서는 얼마 전에 할인율을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연방기금 금리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될 것입니다. 현재는 2.25%인데, 대침체 이후로 8번째 인상입니다.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통화 공급을 낮추기 위해 자산을 매입/매각하거나 주택담보대출(mortgage)과 다른 대출이 만료 되도록 방치하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위원들의 투표를 나타냅니다. 누가 금리 인상에 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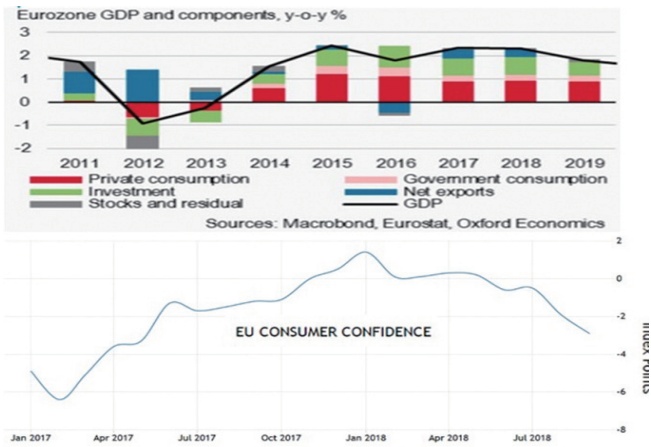
성했고 반대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지 매우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연방준비은행 이사 대부분이 2019년에도 꾸준히 금리가 인상되고, 3번까지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센서스 할인율은 3-4%로, 각 점은 연방준비은행 이사를 나타냅니다.

방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얼마나 금리가 자주 올라가고, 급격하게 긴축할지가 관건입니다. 긴축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에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합니다.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약 2%입니다. 잭슨 홀(Jackson Hole) 회의에서 제이 파월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여름의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약 2.4%로, 목표보다 높습니다. 무역 전쟁의 효과가 물가로 나타난다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입 면에서 완전히 개방되지는 않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역 전쟁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분석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이고, 산출량 갭이 사라졌으며, 설비 가동률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목표치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며,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2019년, 특히 2020년 전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주식 시장 전문가가 아니지만, 주식 시장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을 써서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와 같은 사람들은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면 이는 여러 가지 요소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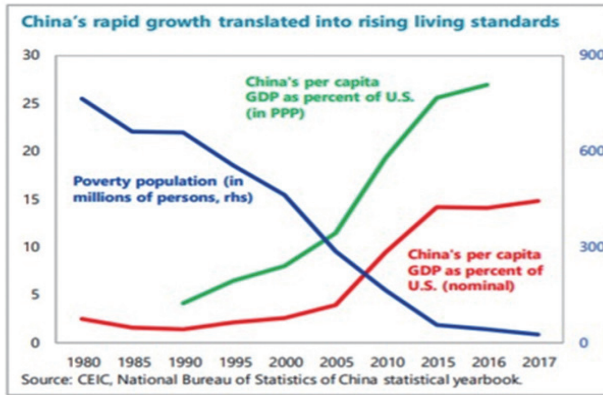


유럽은 그다지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드디어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률이 2%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럽도 역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브렉시트(Brexit)입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는 유럽연합 소비자 신뢰 지수는 최근 1-2년 사이에 하락했습니다. 재정을 풀기를 바라는 나라로는 독일 네덜란드 등이 있고, 과거에 재정을 잘못 관리하여 긴축하기를 바라는 나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어디서 성장에 대한 자극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GDP 대비 수출 비중은 45%이므로 국제 시장에서 받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여전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 이 흐름을 되돌리지 않으면 많은 손실을 안게 될 것입니다. 유럽 내적인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제 화요일 수업에서 그리스 사례를 분석했는데, 그리스는 처음부터 관리가 심각하게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리스는 1929-1933년 대공황 시대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수준으로 GDP가 25% 하락하는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구제금융을 비롯한 각종 구제금융과 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120%였던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은 220%가 되었습니다. 이는 구제금융, 채무 조정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사용한 이후의 일입니다. 이런 부채 모델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만약 2020년으로 돌아간다면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이나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처럼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가 유럽을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불확실성은 재정 긴축, 노동조합, 브렉시트,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도, 터키는 원래부터 저축을 적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저축률은 15%이고 투자율은 25%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빌립니다. 다들 터키에 거리낌 없이 자금을 빌려주었고, 터키 사람들은 기꺼이 자금을 빌렸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단기 달러와 유로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기나 화폐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문제가 생겼고, 화폐가 폭락했습니다. 터키는 유럽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다소 영향을 미칩니다.



Source: IMF Article IV, June 2018

아마 여러분 다수가 중국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수치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6-7%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왼쪽의 파란색 선은 빈곤율인데 대단히 개선되었습니다. 빨간색 선은 미국 GDP 대비 중국 GDP를 나타냅니다.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1인당 GDP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는 연간 6-7% 성장하다가 선진국을 따라 잡으면 2-3%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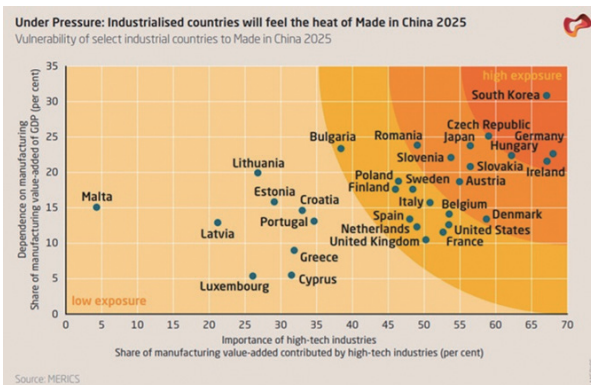
중국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장률이 아니라, 금융 부문입니다. IMF는 지난 2-3년 사이에 중국의 금융 부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보통은 외교적 수사를 써서 말하기는 하지만, 금융 부문 평가 문서를 보면 상당히 중국의 부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채는 정확하지 않지만, GDP의 3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2/3가 기업 부채입니다. 그러므로

GDP의 약 180%가 기업 부채입니다. GDP의 100%에 가까운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가계 부채도 GDP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부 부채도 있습니다. 중앙 정부 부채는 나쁘지 않지만 성이나 다른 정부 단체의 부채를 더하면 300%에 달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중국이 부채를 감당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부채를 탕감할 수도 있고, 국영 은행의 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고, 준비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제 준비 자산도 있지만, 이 부채는 외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2018년에 무역 전쟁을 벌이기 전에 금융 부문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을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금융 위기를 보면, 은행이 아닌 금융 중개 기관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1997년 한국 금융위기를 보면 상업 은행이 다른 기관보다 더 큰 과실을 범했습니다. 따라서 금융 부문에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규제 차이(regulatory arbitrage)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중국은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 규정을 엄격히 하고 신용 팽창을 제한했습니다. 참고로 신용 팽창은 금융 위기를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학생을 가르칠 때는 신용이 GDP의 2-3배 이상으로 팽창하면 금융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표를 보고 싶다면 GDP 성장률과 신용 팽창 속도를 비교해 보세요.

중국은 긴축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IMF에서는 중국이 이른바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을 따랐을 경우를 가정한 흥미로운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란 인플레이션과 산출량 갭을 기준으로 통화 공급을 늘리고 목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긴축합니다. 산출량 갭이 너무 크면 팽창합니다. 이 규칙은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교수이자 잠시 재무부 차관을 맡았던 존 테일러(John Taylor)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중국이 이 규칙을 따랐다면 실제보다 성장률이 1.75% 낮았을 것입니다. 즉, 성장률 7%를 달성한 것은 대체로 팽창적 통화 정책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되돌리려면 다소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문제를 막으려던 참에 갑자기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수요를 부양해야 할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려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은행과 다른 기관에 대한 중기 대출이 7,500억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는 양적 완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통화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용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 국내 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중국은 장기적 관심사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베를린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cator Institute of China Studies, MERICS)를 방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ade in China 2025)』 보고서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ade in China 2025)』는 2015년에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산업 정책으로, 국제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설명합니다. 로봇 공학, 자동차, 중국이 큰손이 되고 싶은 새로운 첨단 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국내에서 필요한 수입재 대부분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입 대체를 싫어합니다.

이런 수입 대체에 특히 취약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첨단 제조, 첨단 제품이 가장 취약합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 2025년까지의 목표를 늦출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속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년 전에 한국의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제가 운영하는 성장 그로우스 다이얼로그(Growth Dialogue)라는 싱크탱크에 ‘한국의 경제적 과제: 메가트렌드 시나리오 및 분석’이라는 대규모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를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첫째, 향후 5-10년 사이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세계화, 와해적 기술, 불확실성 증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10

년 동안 이런 기저 트렌드가 충분히 나타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 ‘블랙 스완(black swan)’ 현상이 일어날 것을 가정했습니다. 블랙 스완이란 확률은 낮지만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2016년에 예측한 바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블랙 스완 현상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확률이 5%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중국에 문제가 일어나는 시나리오와 전 세계적 경제붕괴(global meltdown)를 예측했지만 후자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없습니다. 괜찮은 해에는 1% 성장하고 좋지 않은 해에는 그보다 적게 성장합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일본만큼 대대적으로 통화팽창 정책을 펼치지지는 못했습니다. 재정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팽창시키고 어떨 때는 세금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0% 정도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시 경제 수업 시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그 모양인 것은 일본에서 할머님들이 새 냉장고를 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꿀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입니다. 지금까지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국도 눈여겨 봐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일본에 비해 나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경험하는 인구 구조적 문제는 다소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하여 논문을 썼는데, 인구 구조는 전쟁과 질병을 제외하고는 매우 바꾸기 어렵고 20년 후에 인구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인구적 문제에 지나치게 늦게, 그나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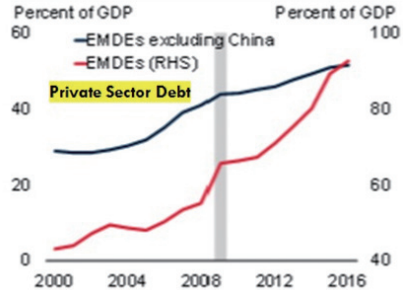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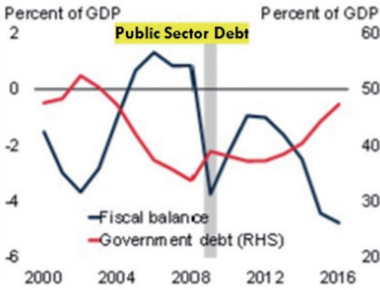
일본은 중앙은행이 가장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양적 완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양적 완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흥시장은 어떻게 보면 국제 경제, 유가, 무역, 원자재 가격 등에 변동이 일어나면 영향을 받는 입장입니다. 국제적 요소에 따라 어느 정도 운명이 결정됩니다. 신흥시장에는 제도와 개발 단계로 인한 제약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분석이나 부패 지수를 보면 국가 발전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즉, 유가, 미국 채권 수익률, 달러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많은 국가가 호시절에는 대출을 받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서도 무엇이든 팔아주겠다고 합니다. 채권을 팔아주면 좋고, 금리도 낮습니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상승하

는데 자국 통화 가치는 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의 출신 국가는 다양합니다. 그중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국내 대출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로로 빌리면 이자는 5-7%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13-15% 이익을 보지만 자국 통화 가치가 15% 하락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자본 시장에서 빌려서 재정 적자를 메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국가들이 많았고, 신흥시장 국가들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10년 전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나쁘지 않지만 위험 요소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부채 프로파일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전문가가 신흥시장 국가가 곤란에 빠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터키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례적인 사례지만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본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일 테고, 신흥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 환율이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중국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신흥시장 국가에서 공공 부문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외국 자본으로 메우는 금액의 GDP 비중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흥시장 위험은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역, 세계 경제 성장, 금리, 환율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신흥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신흥시장 국가에서 정치 입안자의 문제는 상황이 좋으면 굳이 어려운 개혁을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개혁을 해내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나 IMF 보고서를 보면 해야 할 일 목록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행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2019-2020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계에서 보다 이성적으로 경제를 운영했다라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4.2%였습니다. 경제가 잘 굴러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회복되고 있고 앞서 설명한 중요한 충격 요소가 아직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 법안으로 인해 적자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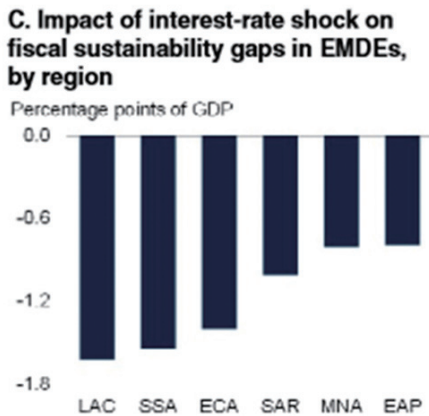
가할 것입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등의 조사에서는 대부분 2020년에 미국에 침체가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가 침체가 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언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틀리기 싫어서 항상 비가 온다고 말하는 기상 캐스터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익률 곡선, 인플레이션, 연준의 역할, 실업률 등을 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호황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연준에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침체 이후에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역할을 주도했던 연준이 이제 수도꼭지를 잠글 때가 왔습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신흥시장 국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국제 경제를 가르쳤던 교수들은 무역 수지, J 곡선, 환율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실제 지침이든 암시든 연준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역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행동과 중국의 보복 행위를 표로 나타내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상품에 관세가 매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은 중국보다 경제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GDP 대비 수출 비중은 미국의 두 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취약합니다. 반면, 신용을 제공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곤경에 처한 산업을 보호하고 살려둘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가 관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상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면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Source: The World Bank (2018), GEP

보호무역주의 외에도 무질서한 재정 긴축이 아마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위 그래프와 같이, 미국 주도로 국제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신흥시장 국가의 재정 적자가 1% 상승합니다. 앞서 빌렸던 부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도중에 많은 국가가

과도하게 부채를 쌓았고 이제 금리와 환율 차이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적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매킨지(McKinsey)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2020년에 내놓은 2030년 예측을 진짜 2030년이 되어 맞는지 확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쉽기 때문에 매킨지는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방 위험과 상방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하지만 매킨지는 그림을 멋지게 그립니다. 분명 많은 돈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매킨지의 도표를 사용합니다. 이 도표에서는 여러 가지 부문을 분석하면서 60%의 확률로 대부분 산업에서 일자리의 30%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확률이 60%, 50%, 70%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각 산업에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와해적 기술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령 전화 응답이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로봇 공학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 기술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으므로 로봇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인들이 오래 살면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재정 자금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흥시장 등의 다른 국가들도 와해적 기술에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만한 재

정적 여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잘못되어도 버틸 만한 재정적 여력을 남겨둡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회의에 동아시아 보고서 패널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동아시아의 재정 수입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미국이 세금을 적게 걷는다며 비난합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문제는 와해적 기술, 노령화 등의 압력에 부딪히면 재정적 자금이 필요한데 많은 국가가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세계화 탓으로 돌립니다. 15년 전에 발간되었다가 얼마 전에 재발행된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저서 『세계화와 그에 대한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에서는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이 +10이고 손해가 -3이라면 이익이 7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3을 걱정해야 합니다. 손해를 본 사람이 자신의 손해를 무역 탓으로 돌리고 잘못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불평등도 문제이지만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의 불평등은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미래에 소득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역설(Globalization Paradox)』라는 자본주의 관련 서적의 저자, 다

니엘 로드릭(Daniel Rodrik)을 기억하십니까? 이 책에서 그는 트릴레마(trilemma)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트릴레마는 화폐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는 세계화를 지지하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생산하고 어디서나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세계화를 지지하면서 국가적 경제 이익을 추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중에서 2개를 골라야 합니다. 사실, 이는 흥미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나머지 두 개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세계화를 지지하지만, 국가적 경제 이익을 도외시한다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다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특징을 분류하기는 했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불평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이는 정부 정책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populism)은 안 좋은 것입니다. 브라질 선거를 보십시오. 형편없는 후보 두 명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포퓰리즘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자본주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국제 시스템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시스템에 다소 기여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를 보호하고, 지적 재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외국 기업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국가 기관이 이를 뒷받칩니다. 필요할 때마다 국영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면 알리바바(Alibaba)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G20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G7은 아직 미숙합니다. 다른 국가를 더 가입시켜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G12 또는 G15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가 있는 G20에서 합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중간 집단이라는 점에서 G7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G20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MF의 바이블을 읽는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충격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복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책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십시오. 노령화에 미리 대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와해적 기술로 인해 앞으로는 3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회사는 5년 후에는 지금과 다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교육하거나 재교육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평생 교육’이라는 교육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평생 교육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천하기 어렵고 재정을 대기도 힘듭니다. 저는 개인 교육 계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미래에 발생할 이런 문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이는 좀 더 장기적 관점의 문제이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주로 2019-2020년 전망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A

세계 경제: 전망과 현황

질의 응답

Q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술을 끝낸 듯한데, 중국 문제에 집중할 듯합니다. 물론,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IMF 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무역 국가가 안심해도 될지, 아니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트럼프의 세금 감면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로 인해 연방준비은행 이사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 다소 흥미로웠습니다. 이 세금 감면은 매우 심각하고 전 세계에 자본이 엄청나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5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연준은 어떻게 이토록 낙관적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수익률 곡선이 하락할 조짐이 보여서 사람들이 2020년에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어떻게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단언하는 걸까요?

A 그런 영향을 예측한 좋은 연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비용 상승분은 산업 종류나 판매자에 따라 다

소 나누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에서도 시장을 원할 테니 다소 부담을 나누어질 테고,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미국 국내 생산자와 고객이 부분적으로 이를 나눌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고, 그 세 주체가 부담을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에서 대부분 부담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은 더 많이 흡수할 테고, 경쟁력이 좋지 못한 산업은 비용을 전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좋은 연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연준의 목표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걱정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똑똑한 연준 수장이라면 생각은 할 것입니다. 분명 분석은 많이 하겠지만 그에 대해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에 맞춰서 적응해야 할 뿐, 연준에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을까요?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진다면 미국 경제 정책은 매우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저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준은 다른 곳에서 경제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해서 신뢰도를 유지하고자 노력 중인 듯합니다. 실제로 연준은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입니다.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는 데 영

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되었고, 고용과 성장에서 좋은 지표가 나온 것은 본인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5년 이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공은 누구에게 있고, 지금의 미국 경제를 성공시킨 “숨은 공로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9년 이후의 하방 위협에 대해서입니다. 몇 가지 위협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미국 정부와 트럼프에서 발생하는 위협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년간 외교 정책, 무역 정책은 물론이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예상해야 할 다른 위협이 있습니까? 다음 번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 미국의 경제 회복의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저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 예의상의 표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현 정부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현 정부의 장점이 있다면 기업 친화적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세금 감면을 통해서든 운용 방식 때문이든 재계 일각에서는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은 그저 오랜 시간이 걸려 제자리로 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특별히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자제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연적 회복 때문이고, 나머지는 기업의 신뢰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 2008-2010년에 대침체가 왔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지나치게 걱정할 나머지 가장 안전한 통화 자산으로 달러로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침체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정확히 미국의 잘못이었지만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반응이 크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선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Q 몇 개월 전에 존 미어샤미어(John Mearsheimer) 교수가 오셔서 중국과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취약성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 이런 취약성이 얼마나 증가할지 말씀해주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과 그의 정책이 어떠한지, 이 시나리오는 매우 타당한 듯합니다. 엄청난 고속 성장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적 이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부수적 피해를 고려하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성장을 늦추기 위한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동의한다면 무역 문제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해지다 못해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해야 할 계획적 정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중국의 행동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 최대 규모로 올라서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미국이 2030년이 아니라 203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성장률 둔화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성장률을 둔화시키기 위

해 어떤 정책 도구를 사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성장률 둔화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지만, 불공정한 무역을 할지, 서비스 부문을 보호할지, 기술을 훔쳐올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들은 모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도구를 사용했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데다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문제는 찾아냈습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높은 성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지정학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룩셈부르크였다면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보고서를 만들어 산업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나라라면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세계 경제 규모는 2위이고 우리는 1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도권을 쥐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시스템을 유리하게 악용하고 산업 정책을 잘못 사용한다면 경제 성장 둔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도 다른 나라에서 지는 책임을 똑같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국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미국과 유럽의 산업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단기적 이익과 중국 시장의 유령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시장은 중국 기업이 지배할 것이고 독일인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매 분기 주가를 따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고경영자를 쉽게 갈아치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이익에 목을 매고 장기적 이익을 희생하려 합니다. 중국은 그 반대입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드릭의 트릴레마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는 2025-2030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하기도 쉽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쉽습니다.

Q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무역 체제에서 국제적 자유 질서를 불안하게 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국을 구석으로 몰아서 양국 사이에 보복 관세 전쟁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지적 재산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입니까? 한국에는 이 전쟁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첨단 제품에 대한 수입 대체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첨단 분야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한국에 남은 것이라고는 반도체와 조선뿐입니다. 한국이 이 어려움이나 중국의 수입 대체 정책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먼저 무역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UN을 향해 세계화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이념을 믿거나, 재계에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런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흥미롭게도 몇 번 회의에 갔을 때 최고경영자들이 자기 사업에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상공회의소와 업계 단체뿐입니다. 재계에서는 지나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선거가 끝나면 좀 더 의견이 나올 듯합니다. 제 생각에 두 번째 옵션이 더 가능성이 높은 듯한데, 바로 처신을 잘하는 것입니다. 무역 전쟁의 결말을 예상한 논문이 몇 개 있습니다. 협상에서는 적어도 개념적으로나마 둘 모두 양보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초’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너무 약해 보이는 것은 싫어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두 나라 모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 중재가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을 질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외부적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는 무역 관행을 다소 완화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좋은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박윤식 교수와 공동으로 썼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가계 부채가 주제였습니다. 논문을 쓸 당시, 한국은 ‘초이노믹스(Choinomics)’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로 부풀려진 부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제공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정책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택 시장이 붕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다소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소득 분포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었는데, 이번 정부는 이 문제에 매우 관심이 크지만 적절한 정책을 찾아내지 못한 듯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흥미로웠습니다. 경제학자에게 최

저임금은 언제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를 가르칠 때는 노동 시장에 간섭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왜곡된 효과를 낳아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이미 빈곤선에 가까운 노령층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세금 혜택이나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적 수단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인 듯합니다. 걱정이 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아내야 합니다.

Q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몇 년 전에 한국이 일본식 장기 침체를 피해야 한다고 쓰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난 몇 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이 그 조언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A 한국이 제 조언을 따랐는지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준전문가로 나선 이후로 두 개의 논문을 썼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의 장기 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 논문에서 한국이 주요 영역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이 2.5%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는 은퇴 연령과 관련이 있는 조언이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다지 진전이 없었던 듯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서비스 생산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서비스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한국은 서비스가 완전히 개방된 나라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개방

이 안된것은 아니지만 개방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2.5%로 하락시키지 않고 3.5%로 끌어올리려면 정책입안자들이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 조언을 지켰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소득 분포도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Q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현재 닷 플랏(dot plot)에 나와 있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실업률이나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준이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감안할 때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낮은 상황에서 그런 대외적인 요인에 좀 더 무게를 둔 한국의 통화정책을 전망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A 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이사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한 결과, 2019년 중에 금리를 인상해서 연방 기금 금리를 3-4% 범위로 할인하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공개된 정보로, 앞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상승하거나 세금 감면으로 인해 생각보다 총수요가 상승하거나, 관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금리를 앞당겨 인상하거나 더욱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3-4%대가 될 듯합니다.

한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래 전 세계은행에 있을 때 어떤 나라에 가서 다음날 어떤 국내 정책을 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목표를 설정하고, 금리가 0.5% 상승하면 투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 어떤 부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알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상의 나라를 가정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상의 나라에서는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라면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주택담보대출 부문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본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신경 써야 할 목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를 견주어서 어떤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Danny Leipziger

Danny Leipziger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formerly served as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and held management positions at the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on the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He has published widely in the areas of development economics and finance, industrial policy and banking, etc.

Global Economic Outlook: 2019 and Beyond ¹

Danny Leipziger

Former Vice President, World Bank
Professo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oday, I am going to go through global situation and some major markets, and talk a bit more perhaps about emerging markets, because I think that might be of help to Korea. Now you are in a position where you want to diversify your trade and find new opportunities, so that might be interesting. Then I will end with some observations that are more general.

Basically if you look at the IMF's world economic outlook, you would have seen that between 2010 and 2017 every revision to IMF's global outlook prospects was negative. The global economy was underperforming for a long time after the great recession. All the adjustments and the graphs you would say projection and you would see actual little dots would be less. And this was the reflection of the fact that there were large output gaps in many economies. Despite the fact that companies were very liquid, they were not investing and

¹ This is the transcript of the speech by Dr. Danny Leipziger, Professor of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October 5, 2018.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there was a great uncertainty. So come 2017 and beginning of 2018 the IMF finally was able to put forward more positive forecast, at least until last week, in which they said the global economy could grow potentially close to 4%. The World Bank was less optimistic. But of course the IMF speaks about downside risks, and the downside risk always seem to offset the upside risk. We have to add to this that Christine Lagarde just announced, prior to the annual meeting in Bali later next week, that the IMF was actually reducing its forecast, mostly because of heightened uncertainty having to do with trade .

So the global outlook finally looks better 2017-2018 and on, but we have these new exogenous, or hard to protect shocks. So we are in the world of much greater uncertainty than before.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 I will talk about the story of the U.S. But if global financial conditions tighten, it has implications for portfolios and the countries that are borrowed, particularly in hard currencies. It has the implications for the flows of capital. So that is uncertainty. Those that are most likely affected are the emerging market economies(EME) that have high leverage fixed exchange rates or have borrowed a great deal.

We have greater uncertainty obviously around trade not only in the short term but also what it means for country's national policies. Because when #1 and #2 economies in the world get into trade war, there is spillover effect on others. And if you are a policy maker of country X, you might begin

to wonder whether or not this open trading system that led to fantastic growth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Korea and everywhere is going to be processed or in a new world - if you in a new world what does it mean for domestic policy.

Another uncertainty is actually China itself. And I think China is walking on a tightrope, between trying to curtail some excesses in the financial system and trying to maintain growth because that is what president Xi wants. I would not want to be Yi Gang, the head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because he has been caught between rock and hard place. He is going to have to navi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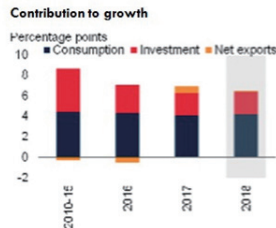
One of the big phenomena of the last few years certainly since the great recession has been that trade has not been growing at the same pace as it had before. If you look between 2000 and 2009 the growth of trade was roughly double growth of global GDP. Now they are more or less neck to neck. So trade is no longer expanding more rapidly.

MAIN DRIVERS FOR GLOBAL UPSWING: TRADE AND INVESTMENT



Stronger investment spending in advanced economies and an end to fixed investment contractions in commodity exporters were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pickup in global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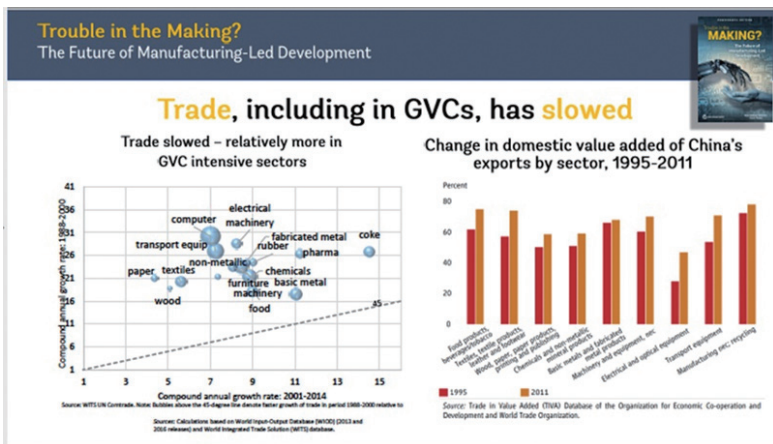
Source: World Bank (2018), GDP



Growth in global trade of goods and services combined is expected to moderate to 4.3 percent in 2018, down from a six-year high of 4.8 percent in 2017.

So the graph on the left just looks at trade growth. As you can see we are talking about 4%, which is roughly IMF's projection for growth, so we are down to that.

Despite the fact that we had interest rates that were at levels that were lower than we would see in many many years, real investment, plant equipment investment has not taken advantage of these record low interest rates. One can ask why. Is it a function of uncertainty, that we are not sure what is going to happen? Is it a function of disruptive technologies coming, so that I do not want to invest in plant that is going to have a life of 20 years if technologies are going to move very rapidly? Or is it because it is attractive to buy back my own shares? Anyway, a lot of possibilities. But that resulted in that not seeing robust growth in trade. And as a graph on the right shows exports are not contributing that much to global growth these days. That is different from the past.



So the World Bank has done some work on the future of manufacturing. Mary Hallward-Driemeier is a lead author on this. On the left it shows by industry particularly those that are global value chain intensive. But the growth rate of trade in those industries 1980-2000 on the vertical, and 2000-2014 on the horizontal. The basic story of this graph is that there is something happening on the global value chains.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Papers have been written looking at that to say what is it. Somehow the global value chains seem to peak even before the nationalist policies by some heads of state whom I would not mention. And one hypothesis is that all the gains and logistics have been captured. We are not going to make faster containership, we are not going to make ports more efficient. There were a whole bunch of areas where logistics could be improved but were not improved. So that is why you have all stories of T-shirt that moves around six times before it hits the Walmart. That is one possibility. Another possibility is the incipient new technologies that are coming out which make it easier to not have to ship things around. But whatever it is, the fact seems to be the global value of chains are changing. On top of which, I will come back to China later, but the proportion of value added that China is contributing in its export bundle is increasing.

IE, old-fashioned terminology for import substituting, is beginning to develop more intermediates, which is a big concern for Korea. Because China is your largest market, as you know, and it is heavily in intermediate products that

lead to something else. And China as the graph shows is increasing its domestic content if you want to call it that way.

So if you want to look at global risks, various research groups do this. We just picked one that was looking at bunch of risks. We will just focus on top three because they have high probability and high impact. I will talk later about something called scenario analysis which looks like one of those events. What you want to look at is those things that will have high impact even if the probability is small. Here they are saying probability is high that you will have protectionism that Fed is going to act in one particular direction. And China is doing something. Here it is called hard landing. I do not think it is necessarily that but there are strains on the Chinese economy and the question is how they deal with it. The impacts of all of these global uncertainties are high. The impact of protectionism is high, the impact of Fed tightening up is high, and the impact of China as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s high.

So let me turn to the story about the U.S. The U.S. is in a boom right now. As Jay Powell just said it is not unsustainable or unrealistic boom. But then again, that is what he is supposed to say. We know that unemployment is at all time low, perhaps 3.8%. There is some issue about do unemployment statistics really measure the true nature of the labor market because there is a lot of part time employment and discouraged workers. All that is true. Nevertheless if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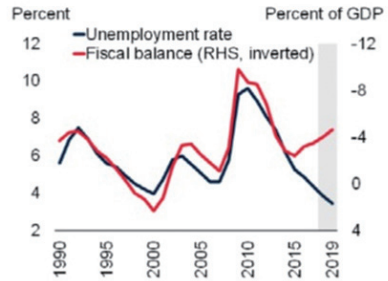
look at output gaps or capacity utilization you see that we are essentially at full employment. We are essentially at capacity; 80% is usually the number that people use for capacity utilization figures. So that should be good news.

Productive capacity



Source: The World Bank (2018), GEP

Federal deficit and unemployment rate



On the other hand, we have some new elements that are going to interfere with this. The first element is that we do not know what the effect of the tariff war is going to be. Number two, if you look at the graph on the right you see although the unemployment has really dropped, the fiscal balance in the U.S. which is currently at 3-4% deficit range could rise by another 2%p of GDP given that there is a new tax bill that should go in effect in January. This is a Trump tax bill to reward the wealthy for contributing to his campaign. It is dressed up to look like it is going to benefit a lot of people. But all the analysis by the independent analysts from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show that for the majority of Americans there is no benefit. Only if you are the top 1% percent or closer to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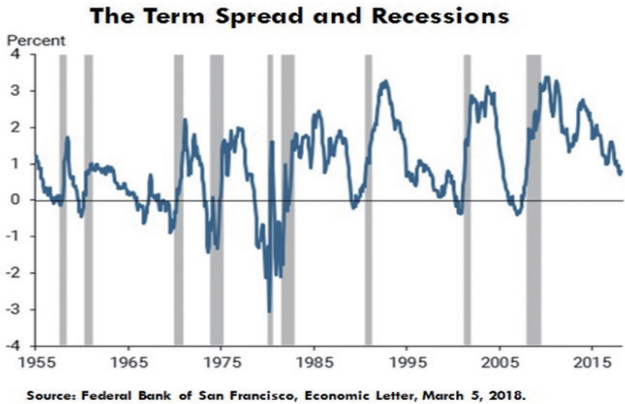
So regardless of income distribution effects of all of these, the main takeaway is that we are in the situation where you have essentially full employment and no output gaps. But then we are going to shock the system with a couple of other exogenous factors - we are going to give it a tax break, it is going to expand demand. If you already have full employment there is only one outcome - the outcome is an increased inflation. Then you have a trade war which regardless of balance of payments effects, also sectoral effects will stimulate inflation. So my Walmart shirt, if I did buy them there, is going to go up because, all of a sudden, there is tariff on the Chinese products.

So these are the factor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paper done by the San Francisco Fed looks also at the yield curve. The yield curve as you know is the difference between short and long term rates. Usually we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year and ten-year treasury rate. And if the yield curve is normal it is upward slo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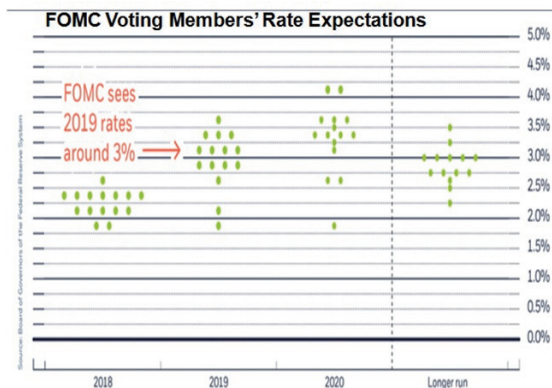
Because people expect they should get rewarded more for giving you money for longer periods of time than shorter period of time.

You can also have a situation where the yield curve is flat. That more or less describes the U.S. today. The difference between two and ten year bond rate is something at a range of 20-30bp. So essentially flat. Of course you can have the reverse-inverted yield curve which means that people are so

scared about the future that they do not want to get into any long term contracts and something is happening in the short term.



So this paper looks at episodes where the yield curve in the U.S. has become inverted and now we are flat, not inverted. And it says that the probability of recession following an inverted yield curve is very high, about 90%. So that is a measure one has to watch carefully, they say, the recession ensues between 6 and 24 months when you see this inverted yield curve. Zero means absolutely flat. So in situations like that recessions are possible.



So the Fed just raised its discount rate, so the Federal Fund rate will reflect this. We are now at 2.25% and this is the 8th rise since the great recession. Quantitative easing is being reversed. So there is some either buying or selling of these trying to reduce the money supply or letting these mortgages and other things exp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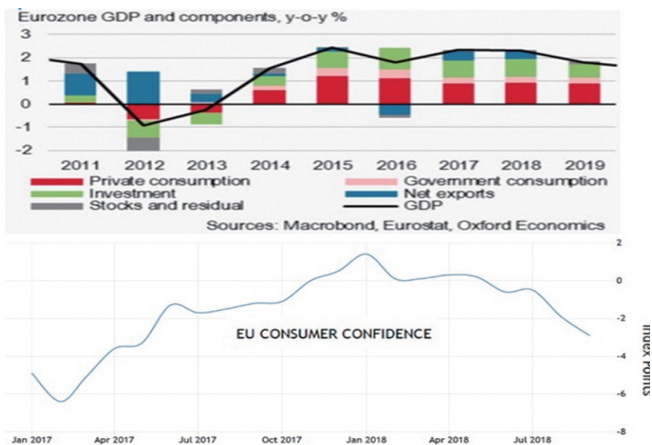
This graph shows the voting of the member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It is very transparent, who votes in favor of raising rates and who does not, and what do they think is going to happen. And the betting is that in 2019 the majority of Fed governors see interest rate continuing to be ratchet up, maybe three times further into 2019. The consensus rate, the consensus discount rate is between 3-4% and each dot is a Federal governor.

So we know the direction, it is only the question of the rate of change, the speed and how often and how vigorously they

will tighten up. One of the reasons of tighten up is inflation because the Fed has two obligations. It has to maintain economic activity and it has to control inflation. Target rate inflation roughly 2%. Jay Powell at the Jackson Hole conference said that everything was fine and inflation was not a big problem. But if you look at core inflation over the summer it was roughly 2.4%, above the target rate. And if the trade war impact shows up in prices it could be even higher. The U.S. has an advantage in so far as we are not the most open economy in terms of imports. So I will get to that when we talk about the trade war.

So when one has to look at what is happening in inflation think about it this way- we have full employment, output gaps disappeared, more or less capacity. But we are having a tax break that is going to hit us, we are having inflation that looks higher than target rate and we have the potential of a trade war. This leads people to think that the outlook for 2019, in particular 2020 is not the best.

The stock market, even though I am not the right person to comment on that, but we are at an all time high in terms of stock market and certain people like Robert Shiller who wrote the “Irrational Exuberance” and got the Nobel prize started talking again about bubble. If the stock market is too high it is inflated by variety of things. I will come back to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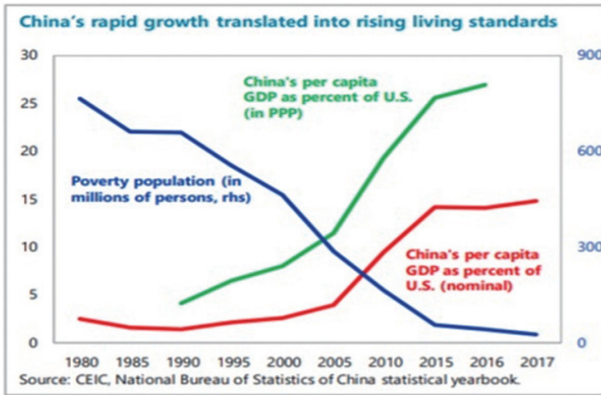
Europe has less to say about. They are finally coming out of recession, growth rates of 2%. But they too have some problems. Brexit being one of them. And EU consumer confidence, which is the graph on the bottom, shows the mark of decline in the last year or two. The countries you would like to see spend are Germany, Netherlands, etc. The countries you would want to stop spending because they have misspent in the past - Spain, Portugal, Greece, and Italy. So it is hard to see where exactly the growth stimulus comes from. Now in the case of Germany, their exports of GDP is 45% so they are very heavily dependent on what happens on the global market.

The ECB is still doing quantitative easing but at some point they are going to have to reverse engines or be stuck with a lot of losses. So this is an internal European problem.

In one of my classes we looked at the case of Greece on

Tuesday as the case has been mismanaged terribly from the beginning. Greece suffered the decline in GDP that was only seen in Great Depression in U.S. in 1929-1933, the decline of 25% of GDP. On top of which despite all the bailouts, EU bailouts, IMF involvement alone the debt to GDP ratio in Greece in 2010 was 120%, today it is 220%. This is after the bailouts, after debt rescheduling, after a whole bunch of things. This is not sustainable debt model. If you look back you might say, going back to 2010, where some people like Martin Feldstein and Joseph Stiglitz who never do anything, but they thought maybe Greece should leave Europe and they would be better off.

So the Europe uncertainties as I mentioned are tightening of financial conditions, trade uncertainties, Brexit-like uncertainties, Turkey, which is an interesting case. Apart from the reviews on Recep Tayyip Erdogan, Turkey is a country that has traditionally under-saved, say 15% and they invest 25%. How do they manage that? They borrow. Everyone has been perfectly happy to lend Turkey. The Turks have been perfectly delighted to borrow. The only problem is that they borrow in short term dollars and euros. At the end of the day if you have maturity or currency mismatch, you can get caught. And Turkey is getting caught, which is why the currency has plummeted. This has some implications for the rest for the Europe because they are pretty well integrated into Europe.



Source: IMF Article IV, June 2018

China is probably a country that interests many of you. China's growth rate is going to be between 6 and 7 depending on how they manipulate the numbers, they are definitely catching up. The graph on the left looks at their poverty record which has been fantastic, the blue line as well as if you look at the red line, what proportion they are of U.S. GDP. They are obviously catching up. But then in capital terms they have got ways to go. In terms of the size of the economy there is no doubt that the country that grows 6-7% a year versus the one that is growing or will grow 2-3%. China will catch up and be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t some point in time.

That is not the really interesting part of China. The interesting part of China is the financial sector. So the IMF has been issuing warnings over the last 2 to 3 years about China's financial sector. It is usually diplomatically couched but if you actually look at some of the article for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documents they are pretty clear that they are very worried about China's debt. So Chinese debt, there is a range of error around it, but let's imagine it is 300% of GDP. Two thirds of it is corporate debt. So roughly 180% of GDP is a corporate debt. And you have some household debt, not as much as Korea. I think around 50% of GDP, while Korea has the record of 100% of GDP or close to it. And there is government debt. The central government debt does not look bad, but if you put in the provinces or other governmental entities you get this to 300%. Is it a problem? Well, it is not a problem in so far as China has the fiscal resources to deal with it. They could write off a whole bunch of debt. They could deal with state banks going under and having to recapitalize them. They have enormous financial reserves. They have international reserves, but mostly this debt is not externally held so that it is not a big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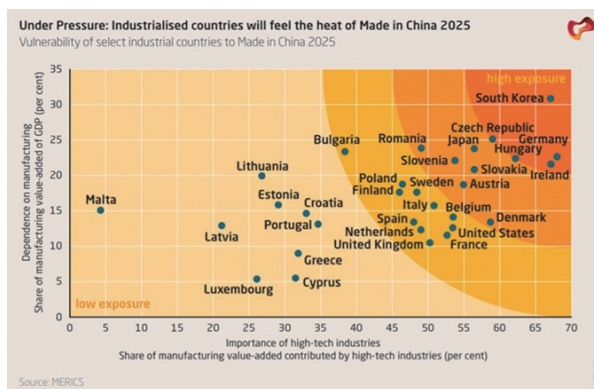
The problem is that if you are the governor of the central bank you, as I said before, caught between rock and a hard place. Because what you wanted to do and he started prior to 2018 trade war is to start curbing some of the excesses of shadow banking, which is a huge part of the financial sector and under regulated part of the system. If you go back and look at the financial crisis in Thailand, the most vulnerable sectors were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If you look at the Korean crisis of 1997 merchant bank were more culpable than others. So there is always the less regulated part of

the financial sector. Regulatory arbitrage means people go to that sector. And at the end of the day China is going to have to deal with this. They were dealing with it, tightening up on collateral rules and limiting credit expansion. Credit expansion by the way is the best predictor of financial crisis. When I teach my class, I tell them if credit is expanding one or two times the GDP, it is okay, three to four times GDP- watch out, more than four times- you are going to have a financial crisis. If you want to look at an indicator, look at the rate of credit expansion in economy compared to GDP growth.

So China has been trying to tighten up, but ever interesting statistic coming from an IMF is that had China followed what is known as Taylor rule which is you increase money supply, you try to hit the target rate based on inflation and output gap. If your inflation is too high, you tighten up. If your output gap is too large you loosen up. Had they followed some similar rules and named after John Taylor who is a professor at Stanford who was under Secretary Treasury for a while.

China would have had the growth rate that was 1.75% lower than it actually was. In other words, achieving 7% target it was largely on the back of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in China. So to reverse that takes some doing. The Chinese were on this path sort of trying to ring fence off the problem when all of a sudden they get hit by a trade war and they have

to stimulate demand. So now they have reversed the engines. And in the last six month \$750 bil. of medium-term lending to banks and others has occurred. In my understanding this is a quantitative easing. This is giving credits, buying assets from banks in order to expand the money supply. The problem China faces and dealing in its national sector has been worsened by trade war.



China also has some longer-term interest. How many of you have ever seen this picture. If you have not, I suggest you go to the website of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MERICS) in Berlin. They have done some analysis of Made in China 2025 report. Made in China 2025 is the industrial policy of China as announced by the authorities in 2015 indicating industries in which they would like to achieve global market presence. They are robotics, automated vehicles, new range of high-tech industries in which the Chinese want to be big players. They want to produce as many of the import that are needed by themselves. I hate import substitution.

And certain countries may be most vulnerable. Guess what, Korea. High manufacturing, high tech products are the most vulnerable according to this analysis. China might slow down their aims 2025 due to trade war, or they will accelerate them. My guess is they accelerate them. So this has implications for other countries.

Two years ago the think tank that I run called the Growth Dialogue was hired by KIEP, one of the think tanks here, to do a big study called “Economic Challenges for Korea: Mega-Trend Scenario and Analysis.” This was published in 2017. You can get it from KIEP. Basically we are looking at Korean economy from two aspects. First one was what are the mega-trends that will affect Korea in 5-10 years. So we picked three: de-globalization, disruptive technologies, and increased uncertainty. These are the underlying trends that we think are pretty reasonable to assume for the next decade. On top of that we suggested to Korean economy black swan events, low probability, high impact events. When we proposed them in 2016 one of the black swan events was trade war between USA and China. I am not a foreseer, I thought the probability was 5%. Who knew that it will come to pass. We also looked at troubled China scenario and global meltdown which I do not think is likely. And we run through what this would mean to Korea.

There is little less to say about Japan. In a good year, Japan could grow in 1% and in a bad year less. Abenomics has

tried its best, nobody has ever expanded the money supply more than Japan. Fiscal policy I often thought as in errors conflicted. Because sometimes there is more expansion, sometimes there is more taxes. There is a problem because the Japan's debt to GDP is 240% or something. So running deficits is not considered a great idea. But with due respect to anyone from Japan in the audience when I teach macro class I say why Japan's growth rate is what it is, and the answer is the Japanese grandmothers do not buy new refrigerators. So I claim this is demographics that you cannot change. So that is a structur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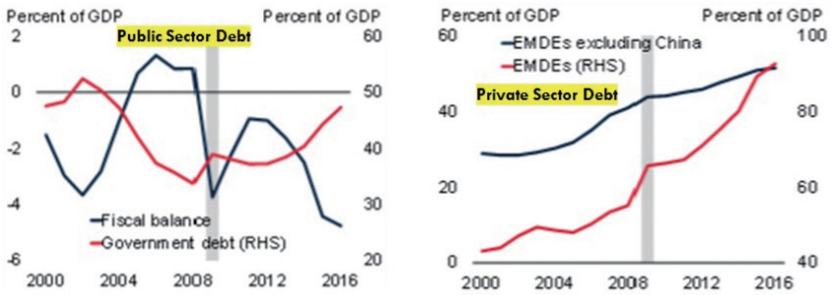
There have been some good news in terms of the unemployment rate dropping and participation rate increasing which has a lot to do with a role of women in Japan. Korea can take a note of it becaus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in Korea are not better than in Japan. So the demographic problems that Japan is facing Korea is going to face, too. A little bit of a lag but I did a paper a few years back on this and the demography is very difficult to change except for wars and diseases and you can exactly know what your population is going to be in 20 years. So I feel many countries, Japan and Korea included, have done too little too late in order to deal with this.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improvements. Having daycare centers and other things might be helpful.

So Japan is in this odd situation where it is still the central

banks with the most assets in its books. It has done the most in terms of quantitative easing. So someone said he is going to continue to do this. So let's hope for that. So emerging markets at some level they are recipients of what happens on global economy, oil prices, trade, commodity prices, etc. Their fortunes rise and fall to some extent with global factors. They have institutional and development constraints. If you look at World Bank's doing business study or look at the corruption indices,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can hold countries back. But there are also these uncertainties. Uncertainties about oil prices, yields in the U.S, about the value of the dollar. A lot of countries in good times feel that it is a good time to borrow. The markets love us, Goldman Sachs is willing to sell anything. So they will sell our bonds and that will be great, the interest rates are low. But guess what, when the dollar appreciates and your currency does not, then you have got a problem.

I have a class of students now from all over the world. One of them from Nigeria said, "The domestic borrowing cost was very high. So we thought we should borrow on the markets. We can borrow in euros and only pay 5-7%." That is a good benefit of 13-15% except if your currency falls by 15%. Then you lose. Moreover, borrowing on capital markets the finances and fiscal deficits is not a smart thing. But a lot of countries have done it and so the emerging countries are more highly indebted that they were 10 years ago because of variety of factors, depends on individual country.

So the growth rates look okay, but the risks element is very high. And it depends by country how exposed they are and what their debt profiles look like. But number of pundits said that emerging markets are in for tough ride. Turkey was one case. Argentina, if you want to talk about it, I am more than happy to discuss Argentina. This is another, perhaps atypical story. But there are going to be many more. As the Fed raises interest rates, as capital moves towards more yield, there is going to be less capital available in emerging markets, which means that their exchange rates will not do well and they are going to have a greater difficulty funding their current account deficits.



So the graphs on the right show that public sector debt has increased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with or without China. There is a percent of GDP fiscal deficits are being financed by foreign borrowing which is a problem. So emerging market risk is a subject for another talk. But if I to suggest uncertainty in trade area, uncertainty in terms of global growth, uncertainty in terms of interest rate and

exchange rates means the emerging markets have to be more vigil than ever. And the policymakers' problems from most of EME is when things are going well why should we undertake this difficult reforms. And when the things are going badly, this is the worst time to undertake those reforms. So they never happen. You can look at World Bank reports, IMF reports they have a list of things that should be done and very few of them get actually d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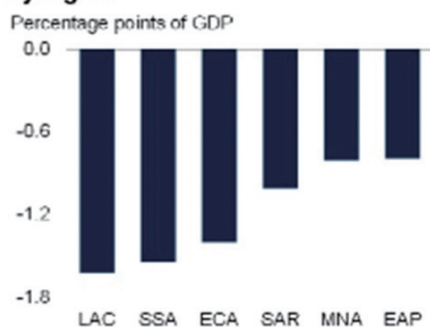
So the outlook for 2019-2020, I think the U.S. is in a good position at the moment. If we had more rational economic management in Washington we could benefit greatly from this.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that. So the second-quarter growth rate in the U.S. was reported to be 4.2%. Even so we are running high and we are running high at the time when inflation is perking up and some of the major hit that I have described has really taken the effect yet. But the deficit will increase with the tax bill. Most surveys, like this one for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foresee a recession in the U.S. by 2020. Of course Nouriel Roubini says recession is coming, but he always says recession is coming. Like the weather man who always forecasts rain because he does not want to be wrong. This case, I think, he actually on formal ground than other circumstances because if you look at all the things I have presented like yield curve, inflation, the role of the Fed, trade, unemployment in a probabilistic sense it has to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party is not going to last forever.

And what is going to happen is the inflation rate will pick up and the Fed have to clamp down more. So Fed, which has been main instrument to keep the U.S. economy float during these post-recession years, is going to be the one to turn off the spigot. Which will have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U.S. but for others. Big implications for the EM in particular.

It is hard to predict what is going to happen. No one would have predicted the situation as we now see it. People who taught international economics 30 years ago focused a lot on trade accounts, j curves, responses to exchange rates. Just the thoughts that the Fed is going to act, whether it is actual for guidance or impressions, can create shocks. Trade takes a while so we do not know yet.

This is just a list of U.S. actions and retaliatory actions by China. A lot of goods are subject to tariffs now. U.S. is less open as I said than China. Chinese export to GDP is twice as that of U.S. So they are more vulnerable on that side. On the other hand they have a capacity to shelter industries that are in trouble and keep them alive: give them the credit or other things. The U.S. is less so. At the end of the day the U.S. consumer will be paying the price for these tariffs. If you are paying more for goods, then you have to find other sources.

C. Impact of interest-rate shock on fiscal sustainability gaps in EMDEs, by region



Source: The World Bank (2018), GEP

Disorderly financial tightening, apart from the protectionism, is probably largest in terms of the global impact. Because as the above graph shows every time the global interest rates, which are largely driven by U.S. actions, go up by 1%. It increases the fiscal deficit of EME because they have to repay previous debt.

We were at a period of normally low interest rates, now we are back to normal. Unfortunately in that interim period a lot of countries overborrowed and they are going to see this in interest rates as well as in differences in exchange rates.

I am not going to talk about bigger mega-trends because I want you to read the KIEP book. But McKinsey has been doing a lot of these prognostications. Of course to prognosticate out 2030, no one is going to check you in 2030 to see what you said in 2020, right? You can get away with a

lot. So McKinsey tends to overdramatize. They overdramatize on the upside, on the downside. They have beautiful pictures. I am sure they charge a lot of money. But every now and then I take one of their pictures. And so this one looks at various sectors and says that there is 60% probability that 30 % of jobs in many industries will be automated. We know the trend whether it is a probability of 60%, 50% or 70%, and who knows whether it is going to affect each industry in the same fashion or we can predict how it is going to affect. Basically we know the disruptive technologies are with us. You know it when you get an automated AI response on the phone. You know when you look at robotics, Korea is very strong in robotics, other countries as well. For countries that have aging populations, at one level you could say well robotics is a good thing because we need fewer people, so Japan and Korea are going to have an aging population so let's use the robots. But the problem is these elderly people are living longer and you need fiscal resources to keep them going and some economic activity to underpin that. Nevertheless in other countries, in EM disruptive technologies are going to hit them as well. So they need fiscal capacity to deal with these changes. As I say this is a talk for a different time.

So final thoughts. I guess the governments in general have allowed fiscal space to erode. It is an interesting statistics, I am going off to IMF/World Bank meetings and I am on the panel on East Asia report they are doing. Fiscal revenue generation in East Asia is actually not that great. I am not

talking about Korea now, I am talking about other East Asian economies. They always point fingers a lot at America saying they do not collect taxes. Well, look at Cambodia, Laos, Myanmar - they are not collecting taxes, either. So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as you face these pressures from disruptive technologies, aging population etc., you need fiscal resources, and a lot of countries are not in that position. The second observation is income equality is getting worse and people associate it with globalization. This was Joseph Stiglitz's book of 15 years ago, which is just reissued on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 saying that everyone does not gain. And economists tend to gloss it over. The gain is plus 10, the losers are minus 3. Net 7. No, you have to worry about the 3 because they can elect the faulty president if they think the trade is the reason for their decline.

So income inequality is a problem, wealth inequality is even more so. Wealth inequality generates future income inequality because it limits economic opportunity for those that are not in the privileged class. I guess this is a discussion inside Korea today. I think what we are seeing if you remember Daniel Rodrik who wrote a book on capitalism called the Globalization Paradox, in which he put forward what he called trilemma. Trilemma comes from monetary economics but he is in a different way. He says countries cannot be hyperglobalizers - open to producing anywhere in the world, putting profits wherever. They cannot be hyperglobalizers - pursue nationally economic interests and

be democratic. Basically you can pick two out of three. It actually is an interesting way to think about things. China is not democratic, they could do the other two things. The U.S. is democratic, has been hyperglobalizer and some would say it has neglected nationally economic interests. It is a little too broad in characterization, but clearly there is something there. The bottom line is inequality is something that people care a lot about and it derails government policy. Populism is a bad thing. If you look at Brazil's election coming up- two really bad choices. So populism is not good.

Capitalism I think is under threat in part from state capitalism. So we enough said about China. But China has benefited tremendously from the global system. It has contributed some, it joined WTO for example that was worth. But it has protected some services, it has been tough on intellectual property, been tough on foreign companies and it has state machinery behind it. Alibaba would not be Alibaba without getting credit from state banks when it was necessary.

I m not very optimistic about G20, I think you asked about them. I think the G7's demise was pretty mature. They needed to have added countries, they needed to be like-minded with G12 or G15 or whatever it is because you never going to get agreement in G20 with China, India and Russia. But there are a whole bunch of other countries, Korea included. That would have been perfect partners for the G7 in some intermediate

grouping of the like-minded. Unfortunately I do not see this happening in G20.

So what your countries should do? Sort of looks like reading off the IMF's bible. Increase their resilience to shocks, because there is going to be more of them. Try to get some national consensus around policies, dealing with aging. So getting ahead of the curve and doing some thinking. Dealing with inequality and support in a situation where because of disruptive technologies, it is no longer the case that workers are going to be with the same company for 30 years. And that has two implications. First, the company is not interested in training or retraining this person because 5 years later they are going to be doing something else. And it places much greater burden on the worker to do what education people describe as lifelong learning which sounds nice but hard to do, hard to finance. I am in favor of an individual training accounts. But anyways it means the governments have to think through some of the implications of these future problems. That is just put longer term perspective on things but basically I was just trying to cover 2019-2020. So thank you very much.

QA

Global Economic Outlook: 2019 and Beyond

Questions and Answers



Koreans have a lot of concerns about a huge trade with China. Now Mr. Trump seems to be about finished up with surgical operation of the NAFTA. Expectations are that he has now put full-time effort on dealing with China issue. Of course it is all the bad news. My first question is do the trade economies still need aid IMF or World Trade Organization every base year. How good can be or how badly this could affect? It seems that whenever bad things come, there tends to be a lot of people tend to underestimate of Taylor rule coming through. And since U.S. and China have such a great amount when the negative effect comes it could be with trickle down effects. I would like to see your opinion of it.

The second question. I am a little intrigued that Federal Reserve governors all almost unanimously saying that next year they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in the face of the fact that this year's U.S. economy was very much helped by one time effect of Trump's tax reduction which is very serious and putting a lot of capital from world. As a result right now what is happening, U.S. has seen such a growth but most of their allies, enemies are not particularly in case of Korea. Now we have a situation where the interest rate differential between U.S. and Korea has already expanded 1.5. If the U.S. continues to raise interest,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Bank of Korea is caught in the hard place. My question is how come the Federal Reserve is so optimistic when people are seeing this good news cannot

be continued and as you mentioned yield curve even shows the sign of turning negative and people are expecting 2020 recession. So how come the Federal Reserve is so certain about increasing interest rate next year.



I think I have not seen any good studies that forecast the impact. I think the betting is that increase in costs associated with tariffs will be shared somehow but depends on what industry, somewhat by the sellers, Chinese still want their market; some portion by the U.S. domestic producers and then some by the consumer. So that does not answer your question, that is just analytically those are the three people that would have to share the burden. I think you would very much by industry because you are in the highly competitive industry you would absorb more, if you are in less competitive industry you can pass it on. But I have not seen any good work.

On the U.S. and Korea interest rate differential. Well the first thing to take into account is that the Fed has two objectives: maintaining economic activity and control inflation. Worrying about other countries is not in their charter. Now you can say what an enlightened head of the Fed would think about it. I am sure they do a plenty of analysis but they do not worry about that. Other countries have to adjust and they are not going to do any different way. So why is there so much good news? I think it is too uncertain, for example, if President Trump disappeared, the U.S. economic

policy could be reset very easily. Because fundamentally there are a lot of strength to draw upon. At the moment I think the Fed is trying to counteract some of dysfunctionality at other parts of the economic operatus so it is trying to maintain confidence. And actually the Fed has been doing that since the great recession.



I have two questions. One is about U.S. economy. There are many factors contributing to robust and excellent record of U.S. economy. And President Trump said everything happened during his administration and he should be credited for all the outstanding record in employment and growth. So what is really behind it? I think you should look beyond the five years. If you look at the U.S. economy who do you think should get the credit and if you can share with us some of the “behind success” of U.S. economy right now.

Number two question is about downside risk for 2019 and beyond. You have mentioned a few risks but I think also the great risk is coming from the U.S. government and Mr. Trump risk. And from the two years of his administration we have seen very drastic changes in foreign policy, trade policy and also many other policies including the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of steel, aluminium and also auto. Do you see any other risk we should anticipate and what do you see is the next round of risks that can be expected from Trump administration?



The credit for the U.S. recovery. Well first of all it is hard for me to be unbiased because you may have seen through my very diplomatic language that I am not a fa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only thing you can say that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administration is that it is pro business and whether it is tax cut or whether the way they operate I think some aspects of business have felt some additional confidence. I think largely it is a recovery that just took a long time to take hold. I do not think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did a particularly great job either although they had political constraints about what they can do. So I think part of it is a natural recovery and I think another part of it has to do with business confidence, etc.

The Trump being a risk generally. So here is a weird fact which is that during the great recession of 2008-2010 the dollar strengthened. So the only explanation for that is that people were so worried about the global economy that they run for the safest currency they could find. Even though the recession started in the U.S.A. and it was the U.S.' fault in that context, they still went to the dollar. So I do not know that you are going to see a lot of reaction although the november elections could mean something. So I do not have a view on that.



Professor Mearsheimer was here a few months ago and he mentioned as well the issue of the competing global supremacy between China and U.S. and the fact that

you mentioned the vulnerability of China, how the trade war might increase that vulnerability. The scenario regardless of the characteriza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his policies seems to be a very logical one. You have to slow down in this incredible growth. I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of U.S. and with all the collateral damage happening globally. It seems that this trend from maybe a national security point of view should be continued in order to slow down the growth and to achieve that. Now having said that, if you agree with that characterization then the trade issue is not an uncertainty it seems like that it is the fact that we really mean for sure and it is becoming more like a deliberate policy that should continue in order to achieve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I do not know how you agree with that analysis.



So I think there are few factors that complicate China's actions. The fact that they are going to be the largest economy is a given. I would not be in favor of slowing it down just because U.S. wants to be the #1 until 2032 instead of 2030. I do not think that makes any sense. The question is what instruments of policy China is using to get there in a hurry. That they will be there is a given. If they are using unfair trade practices, if they are protecting the service sector, there is stealing of technology- those are bad things. Now unfortunately, it is taking Trump to raise the visibility of some of these things. He has used the wrong instrument, he has used the wrong rhetoric, he has done it in an unproductive way. But he has identified the problem.

So I think the problem is not that China is growing the way it is. The problem is that China also has geopolitical aims. So if we were Luxemburg we would not care. If it were the 13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that had a Made in China report and had industrial policy behind it, if they were #13 economy in the world I would not care, either. But they are the second largest so we are the first largest and in this regional the dominant economy. So if that economy misbehaves or uses the system in its advantage, and also has industrial policy then I do not think it is an issue of slowing them down. I think it is an issue of holding them accountable for the same kinds of action that we held others accountable for. Is it all China's fault? No, I would say the industry in the U.S. and the Europe are also at fault because they are interested in short-term profits and the specter of Chinese market. But at the end of the day that Chinese market is going to be dominated by the Chinese firms and Germans need to realize that. But they don't. The U.S. firms even less because they look at share price value at each quarter and as you see the CEOs do not last long. So they are interested in short term profits and they are willing to sacrifice a long-term gain. The Chinese are the opposite. They are in for the long game so that coming back to Rodrik's trilemma non-democratic regimes have easier time saying this is where we want to be in 2025-2030 and we are going to use all the state ladders to get there. Easier to do it that way.



I would like to go back again to China trade war. Do you think this trade war is president Trump's policy to destabilize the global liberal order in terms of the trading system? Or just intended to push China in the corner to correct the unfair trade practice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except how long this current tit for tat high tariff imposition would persist between two countries? Because it has enormou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Slowing down as you said, Korean economy would be entirely affected. Now China is pushing for import substitution of very sophisticated high tech product and that will challenge Korean competitiveness in the high tech area. I think the only thing left for Korea is semiconductor and shipbuilding, everything now is in collapse. If Korea cannot escape from this challenge or import substitution policy of China, Korea would be in big big trouble. So what is your view on this?



When it comes to the trade war, it is hard to figure out what is motivating President Trump, but I know that he took a broad sword against globalization at the UN. However, I think that is rhetorical. I do not think that he necessarily believes that or that the business community, if it begins to speak out will support that. I think there have been interesting meetings where individual CEOs do not want to take him on even if it is detrimental to their businesses. So the only way the business view can be heard is through Chambers of Commerce and business associations. I think they have been much quieter than they should be. Perhaps

after November elections they will be a bit more spoken. So, in my opinion, the second option is the stronger one, which is to try to behave better. There have been some academic pieces written about how the trade war could end. If you were looking at a negotiated settlement, it would not be that difficult to, at least conceptually, come up with situation where they both stand out. But it is sort of a "macho" thing. Trump does not want to be seen too loose, and the Chinese do not want to be seen too loose, either. So I think mediation would actually be a good option because I think both countries are going to lose. How much and where is the burden - it is not so clear. But whether other countries also lose is an externality. But you know, there is a negotiated solution. The negotiated solution on part of China could de facto slow them down because they might have to ease up on some of the practices that others find difficult. Throwing tariffs on things is probably not a good option.

The second paper that I wrote with Yoon-shik Park had to do with mortgage market and household debt. At the time that the paper was written, Korea was engaged in 'Choinomics' which I thought was not the right policy. I did not think this stimulating growth by making it easier to get mortgages in an inflated sector that was very heavily indebted was really smart economics because we have seen the housing sector in the U.S. collapse. That I think has been somewhat reversed so that is a good news.

On income distribution, which I have also written a little bit, I get the feeling that this government is very interested in dealing with the issue but they might not have found the right instrument. I note with interest the minimum wage discussion. Minimum wage for economist is always complicated because in economics 101 they teach you that a minimum wage is a bad idea because it interferes with labor markets. But it turned out, I guess, that raising the minimum wage in Korea had a perverse effect which is that some people lost their jobs and many of them were elderly who were already close to the poverty line. So that seems to me as an instrument maybe less desirable than some tax credit or something on the fiscal side that would not have affected employment levels. But I take it that is the concern. But I think countries need to find the right instruments to deal with it.





If I remember it correctly, you wrote about what South Korea should do to avoid the experience of long-term recession of Japanese style several years ago. In retrospect, what is your evaluation in the past several years? Did South Korea do well in implementing your advice?



On whether Korea took my advice, that will be a hard test to pass. I have written two articles since I went to being a quasi-academic on Korea. The first had to do with what you were describing which was the Japan story line and my recollection of that paper was that Korea's

potential growth rate was going to be low in the 2.5% range unless it did some serious reforms in some key areas. One had to do with retirement age, which I guess there has been some movement on. The second had to do with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which I think there has been not a great a deal of progress on. And the third had to do with productivity in services because as the economy becomes more service-driven, productivity in services is less so than in manufacturing and Korea has not had the best record in opening up to services. It has not been as closed as many others but there are impediments. So productivity in service sector is low. So, to get to a potential growth rate of 3.5% instead of 2.5% as long-run, I recommended that the policy maker look at these three things. It is for you to judge whether or not they have done that. Income distribution is another issue that one looks at a lot.

 As you briefly mentioned, do you think Fed will normalize the monetary policy faster than it is shown on the dot plot due to de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or trade war between two countries? You said Fed does not consider situation of other countries. Given the fact, how do you predict Korea's monetary policy, focusing on those external factors, based on the circumstances that Korea's economic growth outlook is slightly lower than expected.

 The Fed's actions. Ye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current thinking of the Fed in terms of monitoring

the views of the governors is that during 2019 the majority of them see increases in interest rates to put the U.S. discount or Fed funds right into 3-4% range. So that is public information. So that is what they are saying now without having felt the worst case scenario of what could happen. If the inflation picks up more than they imagined or if aggregate demand increases more than they imagine because of the tax cut, or the tariffs have more of an effect. They could either do it quicker or more severely. But I think that the 3-4% range is what the betting is.

I do not have views on Korean monetary policy because I learned long time ago in the World Bank that you do not arrive in a country and then the next day give opinion on what the domestic policy should be. But I think any central bank has to figure out what its objectives are, how sensitive is investment to whatever, half-percent increase in the interest rate, what is the reaction likely to be and what sectors - that is an issue. What is the impact on the mortgage market in a hypothetical country? In some hypothetical countries, a lot of the interest rates and mortgages are variable. If a country has a lot of household debt, raise in the interest rate on mortgages makes that sector more vulnerable. So that is something one has to consider. On the other hand, if interest rates diverge, capital tends to flow out. That has implications as well for a country. I think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s there are multiple objectives that a central bank in a hypothetical country has to worry about. And they have to weight them and decide on what is the right policy.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 무역 정책과 한국

**U.S. Economic and Trade Policies of
the Post Midterm Election**

제프리 샷
(Jeffrey Schott)



제프리 샷

Jeffrey Schott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국제무역정책과 경제제재 분야 전문 선임연구위원. 미국 재무부에서 국제무역 및 에너지 정책 분야 전문가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으며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와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객원교수를 역임. 현재도 미국 국무부의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 무역 정책과 한국¹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오늘 발표할 주제는 ‘2019년 미국 무역 정책’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개 무역 정책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시대에 무역 정책을 예측하려면 곡예를 부려야 합니다. 저한테 아직 그런 능력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최선을 다해 예측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중간 선거를 치르는 것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것은 미국 무역 정책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백악관 내부 세력 중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과 트럼프가 취임하고 처음 2년 동안 추진했던 새로운 보호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누군가하면, 민주당의 기반이자 핵심 지지층인 주요 노동조합 리더입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새로운 제한을 설정하는 것에 반색하고, 태평양과 대서양 너머에 있는 우방국과 동맹국과의 회담에서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¹ 본 글은 2018년 11월 29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사 강연 포럼(IGE DLF)에서 제프리 샷(Jeffrey Schott)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의 강연 내용을 녹취 · 번역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강연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본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와 무역 정책을 두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지층이 같기 때문입니다. 더욱 정치적인 문제로도 싸울 거리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그 정도에 만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무역 문제는 다소 제한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큼니다. 의회에서는 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선결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은 NAFTA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북미 협정 이름에서 ‘자유 무역’이 빠졌고, 이는 협정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정적인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50여 년 동안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의 남용에 대한 불만이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1962년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른 권한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적극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고, 의회에서는 트럼프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에 위임한 권한에 고삐를 죄는 것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막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소 잡음이 있겠지만 의회가 무역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완충 역할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USMCA 법안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 6월에 한-미 FTA를 체결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협상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도 오랜 시간이 흐르고 몇 번의 추가 협상을 거친 다음에야 미국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표결에 부쳤습니다.

개정된 북미 무역협정은 특히 노동권 행사와 통화 영역에서 많은 대통령 지지자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큼니다. 백악관을 비롯해서 의회와 행정부 내부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집단이 다른 국가와의 협상 견본이 되도록 USMCA에 있는 조항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은 상황을 매우 신중히 주시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내년 초에는 이행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협정을 업데이트하고 확대하자는 요청을 추가로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역 정책의 초점은 무역 협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백악관은 이미 의회에 일본, 유럽연합(EU), 영국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지 절차는 시작되었고,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월요일에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제출할 미국 목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북미 무역협정에서 환경 영역만큼은 지금까지 협상했던 어떤 협정보다도 잘 되어 있는데 기후 변화 문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방치하다시피 했지만, 사실 환경과 관련된 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아마 영국과는 새로운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영국 의회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오기 전까지 영국은 어떤 국가와의 협정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즉, 최소 몇 년 이상의 과도기가 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전까지는 협상은 하더라도 미국, 한국 또는 그 어떤 나라가 되었던 영국과의 무역 협정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아마 2025년경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워싱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경제 개혁을 일으키는 데 최적의 방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중국과 경쟁하면서 괴로움을 겪어 불만을 품은 국내 노동자와 기업에게서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며칠간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지만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동기는 충분합니다. 협정을 준비하는 과정은 복잡해지겠지만 실질적 문제도 매우 큼니다.

단기적인 중-미 관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입품의 절반 정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수입품의 약 70%에 대해 관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런 보복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누가 덜 피해를 입느냐의 문제이지, 손해를 입은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을 자제하고 의견 차이를 해결해야 하거나, 적어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만은 막아야 할 만큼 경제적 이익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1월 1일로 예정된 다음 단계 관세 인상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은 이미 1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대 25%까지 관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수입품은 대부분이 소비재입니다. 전기통신 상품, 컴퓨터 등입니다. 관세 10%는 미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활발한 경제성장에 가려졌습니다.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12-24개월 이내에 미국 경제가 약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안정을 원하면서도 중국을 응징하는 듯이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달성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역 적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올해 트럼프가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중국에 대한 적자는 상승했습니다. 불확실성과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띠는 것도 여기에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치적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매우 단순합니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

문입니다. 중국 무역에 전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실행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고문은 물론이고, 경제를 아는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약속을 지킨다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미국 정치 스펙트럼에서 불만을 품은 계층으로부터 많은 정치적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화당 후보자가 승리를 거머쥐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재선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미 산적한 경제 문제에 이 문제를 더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다, 국내 경제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홍콩계도, 시진핑이 이번 달 초에 개최된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Shanghai International Import Expo)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는 동안 외국 자본에 대한 상한을 해제하고 금융 서비스, 자동차,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강화하고 중국 최대 규모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구는 시진핑의 상징적 계획이기 때문에 시진핑 개인적으로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인하하고자 노력합니다. 적어도 자동차에서는 어느 정도는 노력했고 서비스와 투자에서도 더욱 노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시진핑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분야는 그래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국영 기업에 대한 기강 및 보조금, 이러한 국영 기업과 중국 경제 전체의 병폐인 불량 채권의 적체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

습니다. 이는 단기 또는 중기에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회담에 조기수확 패키지나 착수금이 없으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두, 자동차, LNG, 원유 등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으며, 올해 초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 장관과 협상할 때 제시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 협정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트럼프가 시진핑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홍보하면서 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계속 압력을 행사한다면,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은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트럼프가 원하는 바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더 많이 구매하고 이를 핑계로 삼아 “미국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구매할 것이고, 미국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구매할수록 이란에서 구매하는 양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더불어 중국은 이란의 주요 고객으로, 미국이 11월 5일에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국영 기업과 금융 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중국은 6개월 면제를 받았고 인도는 제재가 면제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럽연합은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6개월 더 시간을 벌었다

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새벽 4-6시에, 아침에 무언가를 하다가도, 폭스(Fox) 뉴스가 나온 이후에도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화해를 청하고 무언가 건설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작은 진전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보복에서 멀어지는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좋은 점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일요일 즈음이 되었을 때 “아, 저 예측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의 잠정적인 예비 협정에 성공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국영 기업과의 마찰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더욱 엄격히 집행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지만 기술과 지적 재산이 유용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중국 체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투자 관계 또는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기술 유용을 처벌하고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할 건설적 수단을 찾아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거릴 것입니다. 이 영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9월에 시진핑과 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긴장은 지속되고, 트럼프는 조만간 느리게 진행되는 중국의 경제 개혁에 조바심을 낼 것입니다. 트럼프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협정에는 금세 도달하겠지만 투자와 지적 재산을 얻는 데 중요한 문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중국은 10년, 또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매우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늘어나면 백악관에서 다시 한 번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다시피, 그가 이해한 경제학의 원리대로라면 “이렇게나 관세를 올렸는데 적자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당연히 “중국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미 APEC 회의에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하였고, 케빈 하셋(Kevin Hassett)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파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국제주의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슬픈 말이지만, 게리 콘(Gary Cohn)이 떠난 이후로 백악관에서 극단적 경제 정책에 완충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새로운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큼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계속 석유를 구매할 것이고, 압박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의 회담은 1월 하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큼니다. 일본은 무역 협상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다가 몇 개월 전에 새로운 미국-일본 무역 협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유 무역’이 아니라 그냥 ‘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상에서 미국의 주된 목표는 미국의 자동차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개정된 NAFTA에서 했던 것처럼,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 수출을 줄이고 미국 시장에서의 기존 또는 새로운 자동차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쿼

터에 따른 범위가 협상 대상에 오를 것입니다.

기존 수준에서 다소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소비자의 승용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침해하지 않고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NAFTA 협상단으로 인해 유럽 및 일본과의 경쟁에 새로운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NAFTA에서 정한 미국의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생산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기업은 MFN 관세 2.5%를 지불하고 NAFTA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를 실행해 MFN 관세를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압력을 받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발적 수출 제한에 동의하겠지만, 현재 무역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유럽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유럽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협상 안건에서 TPP와 유사한 합의에 도달하겠지만, 이름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이 다시 농업과 일부 서비스에 대해 양보를 하겠지만, 미국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어떤 나라에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들어가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걸 뺏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웁니다. 즉, 부정적인 협상 카드를 내세우는 전략입니다. 멕시코에는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멕시코가 자국 경제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 협정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 세디요(Zedillo)와 다른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멕시코

경제에 좋은 협정은 아니지만, 제한적 NAFTA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고들 말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협정을 깨고 멕시코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오랜 협의를 거친 후에 다소 양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경제에 모두 해가 될 것입니다. 유럽은 이런 협상을 해야 할 정치적 의무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유럽 협상에서 자동차를 밀고, 농업을 포함하고, 정부 조달을 제외하는 전략을 강경하게 펼쳤습니다. 유럽의 입장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게다가 이란 제재가 안전에 올랐다는 것도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미국-유럽 협상이 시작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무역 협정의 초점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마 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에 한 국가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과의 에너지 무역에서 미국-일본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제조 부문에서 보호무역주의자의 요구를 완화할 여지가 있지만, 얼마나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 유럽,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영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 관료들에게 들은 바로는 자기들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뉴질랜드에서 TPP 협상가로 활동하고 OECD와 WTO에 있었던 매우 유능한 뉴질랜드 출신 수석 무역 협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협상에 대해

서는 잘 알지만, 이런 사람이 100명은 필요한데 런던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간과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WTO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가오는 중이 아니라, 위기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에 기존 규정에 없거나 WTO 의무에서 회색 영역에 속하는 분쟁에 판결을 내려달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법적 판결로 인해 WTO 의무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항소 기구에 대한 임명을 막아서 지금은 패널이 세 명뿐입니다. 항소에서 분쟁을 심리하려면 패널이 3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가 관련된 항소일 경우, 패널 중 한 명이 미국인이고 한 명이 중국인이라면 법관 기피로 인해 패널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합니다. 이들은 WTO,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한 무역 체제에 대해 3가지 측면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MFN 관세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MFN 관세가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8라운드에 걸친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양보했고 관세를 올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TO에서 관세를 올릴 권리가 있기는 하지

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트럼프는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USTR에 있는 법률에 밝은 인재들을 이용해 국가 안보 면제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면 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문에서 MFN 관세를 올리는데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금 말씀드린 분쟁 해결 판사의 과도한 권한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사는 변호사 시절에 미국이 패소한 사례를 트럼프에게 귀띔했습니다. WTO 재판에서 미국이 대부분 승소했다는 통계는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처벌 부족’입니다. 중국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중국은 법의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조문에는 대체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률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구멍이 너무 많고 산업 정책과 보조금 지급,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해볼 수 있었지만 도하 라운드가 실패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잘못도, 중국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특히 인도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WTO가 실패하도록 방지해서 사람들이 무역 체제가 완전히 붕괴할까 봐 염려한 나머지 미국의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는 이런 치킨 게임을 지속할 의지가 충분합니다. 이는 시스템에도, 투자자에게도, 미국과 세계의 경제 성장에도, 법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패가 적고 시장 지향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국가에서 법치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어떤 거대한 경제에서 부패를 줄이고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WTO를 훼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하면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의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마찰이 증가하고 협력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전에 협정을 맺었던 미국의 동맹국에도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무역 협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과의 마찰로 인한 결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러시아와 중동에 대한 미국의 관계에도 영향이 생길 것입니다.

무역 정책의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점차 외교 정책, 안보 정책과 뒤섞이고 있지만 미국 정책 구성에는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관료들은 행동에 의한 학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학습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정계에 근 50년간 몸담은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저는 공화당 행정부에도 있어 보았고 민주당 행정부에도 있어 보았기 때문에 이념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관료들이 일을 하는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국제적 동맹에도 구조 조정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방의 현명한 자문

과 지원을 통해 미국 정책에 일관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어
두운 전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뭐든지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 무역 정책과 한국

질의 응답



통찰력 있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지지 세력이 같기 때문에 무역 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반무역 정서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주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 이론이 나온 이후로 자유 무역의 가치에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니다. 제정신인 경제학자라면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되는 자유 무역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은 두 당사자들 간에 이익이 어떻게 공유되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그 비중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미국이 작은 나라와 무역을 할 때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무역에서 이익을 보고 그 덕분에 1년에 1%씩 추가로 성장하더라도 중국이 3%, 10%씩 성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권이 이동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인구가 3-4배 많고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무역에서 이익을 가져가든 가져가지 않든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에 패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도 여기에 대해 두려워하고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학자들이 양쪽에서 얻는 이익만 계산하는 대신, 지정학적 패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익의 균등한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

적으로 양쪽에 이익이다 아니다'라는 말하는 대신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질문자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미국 정책은 국제 경쟁에 영향을 받은 기업과 노동자의 조정을 관리하는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제도는 대부분 산업 국가에 비하면 빈약합니다. 자금 지원이 미비하고 제약되어 있으며, 감세로 증가 일로에 있는 예산 적자로 인해 앞으로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을 하지 않고, 인프라와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에서 경쟁력 향상에 취했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벌써 수십 년입니다. 충분히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잠식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고,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이 없습니다. 공화당은 근로자 조정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소득 분배를 위해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런 식으로 대처해왔습니다.

미국 철강 회사의 임원은 부유해졌지만 철강 노동자에게는 이익을 거의 나누어주지 않았고 미국 경제와 다른 제조사,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불했습니다. 이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자금이 없는 파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낮은 이자율에 의지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 경제의 부채 비율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았지만, 연준(Fed)에서

책임감 있게 점차 이자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Q 다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 원래 회원국 12명으로 구성된 TPP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러 한국에 오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TPP 12개 회원국에 한국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PP에 가입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TPP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로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자유 무역 협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미국이 TPP 11에 다시 가입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미국이 TPP 11에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이 다시 가입한다면 두 번째 그룹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가입한 후에는 TPP 11에 재가입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화폐 무기를 휘둘러 중국을 화폐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까요?



패권국으로서 중국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 무역 체계에서 TPP 11개 회원국은 매우 종합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도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베트남은 2주 전에 협정을 비준했고, 말레이시아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지만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모두 잃지 않으려면 비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업데이트된 국제 무역 규정의 틀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TPP 11이 확장되어야만 이러한 체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가입하고 싶어 하는 국가들이 많고 12월에 줄을 서기 시작하겠지만, 규모가 큰 국가가 더 많이 가입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은 CPTPP의 지속 가능성과 정치, 경제적 프로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가입하여 이익이 강화되고, 여기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가게 되면 마지막까지 양보를 짜내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을 11개 회원국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2년 전보다 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될까요? 아니요, 그는 1:1 협정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 1:1 협정이 TPP와 닮은 점이 많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개정된 NAFTA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TPP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17년 1월에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와 협상을 하면서 거부했던 조항을 9월 30일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협정을 비준할 것입니다. 미국-일본 협상도 마찬가지로 TPP 조항이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NAFTA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개정된 NAFTA가 의회에 제출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이행하려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회원국으로 협정을 확장하고, 경제적 범위를 넓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항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시진핑은 TPP 11과 협상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일본, 한국과 협상하겠다는 언급은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11개, 12개 또는 15개 회원국을 곁에 두고 협상에 임하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통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통화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인민폐의 경쟁적인 가치 하락을 막을 방법을 찾느라 애쓰고 있고, 이는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재무부에서 중국이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률을 바꾸려 들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항력과 반덤핑 체제, 화폐 조항을 완전히 왜곡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마 제정되었다면 WTO 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워싱턴 정계와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개인적 고문들 중에는 이 조항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는 위협이 될 것입니다. 미국 재무 장관과 각국 재무부 장관들이 역량을 발휘해 이를 막아야 합니다.

Q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 또는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백악관과 행정부의 이런 모습은 50년 동안 처음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트럼프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새로운 미국을 설계하는 중요한 인물을 몇 명 더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A 두 번째 질문에 쉽게 답을 드릴 수 있으므로 먼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동조하는 한 계속 행정부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은 매우 고생스럽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무역 협상가는 단 한 명이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본인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목표를 이행하는 실무자입니다. 이걸 보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의 수입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충성심과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더 큰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트럼프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줘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와 트럼프는 생각이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1980년대 초부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무역 정책을 취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공

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국내 승용차 수요 둔화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이는 매출의 8%를 차지할 뿐입니다. 미국 공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데서 매출의 약 50%가 발생하는데, 불과 10년 전에는 30%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변화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를 불만스러워합니다. 이러한 무역 적자는 대부분 자동차 및 부품 부문에서 발생하고, 한국과의 상품 무역을 하는 기간 대부분에서 거의 모든 적자가 자동차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을 협상하던 당시 한국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적자가 개선되었습니다. 미국의 상품 적자가 감소하였고 서비스는 흑자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 적자는 매우 적어서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부분 적자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트럼프가 원산지 규정의 대대적인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소형 트럭 관세 제거를 20년 연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재 무역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한국 기업이 수출할 기회가 차단됩니다. 그 외에 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은 대부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아주 좋다”는 평가로 바꾸었을까요? 한국이 철강 수출을 상당히 제한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트럼프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Q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과 협상하던 방식과 현재 중국과 협상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패권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전략에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관계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가장 큰 공통점을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요컨대 미국 시장 투자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경제의 ‘노른자위’만 사들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록펠러 센터도 일본에 매각되었습니다. 제가 록펠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 이름이 붙은 빌딩을 일본인에게 팔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들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 거래를 거절했다면 지금의 록펠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인자로서의 일본(Japan as Number One)』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유명한 책의 제목인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완전히 틀린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은 중국과 다른 국가가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외국 투자의 모니터링, 감시, 제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 두 가지를 통과시켰

습니다. 사실, 이런 첨단 기술을 ‘근본적인 신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것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정의는 고무줄처럼 적용할 수 있고, 기업은 여기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는 씨가 마르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980년대 미-일 관계와 현재 미-중 관계에서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일본 상품에 대한 자발적 수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철강에 수출 제한을 걸 수도 있었지만, 중국은 미국에 철강을 그다지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다. 덤핑 방지법과 형평 관세로 인해 모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영역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력을 가하더라도 무역 협상에 전반적인 전략적 관계가 다소 반영됩니다. 미국-중국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Q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현재 무역 정책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역 분야의 지식 계층과 국가 안보 고문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구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쟁점의 핵심이라면 미국이 모든 동맹국을 동원해서 중국이 개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한국, NAFTA 등

을 압박한 다음,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이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결국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도하 라운드가 개발도상국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씀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WTO 체제가 매우 심각한 거버넌스 위기를 겪었고,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제는 매우 강력한 정치권력 체제였고 개발도상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서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 일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여러 모로 재앙이나 다름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쁜 협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하 라운드를 진행할 때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를 흡수하지 못했고 이행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무역 라운드의 진행을 고의적으로 막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던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벽을 등지고 있는 셈이었고, 다른 협정을 적절히 흡수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모든 신뢰를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 흡수가 불가능했습니다.



WTO와 관련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가혹함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협

정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GATT에서 나와서 새로운 협정으로 갈아탈 예정인데, GATT를 체결하고 50년 동안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의무를 모두 받아들여야만 함께 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협정에 개발도상국이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도기를 제공하고,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있었다라면 괜찮았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역 정책은 언제나 저렴하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외교 정책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도하 어젠다를 정할 때 개발도상국의 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2001년에 있었던 도하 어젠다가 아니라 2008년에 협정을 체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인도가 망쳤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하 라운드를 시작할 당시 많은 개발도상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인도가 새로운 협상을 막도록 둘 수는 없다”는 의견을 표했지만, 인도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무역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제기했던 첫 번째 질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려면 국가적 수준에서 적용되는 것은 국제적 수준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30-40년 동안 세계은행, IMF, OECD, GATT, WTO에 대한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 기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로부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단절되었습니다.

매우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WTO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은 현대적 어젠다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기존의 우려 사항에 빠르게 관심을 모으려면 WTO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2008년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높으면 각 나라에서 보조금 제한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쉽습니다. 가격이 높을 때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이런 제도가 개입합니다. 정치인들은 농부의 주머니를 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큰 문제이고, 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에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적어도 건설적인 역할만이라도 하도록 할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중국 기업이 매우 낮은 금리로 해외에서 달러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수출 자금으로 속인 다음 중국으로 가져와 이른바 ‘그림자 금융’으로 국내에 투자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금리 차이가 적어도 5-6%는 날 것입니다. 게다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이 훨씬 큼니다. 그런 시기에는 금융 부문도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문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1998년에 국제적 차입금 금리와 국내 금리와의 차이가 매우 컸을 시기에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금리 차이가 6-7%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 특히 금융 기관이 홍콩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금리 차이가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 환율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금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저보다는 중국 금융의 복잡한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가 있기 때문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웹사이트
를 방문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공일 박
사가 훨씬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해외 직접 투자의 약 70%가 케이맨 제도와 영국
령 버진 제도로 갑니다. 그 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제도는
돈 무게로 벌써 가라앉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거래
가 오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대출에 미치는 여파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라도 미국 금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로 인해 환율을 관리하기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대
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분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
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신중하고도 명
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답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
는 분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력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은 듯합
니다. 압박을 가하는 전략은 WTO에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중
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모든 주요 무역상대국이 동의해야 하기 때
문입니다. 이 동의를 얻어내고 나면, 측면 보상을 통해 다른 국
가들이 협정을 수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표적

으로 삼는다면, 중국은 자신만 표적으로 삼는 의무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보고 “중국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영향력이 부족하고, 미국이 우리를 후려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개발도상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나라들이 물러설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는 별개로, 미국, 유럽, 일본이 모여서 중국과의 협정에 초안이 될 만한 전자상거래 및 국영기업 관련 의무 사항을 정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석유를 제재하고 철강에 관세를 물리면서 이런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기는 무리입니다. 사실, 어느 OECD 회의에서 WTO에 협력하기 위한 선언문에 선언한 바로 다음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였고 모든 나라가 WTO 선언에 대해서는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Jeffrey Schott

Mr. Schott is a senior fellow who works on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economic sanctions at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 Mr. Schott was also a visiting lecturer at Princeton University and an adjunct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He worked as an official of the U.S. Treasury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trade and energy policy. He is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U.S. Economic and Trade Policies of the Post Midterm Election ¹

Jeffrey Schott

Senior Fellow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Today's topic is very broad: it is the U.S. trade policy in 2019. Predicting trade policy is usually a difficult task. Doing so in the era of Donald Trump requires an ability in gymnastics that I'm not sure I still retain. But I'll do my best to give you an overview of what will likely to happen in the coming months.

Surprisingly, the midterm election and the contro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y the Democrats will not have major impacts on U.S. trade policy. If you go into the inner-circles of the White House and look for the biggest cheerleaders of Trump's trade policy and the new protection that he has imposed in his first two years in office, you'll find that it's the leaders of the major labor unions who are the bedrock, core constituency of the Democratic Party. So they are very happy with what Trump has done in terms of raising

¹ This is the transcript of the speech by Dr. Jeffrey Schott, Senior Fellow o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November 29, 2018.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new restrictions, and they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at process in ongoing talks with other friends and allies across the oceans – both the Atlantic and the Pacific.

But the Democrats don't want to fight Trump about trade because they share the same constituents. They will have plenty to fight Trump about other issues more political, and I think they will settle for that. So the trade agenda in the Congress is likely to be somewhat limited.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Congress will be to consider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the revised NAFTA agreement, which is now called the U.S. – Mexico – Canada Agreement. Note that “free trade” is no longer the part of the title of the North American accord, and I think that reflects important changes in the agreement in what economists would consider a negative direction.

There have been complaints in the Congress about the abuse of authorities that Congress has delegated to the President over the past 50 years. In particular, the authority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so it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 no one has used it as aggressively as President Trump and there's concern in the Congress that he is abusing his power. But efforts to try to rein back the authorities that the Congress has delegated over the years will be unsuccessful, because they will be blocked by the Republicans in the Senate. So there'll be a little bit of noise, but don't look the Congress to take any steps to buffer

or constrain President Trump on trade policy.

The one area where there may be changes i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the USMCA. As you may remember after the signing of the KORUS FTA in June 2007,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did not mean that the negotiations over the agreement was finished. And indeed it took many years, and many rounds of additional negotiations before the United States executive was willing to put implementing legislation before the Congress for a vote.

I think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 revised North American Accord will face additional challenges from many of the President's supporters, and particularly in the area of labor rights and enforcement and currency. Both that the more protectionist groups in the Congress and in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White House, would want to augment the provisions that were in the USMCA so that they will provide a template for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And so the Japanese should be very careful in looking at this,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 KORUS - which was concluded and hopefully would be implemented by the beginning of next year - it doesn't mean that there won't be additional requests over time to update and expand the KORUS. I can go into more detail on this if you like.

The main focus of trade policy would be trade negotiation. And here, the White House has already notified Congress

of the intent to start negotiations with Japa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It has begun the notification process, it is seeking reports from advisory committees. I have to go back tonight and write on the plane one of the advisory committee's reports to present the USTR on Monday on what the U.S.' objective should be.

It's just in the area of environment where the North American Accord is much better than any agreement that has been negotiated so far, even though it is highly deficient in the area of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But that's the one area where the Trump administration cares so little about –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that they paid no attention and the negotiators actually produced a good agreement on that chapter. So sometimes it's good to be under the radar screen.

So we'll have those new negotiations, possibly not with the United Kingdom, because who knows what the British Parliament will do and what the scenarios will be over the next coming months, so that is unclear. But in any event, any deal with the United Kingdom with any country cannot be implemented until the United Kingdom is out of the European Union. Which means after the end of any transition period, which will take several years at a minimum and maybe longer, so it is not an issue for – while negotiations take place – the actual impact of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Kingdom whether the U.S., Korea or anyone else,

that's not an issue for this decade. It will be something towards the middle of the next decade.

But of course, the focus of everyone in Washington is Democrats and Republicans, is about bashing China. Not necessarily the best way to get economic reform out of China but the best way to get domestic political support among disgruntled workers and businesses that had suffered from Chinese competition for a long time.

It's interesting that while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talks over the next few days, there will be an incentive both for Democrats and for President Trump to maintain that they are tougher on China than the other. That will complicate the process of putting a deal together, but the substantive challenges are big enough problems.

So let me say a few words about what I see on U.S. – China relations in the near term. We've now had retaliation: increased tariffs on bilateral trade that affect about half of U.S. imports from China, and almost 70 percent of Chinese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Both countries are worse off because of the retaliation. No one wins from a trade war; it's a question of who is relatively less worse off. But we're definitely worse off.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strong economic interests in constraining new protection and resolving differences, or at least preventing the problem from getting

worse, and so the immediate task is to try to prevent the next stage of tariffs escalation which is scheduled to take place on January 1st, when 200 billion dollars of Chinese shipments to the United States - already subject to 10 percent tariffs, will go up to 25 percent tariffs.

A lot of those goods are consumer goods: a lot of telecommunications goods, computers, and other things. Ten percent (of tariffs) had an impact on U.S. consumers, but it was masked by the very strong U.S. economic growth. Twenty-five percent will be noticed, particularly as the U.S. economy begins to weaken over the coming 12 to 24 months. So it's a narrow path to walk for President Trump, because he wants price stability in the U.S. market, but he wants to punish, and looks like he's punishing China.

This is already accomplished to some extent, because one of Trump's objectives was not only to reduce the trade deficit, because everything he's doing is going to have no impact on the trade deficit. Actually, the bilateral deficit with China has gone up this year as Trump has put more and more measures on, in part because the U.S. dollar has strengthened because of the uncertainties and concern about the trade war.

But he has reached a political goal, and the political goal is a very simple one. For Trump, he gets a great advantage just by imposing tariffs on China, because that's what he promised to supporters he would do. And he said he would impose across-the-board tariffs on all Chinese trade, and

he is on his way to doing that. And his supporters, who understands economics as well as Trump's economic advisors, are content that Trump is going to do what he promised to do. And he gets a lot of domestic political credit among disgruntled segments of the U.S. political spectrum. Those people have been critical at the margin in producing victories for Republican candidates and putting Donald Trump in the office. They will also be necessary and critical for Trump's reelection.

On the Chinese side, they obviously don't want to have this problem on top of multitudes of problems that already exist in the Chinese economy, and they need to pursue domestic economic reforms. Interestingly, when Xi Jinping gave his major speech at the Shanghai International Import Expo, earlier this month, he highlighted all the things that China would do on domestic economic reforms, including lifting foreign equity caps, foreign investment in financial services, autos and other service sectors. He emphasized the need for strengthening e-commerce, and the new Hainan free-trade port zone, the biggest one in China, which is actually Xi's signature initiative. So he is personally invested in that.

Xi is committed to cutting tariffs to increase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arket, or he did so to some extent on autos, and to do more in services and investment. Where he didn't say anything, and this was notable by its absence, was he said nothing about discipline and subsidies for state-owned-

enterprises, and for dealing with that backlog of bad debt that plague those enterprises and the Chinese economy as a whole. That is critical to making progress with the United States over in the near or medium term.

But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ere might not be an early harvest package or a down payment on further talks that the Chinese might bring to Buenos Aires. That could include more purchases on soybeans, cars, LNG and crude oil that could be more than the Chinese offered when they were negotiating with Treasury Secretary Mnuchin early in the year, and Trump vetoed that deal. But if they have a deal that Trump agrees with Xi Jinping and the headline says "Trump gets more from Xi Jinping," and continues to keep the pressure on by not removing the tariffs, then you could see him saying "I have done what other presidents were not able to do." That's basically what he likes.

So there's the possibility that China could do what is economically sensible and remove the retaliation that they imposed in some products in response to the U.S. trade measures. They can also buy more energy and use that as an excuse or as an argument to say 'we will buy more energy from the U.S., and the more energy China buys from the U.S. the less energy China has to buy from Iran.' Along with India, China is Iran's major customer, and there was a great concern that the U.S. would impose sanctions on November 5th against Chinese state-owned energy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doing business with Iran. China got a six-month waiver, India got a waiver. European Union did not get a waiver, which is interesting enough.

So that to me was an early signal that Trump was giving another six-months horizon for trying to build up negotiations. But Trump changes his minds between 4a.m. and 6a.m. and again after whatever he does in the morning, after Fox news. But I am cautiously optimistic that we might see at least a handshake and something constructive coming out of Buenos Aires, even if it's only a very small step, but a small step away from new retaliation. The beauty of making that prediction is that by Sunday you could say "well, Schott was wrong on that one and that we can move on from there."

Now, going forward though, even if they are successful in having an initial, preliminary, tentative - however it is described - agreement there will be continuing and growing problems. That is because there are fictions with state-owned-enterprises that are not going away. Xi Jinping vowed stronger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harsher penalties, but didn't get into the ways that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is misappropriated. That will be a difficult task given the nature of the Chinese regime. It will take some time to figure out constructive means to build a policy that begins to discipline and constrain the misappropriation of technology either through from investment relationships or cyber means, which is another

area that has not been making progress since President Obama reached an agreement with Xi Jinping in September 2015.

We have those continuing tension, and I think Trump will soon grow impatient with the slow, incremental pace of Chinese economic reform. Trump likes immediate gratification, and he will get it in terms of a purchasing agreement on particular products. But on the key problem of getting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that's going to take much more work. An approach that the Chinese are willing to take over a decade or more, whereas Trump's horizon is in the very short-term.

The increase in the U.S. deficit with China could fuel another temper-tantrum in the White House. As Trump says, 'how can this be, we imposed all these tariffs and the deficit should be going down,' according to his understanding of economics. The logical explanation in the White House will be 'China is cheating.' You already heard harsh rhetoric out of Vice President Pence at the APEC meetings and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the Economic Advisors. There is a continuing war between the China hawks – and well, there aren't any internationalists left in the administration. That's a very sad comment, but since Gary Cohn left, there is much less buffer on extreme economic policy in the White House.

There is likely to be new friction over Iran's sanctions by the spring, because China is not going to stop buying oil from

Iran, and when push comes to shove, that is going to create problems. So I can talk more about that if necessary.

The talks with Japan, are likely to get under way in the second half of January. The Japanese, after valiant efforts to prevent trade negotiations from starting, have committed a few months ago to new negotiations on U.S. – Japan trade agreement. No ‘free trade’ anymore, just trade agreement. The main U.S. goal in that negotiation is to increase U.S. auto production and jobs. Consistent with what the United States did in the revised NAFTA, the U.S. demand will be undoubtably – though they haven’t said this explicitly – a reduction of Japanese exports of autos and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and an increase in Japanese investment in existing or new auto facilities in the U.S. market. The extent to which that is done under quota will be subject to negotiation.

I suspect there will be some limitations from existing levels, in part because the U.S.’ consumer demand for passenger cars is weakening. So there’s room to make adjustments without actually biting into market share of Japanese companies in the short-term. But the U.S. negotiators’ pursuit of NAFTA makes it almost imperative that new restrictions be placed on foreign competition from Europe and Japan. That is because the U.S. rules of origin in NAFTA will raise production cost in the U.S. market.

Most companies will just pay the MFN tariff of 2.5 percent

and just forget about NAFTA. But the administration has threatened 232 measures that would raise the MFN tariff to 20 to 25 percent. Mexico and Canada, under duress, will agree to voluntary export restraints, though at levels that are slightly above current trade. The Europeans are being asked to do the same thing, and they have rejected that. While the U.S. and Japan have a way of reaching an agreement on an agenda for negotiations, which will look a bit like TPP, but won't be called that, which will involve a revival of Japanese concessions to the United States on agriculture and some services. But the agreement will not involve U.S. commitments to anybody.

Trump has not made concessions to other countries. When he negotiates, his bargaining chip is 'I will take away chips that I have you before unless you agree to what I demand.' So it's a negative bargaining chip strategy. It worked in Mexico, because Mexicans agreed to a deal that will harm the Mexican economy, no doubt about that. I have talked to former president Zedillo and other leaders, and they say "this is not a good deal to the Mexican economy, except it is a much better deal than we expect we would have had if we didn't accept the restrictive NAFTA," because they believed Trump would rip up the agreement and do a great deal of harm to the Mexican economy.

On Japan, I think after a long period of consultation, there's a recognition that Japan is going to have to do a little

too. This is going to hurt both economics. The Europeans do not have a political mandate to pursue such negotiations. Trump has been vehement about autos, has been vehement about including agriculture, has been vehement about excluding government procurement from U.S. – European talks. And the Europeans’ position has exactly been the opposite. On top of that, they are not happy that there is a subject of Iran sanctions.

So politically it will be much more difficult to U.S. – European talks to start, so the main focus of trade negotiations will likely be on Japan. Unfortunately, that’s going to focus all the attention on Japan, and perhaps that’s the way they’ll like to do it: take one country at a time and pressure them until an agreement is reached. There is a focus on energy trade with Japan that could help improve the U.S.- Japan trade relations and moderate the protectionist demands in the U.S. manufacturing sectors. But how much that happens is unclear.

So there is a lot I could say more about the Japanese talks, the European talks, talks with China, but almost nothing to say on UK talks, because from everything I have heard and talked with British officials, they still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They have a very competent chief trade negotiator from New Zealand who was a TPP negotiator for New Zealand and an official at the OECD and the WTO, so he knows the stuff. But he needs about a hundred people like

him, and they don't have it in London. So I don't expect much on that front.

The last thing to say about trade issues is the one where the Trump administration gives the least attention to. The WTO is now in grave crisis. It's already in grave crisis. It's not pending, it's already here. There haven't been negotiations for a long time to update the rulebook. There is increasing pressure o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DSU) to adjudicate disputes that are either not covered by existing rules, or seem to involve the grey area of the WTO obligations. The panelists are trying to do their best to resolve differences, but in a way that inevitably expands the scope of WTO obligations due to their judicial rulings.

The United States is objected to that. It has blocked appointments to the appellate body to the extent that we now have only three members. You need three members to fill the panel to hear a dispute on appeal, and if the appeal is involving the U.S. or China, and when one of the three members is American and one is Chinese, you're not going to get a panel because of the recusal. So we have a major, major problem here, and Trump doesn't seem to care. They are unhappy with three aspects of the WTO, or the evolution of the trading system from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I can summarize it very clearly.

The first concern is the level of MFN tariffs. President Trump feels the U.S.' MFN tariffs is too low. We gave too

much, too often throughout the eight rounds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nd we should have the right to raise tariffs. We have the right within the WTO to raise tariffs, but we have to pay for it, and Trump doesn't want to pay for it. So he found through his bright legal minds at the USTR that there's a loophole if you aggressively use the national security exemption. And he is using that to raise MFN tariffs in key sectors.

His second concern is the overreach by the dispute settlement judges whom I've just mentioned, and ambassador Lighthizer has given him some examples where Lighthizer lost some cases when he was in private practice, and the rulings went against the U.S. Most rulings in the WTO have favored the U.S. position but that statistics is 'fake news.'

The third problem is what they call 'the lack of discipline in Chinese industrial policies.' They say China is cheating. But actually, China has in large measure – and certainly now – agreed to the letter of the law if not the spirit of the law. But the law is inadequate: there are too many holes, they do not cover the types of industrial policies and subsidization, and government support for industries that have become prevalent and dominant in the Chinese economy. We could have had negotiations to work on that, but the Doha round failed, and that wasn't the U.S' fault, and it wasn't China's fault. It was the faul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India.

So right now Trump is satisfied to let the WTO wither on the vine until people get so scared that the whole trading system is going to collapse and that they will come and accept all the U.S.' conditions. And he is willing to play that game of chicken. It's bad for the system, it's bad for investors, it's bad for economic growth of the U.S. and around the world, it's bad for the rule of law and trying to advance the rule of law in countries that are struggling to develop the system of governance that is less corrupt and more market-oriented. There's a big economy that says it wants to be less corrupt and more market-oriented, and we're doing exactly the opposite by damaging the WTO and trying to push it in that direction.

So there's a lot more that could be said on a lot of different issues. I would say that looking forward in 2019, despite the defeat of President Trump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e're likely to see a continuation of his policies. And U.S. trade policy will lead to more friction and limited cooperation. It will challenge U.S. allies even once where we've already reached agreement, because that is not permanent; trade relations evolve over time. But it will also have much more major consequences, given the friction with Europe, and what that means for U.S.' relations with Russia and the Middle East.

So a lot of complicated factors going in as trade policy has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with foreign and security

policy, but not well integrated in the formulation of U.S. policy. That's something that U.S. officials are not learning by doing, because they are not learning. I've never seen a situation like this in the almost 50 years I've been in Washington. I've been in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So this is not an ideological issue.

This is a radical shift in the way U.S. officials are doing business. It's is meant to restructure not only supply chains on the economic side, but global alliances on the strategic side. It's something we need to work with very carefully, and we need the wise council and support of our friends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bring more coherence into U.S. policy. So on that somber note, let me finish my prepared remarks and I'd be happy to answer questions on all areas. Thank you.

The image features a large, stylized graphic of the letters 'Q' and 'A'. The 'Q' is white with a subtle gradient and a drop shadow, while the 'A' is dark gray. They are positioned in the upper center of the page. Below the graphic is a horizontal line.

U.S. Economic and Trade Policies of the Post Midterm Election

Questions and Answe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ery insightful presentation, concerning the fact that the trade policy will have very little effect even if the Congress turned Democratic because they have the same support force. But I'm afraid these are not just the labor force which is that...I believe there's a greater support for anti-trade sentiment in the U.S. and it's largely due to one aspect. Economists never questioned the value of free-trade, ever since David Ricardo's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No economist with a sane mind has ever questioned the value of free-trade because it benefits both sides. But consistently what economists never addressed is the fact that how is that benefits are shared between the two parties.

Now this matters because Korea benefited tremendously with its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of course Korea got the greater part of the benefit. This didn't matter when the U.S. was trading with smaller countries. It became a big issue when it traded with China. Even if the U.S. gets advantage out of the trade, getting extra one percent of growth a year, if China gets three, give or ten percent, guess what happens. Hegemonic power shifts, and when we are dealing a country like China, which has three or four times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growth is faster than the United States, then it doesn't matter whether the U.S. takes advantage from this trade or that, because eventually you lose the hegemonic power to China.

Now, people, without analyzing this, have a fear and dislike about this, so this goes way beyond just labor. So I think, in that sense, this is high time that economists change their mind from not just addressing dollars and cents of gain in both sides' game, but what it does in the effect on the even share of the benefits, particularly when it deals with geopolitical hegemonic issues. It's high time we should look at that instead of saying that 'it's just economically both sides gain or lose.'




These are all excellent questions. I would give a brief response and not a full response, because otherwise we'll be finished. You're absolutely right on the distribution issue. U.S. policy has been deficient with regards to managing adjustment of firms and workers affected by international competition. Our programs are meagre compared to most industrial countries. They are underfunded, and the funding has been restricted and continues to be restrained by budget deficits that are growing because of the U.S. tax cuts.

We have hurt ourselves by not adjusting, by not investing in infrastructure, by not investing in education, by doing all the things that normal countries would do to improve this competitiveness. We have been doing this for decades now. We had such an advantage that we can live off our fat, but it is now affecting our competitiveness. And we don't have the money to do it. We don't have the money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The Republicans don't want to fund for the

worker adjustment. They would rather put up protection, which is a way of distributing income, but not in an efficient that's what we are doing so far.


We have made steel executives rich in the U.S., they've given a little bit to the steel workers, and they've paid for it out of the pockets of everyone else in the U.S. economy and all other manufacturers and consumers. That's not going to change. We don't have money. We're broke. President Trump comes from the real estate business. That's a business where you're highly leveraged and you depend on low interest rates. He has highly leveraged the U.S. economy, much more than even before. And he had low interest rates, but now the Fed is beginning to incrementally raise them, in a responsible way, but he doesn't like that and that's why he is attacking the Fed.

 Pleasure to meet you again. I would like to recall that several years ago, you visited Korea to present the economic impact of TPP for the original twelve members. Then you went on the TPP 12 plus Korea. You campaigned very hard for Korea to join the TPP. But President Trump turned around the entire picture of the TPP, so I would like to hear reflection on happened to this. What I'm afraid is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under great challenge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f he is elected again, maybe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might disappear fully and not as a temporary phenomenon. So how would you see the fate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under President Trump if he is

reelected.

On the second question, you mentioned the U.S. and China free trade negotiation, which seems to me the same as the U.S. as rejoining the TPP 11. What is the chance of the U.S. coming back to join the TPP 11? If that happens, I personally view that Korea should join as the second batch of group, although we might pay some re-entry cost to the TPP 11, after seeing the joining of the U.S. So what is the prospect of that possibility?

And the third question, if China does not really respond to the satisfaction of President Trump, maybe the U.S. might use the currency weapon, designating China as currency manipulator?

 On the way to deal with China as a hegemonic power, I will discuss in answering other questions.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global trading system, the brightest part of the system is the fact that the 11 TPP countries went forward with a comprehensive and high-standard trade agreement. They got the poorest countries among them to accept. Vietnam ratified the agreement two weeks ago. Malaysia hasn't yet but has to, otherwise they'll lose all their investment to Vietnam.

So they have kept intact the framework for an updated and modernized international trade rulebook. That is only going to be sustainable if the TPP 11 expands. There are

a lot of countries that want to join, and they will begin to queue up at the end of December, but the TPP 11 needs more major economies. The Brits are interested but that's next decade. Korea will make a big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and economic and political profile of the CPTPP. It can do so in a way that is beneficial to Korea's relation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in the region. It needs an understanding from the 11 countries that you don't try to press for the last ounce of concession when you're getting a lot of benefit from an agreement that will be greatly enhanced by Korean participation.

So if anything, I feel even stronger today about the importance of Korean participation in the TPP than I did two years ago. Will this be enough to bring Donald Trump back to the table? No. He's not interested in anything other than one-on-one deals, even if the one-one-one deal mimics a lot of what the TPP is. If you look at the NAFTA, the revised NAFTA, a large part of what is in the revised NAFTA is TPP. The same provisions he rejected with Canada and Mexico and other countries in January 2017, he accepted on September 30th. And he is going to sign it on Friday. The same thing goes with U.S.-Japan talks in they will include a lot of TPP provisions. It won't change the U.S.' policy, and interestingly, the NAFTA didn't change Canada's and Mexico's policy, because they're already going to implement the deal long before the revised NAFTA is brought before Congress.

So I think the importance of expanding the agreement to new members, expanding and broadening its economic footprint, will be important as a counterpoint to Chinese economic interest in the region. Xi Jinping did not say he wanted to negotiate with the TPP 11, but he said he wanted to negotiate with Japan and Korea. Japan and Korea will be in a better position to negotiate with China with 11, 12 or 15 countries on its side.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considered.

On the currency question, China is not manipulating its currency for commercial advantage. It's doing the opposite. It has actually challenged to try to find a way of avoiding competitive depreciation of the Renminbi, which will only exacerbate the trade tensions. So there's no way that the Treasury could find the Chinese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U.S. law.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 Democrats and President Trump may not want to change U.S. law, and there was a draft legislation several years ago that totally distorted the countervailing and the anti-dumping system and its currency provisions, which would have violated the WTO obligations.

There are people in Washington and very close personal advisors to the president who want to revise those provisions. That's a danger going forward, and we have to rely on the competence of the U.S. Treasury and finance ministers from around the world to prevent that.

Q Thank you. I have two questions. What is the chance of Korea's auto industry being taken...either our exports to U.S. or investment into the U.S. market? And secondly, you said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White House and the U.S. administration has never been observed in the last 50 years, and this is a totally new phenomenon. Then, I'm curious to know who are the grand designers of this new strategy to change the U.S. either politically, economically or socially? Trump is undoubtedly on the list, but can you tell us a few other key members who may be on the list to design the new America? Thank you.

A Let me address the last one first because I can do it easily. The people who are the designers of U.S. policy are the people who agree with Donald Trump. They continue to work for the administration as long as they continue to agree with Donald Trump. On trade policy in particular, and the Chinese learned this the hard way, there is only one trade negotiator in the U.S. administration and that's Donald Trump.

Robert Lighthizer is the executioner of the objective that Trump puts forward. That partially answers the second one. Lighthizer has proven his loyalty and competence in raising U.S. important barriers, so he is gaining more authority. But that authority is contingent on him saying things that he wants to hear. Fortunately for Lighthizer, he and Trump are of the same mind. Both of them have been strongly protectionist

since the early 1980s. So this isn't something new for Trump on trade policy. He's had protectionist public statements for a long time.

On Korean autos, we've had a sharp increase in the sales of Korean branded cars in the U.S. market. Hyundai and Kia are affected by the slowdown in domestic demand for passenger cars, but they account for about only eight percent of sales now. They source about 50 percent in the U.S. market from U.S. plants up from 30 percent just a decade ago.

So there has been a shift and a part of that shift has been beneficial for Korean companies because they have increased sales.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unhappy with the trade balance numbers, which are still very large in the auto sector - autos and parts- and represent in most years almost the entire bilateral merchandise deficit with Korea. Fortunately, during the time of negotiating the amendments to the KORUS, the bilateral U.S. deficit with Korea in goods and services improved. Our merchandise deficit went down, and our services surplus went up. So our bilateral deficit in goods and services with Korea is so small it shouldn't be notable by anyone. But Trump doesn't focus on services, he only focuses on manufacturing. And because it's mostly in autos, that's still a bone of contention.

What was odd in the KORUS amendments was that Trump didn't demand major changes in the rules of origin. In fact in terms of Korean exports to the U.S., the only change really

was to postpone the elimination of the light truck tariff for 20 years. That doesn't affect current trade flows, but it blocks any future export opportunity of Korean companies. But everything else was left intact, and in fact most of the KORUS was left intact. From an agreement that Trump said was "terrible" to the one that he says "wonderful," you look at it, and might say 'how did he make that transition?' He made that transition because Korea agreed on a side to substantial restriction on steel exports. And that's what Trump wanted.

Q Can you compare and contrast between the U.S.' approach to its deal with Japan in the 1980s and its current approach to its deal with China in containing the rising hegemonic world between the two?

A U.S.–Japan in the 80s and U.S. – China in the current period's major similarity, and I didn't have the time to go into this, was the attack on investment in the U.S. market. There was a concern in Japan that Japan was buying up all of the crown jewels of the U.S. economy, even the Rockefeller center. I remember talking to Rockefeller about this, and I said "how could you, we had your name on it and you were selling it to the Japanese," and he looked at me and said "they were offering me such a ridiculously high price that I wouldn't have been Rockefeller if I had turned it down."

There was an attitude towards 'Japan as Number One,' a famous book that was 180 degrees wrong on so many

issues. There was this similar type of concern that you see now with Chinese investment in the U.S. So the U.S. has passed two major legislations in the past year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surveillance and restriction of foreign investment by China and other countries that involve access to high technologies. Actually they called it ‘foundation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who knows what that is, it could be an elastic a definition as they want, and it scares business. It has created a lot of uncertainty in Chinese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it) has dried up this year, almost nothing. Trump of course, also wants to block U.S. investment in China, because he wants U.S. companies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and he doesn’t want them to invest in China. So that’s a major similarity.

The 80s was also fo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f Japanese goods. That they are not reviving with China, they are reviving that with Japan. They would have done on steel, but China doesn’t sell much steel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it’s all blocked by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So those are two main areas. A big difference though is...Japan was and still is a major ally and strategic partner in the United States. So when push came to shove, there was some difference to the overall strategic relationship reflected in trade negotiations. That doesn’t exist in U.S. – China context.



Thank you Dr. Schott. I have a question and a comment. My question is about the issue of the current trade policies, I mean both intellectuals from trade area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s kind of frame it in two ways. One of that is the issue of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If that is the case, and that is the essence of the issue, wouldn't it be a very simple and straightforward tactics that the U.S. would be much better off by galvanizing all the allies to put pressure on China to reform? That would be much more beneficial than opening all fronts at the same time, by pressuring Japan, Korea and NAFTA and so on and then China. It might be so defeating in the end. How do you think President Trump used this?

My comment is...I was a little bit disturbed by the comment you made about 'the Doha Round was a failure becaus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 just have a very straightforward comment to make on that. I think the WTO after the Uruguay Round went through a very severe governance crisis and I think is not out of it. The system was very strong power politics system, and they were bullied a lot to sign the Uruguay Round. I think its results were catastrophic in many ways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Not necessarily because it was a bad deal, but also institutionally they were not ready to absorb its results.

By the time Doha came, they have not yet absorbed Uruguay and knew how to implement it, so I mean, this is a

serious description of what happened more than it was an intentional move to block any further progress in the new trade round. The governments had the backs against the wall, they would have lost all credibility except another deal without having absorbed finding a proper way which they could not for many institutional reasons more than other reasons as well.

A On the WTO, I actually fully agree with you on the harshness of the Uruguay Round deal. It was a take-it-or-leave-it, ‘we’re moving out of the GATT into a new home, and you can only move into the home with us if you pay and accept all of the obligations that you weren’t required to accept in the first 50 years of the GATT.’ That would have been OK, if there had been provisions in the agreement to help support the adju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provide more reasonable transition periods, but also to provide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here was nothing.

Trade policy has always been a means of foreign policy by the cheap, off-budget. So burdens on developing were significant. The drafting of the Doha agenda reflected the developing countries’ concerns. I’m not really talking about the Doha agenda in 2001. I was talking about when we had the opportunity to have a deal in 2008, (which countries) essentially screwed it up. There wasn’t enough action to block India, as was taken at the launch of the Doha round when many developing countries said ‘now we have to have

negotiations for different reasons, and we can't have India block the launch of new negotiations.'

That's consistent, and it also links to the very first question I had about distribution of gains from trade. What applies at the national level also needs to be appli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if you're going to have a sustainable system. For 30 or 40 years I have tried to have a more coherent policy on the World Bank, IMF, OECD, and the GATT and WTO. Those institutions are now working more closely together than they ever have, but they don't have the support of major countries to move forward. There's been this disconnect.

Last one on the WTO, because this is important.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reassess what can be done in the WTO to advance a modern agenda while at the same time getting expedited attention to their traditional concerns about agriculture. That is going to be a lot harder now than it was in 2008. When agriculture prices were high, it was easy to get countries to agree to discipline their subsidies, because they didn't have to give subsidies when prices were high. When prices fall, and those programs kick in and politicians don't want to take money out of the pockets of farmers. So it's a bigger challenge now, one that we're still working, and I am going to try to find yet another way to balance the interest of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But we now have the additional challenge of trying to figure out how to get the United States to play at least a constructive role.



Recently, I heard a rumor that many Chinese companies borrowed big money outside

China in U.S. dollars at very low interest rates and they covered it up as money for export and they brought it back to China to invest in the so-called 'shadow banking.' The interest gap should be something like at least five or six percent. Plus, they may benefit from the appreciation of the Yuan currency. If that is true, the China should be much more exposed to U.S. interest rate hike. During the time, they are very vulnerable in the financial sector as well.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kind of rumor? If this rumor is true, and in Korea we had the same experience in 1998, when the interest gap between the international borrowing money and the domestic interest rate was so high. At the time it was six or seven percent interest rate gaps. So a lot of the Korean companies, especially financial companies borrowed money in Hong Kong and brought that back into Korea. They assumed the interest gap should remain where they were, and they didn't pay any attention at all to exchange rate at the time. That caused one of the harshest (financial crisis) Korea ever faced. And if that is true, China may have some big problems, and I want to hear your comment on that.



Well, I have colleagues who are much more knowledgeable of the intricacies of Chinese finance than I am, so I would refer you to the Peterson Institute Website. Dr. SaKong is much more expert than I am on this.

It's interesting though,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bout 70 percent of their overseas direct investment goes to the Cayman Islands and the British Virgin Islands. If that money stayed there, those islands would sink on the weight of all that money. So obviously, there are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going on.

The Chinese are looking very closely at U.S. interest rates, not only because of its impact on lending, but also its impact on the value of the dollar. The combination of ingredients has only complicated further the efforts at exchange rate management. I will stop it at that, and I wouldn't tread on others' toes. But we have to be very careful, clear and specific on answering your question. I would rather have somebody who has been studying all this to do that.

I forgot to answer a point on essentially piling on China. A piling on strategy is not going to work in the WTO, because you need consensus among all the major trading nations to get anything significant done. Once you have that consensus, then you can work out the side payments to countries to allow them to come back home and accept an agreement. But if you target China specifically, then China will not accept new obligations that only target China. And other countries will look at that example and say, 'well if they can do this to China, we have much less influence and then the United States will just go and really hit us.' So a lo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nd Russians will back off.

So the initial hope, and this was only a hope outside the administration, was that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would get together to draft obligations on e-commerce, state-owned enterprise that could serve as a foundation for engagement with China. But it's very hard to pursue that successfully when you start bashing all those countries with oil sanctions and steel tariffs. And in fact at one OECD meeting, right after they signed the declaration to cooperate on WTO, the next day the United States imposed tariffs, and everyone forgot about the WTO declaration. That's why the U.S. policy is inconsistent and often incoherent.



세계경제연구원 출간물 및
특별강연 시리즈 목록

IGE Publications

Occasional Paper Series

1993

	Title	Author
93-0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1994

	Title	Author
94-01	Korea in the World: Today and Tomorrow	Paul Kennedy
94-02	US-Japa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A. Morse
94-03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oyoo Gyohten
94-04	Changing US and World Economies and their Market Prospects	Allen Sinai
94-05	Prospects for New World Monetary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ur Dunkel

1995

	Title	Author
95-01	Mexican Peso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95-02	The World Economic Trend and US Economic Outlook	Allen Sinai
95-03	New Games, New Rules, and New Strategies	Lester Thurow
95-04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uture Prospects	Robert Scalapino
95-05	US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James A. Baker III
95-06	US Trade Tension with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95-07	Prospects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Japan's Perspective	Hisao Kanamori

1996

	Title	Author
96-01	Tre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Future European Model: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al Decentralization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3	Evolving Role of the OECD in the Global Economy	Donald Johnston
96-04	The Political Context and Consequences of East Asian Economic Growth	Francis Fukuyama
96-05	Korea'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A. W. Clausen

1997

	Title	Author
97-01	East Asia in Overdrive: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	Wendy Dobson
97-02	American Security Policy in the Asia Pacific - Three Crisis and How We Dealt with Them	William Perry
97-03	Public Sector Reform in New Zealand and its Relevance to Korea	Donald Hunn

1998

	Title	Author
98-01	Global Cooperations and National Government: Why We Nee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Edward Graham
98-02	Korean-American Relations: The Search for Stability at a Time of Change	W. Anthony Lake
98-03	Korea: From Vortex to Hub of Northeast Asia	Donald P. Gregg
98-04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Juergen B. Donges
98-05	Globalization and versus Tribalization: The Dilemm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uy Sorman

1999

	Title	Author
99-01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Marcus Noland
99-02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US Dollar/ Yen Exchange Rate: An Overview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enneth S. Courtis

	Title	Author
99-03	Prosp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and Other Asian Economies	Donald Johnston/ Hubert Neiss
99-04	Reflections on Contrasting Present-day US and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s	Hugh Patrick
99-05	Challenge for the World Economy: Where Do the Risks Lie?	Rudiger Dornbusch

2000

	Title	Author
00-01	North Korea-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00-02	Global New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Soogil Young
00-03	Global Trend in Financial Supervision	YongKeun Lee
00-04	Asia Grows, Japan Slows: Prospects for the World Economy and Markets	Kenneth S. Courtis
00-05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orris Goldstein
00-06	Prospects for Millennium Round Trade Negotiations an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effrey Schott/ InBeom Choi
00-07	Prospects for the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ne O. Krueger
00-08	Avoiding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Marcus Noland
00-09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Andrew Fraser
00-10	The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 Fred Bergsten
00-11	Korea and the US: Partners in Prosperity and Security	Stephen W. Bosworth
00-12	The Outlook for Asia and Other Emerging Markets in 2000	Charles Dallara/ Robert Hormats
00-13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 and Financ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Youngkeun Lee
00-14	How Should Korea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James P. Rooney

2001

	Title	Author
01-01	The US Economy on the Brink? Japan on the Edge? Implications for Korea	Kenneth S. Courtis
01-02	The Economic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ward Korea	Marcus Noland

	Title	Author
01-03	Overcoming 3Cs	Jeffrey D. Jones
01-04	High Tech, The Consequences for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on our Lives and Businesses	John Naisbitt
01-05	Korea and the IMF	Stanley Fischer
01-06	The Status of Korea's Restructuring: An Outlook over the Next 10 Years	Dominic Barton
01-07	The World Dollar Standard and the East Asian Exchange Rate Dilemma	Ronald McKinnon
01-08	Europe's Role in Global Govern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	Pierre Jacquet

2002

	Title	Author
02-01	Managing Capital Inflows: The Chilean Experience	Carlos Massad
02-02	Globalization and Korea: Opportunities and Backlash and Challenges	Martin Wolf
02-03	The US-Japan Economic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Korea	Marcus Noland
02-04	US Global Recovery: For Real? - Prospects and Risks	Allen Sinai
02-05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Patricia Hewitt
02-06	The World after 9/11: A Clash of Civilization?	Francis Fukuyama
02-07	Hanging Together: O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Barry Eichengreen
02-08	The Global Economy Rebounds - But How Fast and For How Long?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and Asia	Kenneth S. Courtis
02-09	The US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Dollar: An Outlook for the World Economy	Marcus Noland
02-10	The Doha Round: Objectives, Problems and Prospects	Jagdish Bhagwati
02-11	The Outlook for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2002-2003	Paul F. Gruenwald
02-12	The US and World Economy: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John B. Taylor
02-13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02-14	The Outlook for US Economy, the Dollar and US Trade Policy	C. Fred Bergsten
02-15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ies	Peter F. Cowhey

2003

	Title	Author
03-01	The US and World Economy: After the Iraq War	Allen Sinai
03-02	Korea in the OECD Family	Donald Johnston
03-03	The New Role of the US in the Asia-Pacific	Charles Morrison
03-04	The Global Economic Outlook and the Impact of President Bush's Economic Stimulus Package	Phil Gramm
03-05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Hans Tietmeyer
03-06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03-07	The Global Exchange Rate Regime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urrencies	John Williamson

2004

	Title	Author
04-01	General Outlook on the US and World Economy in 2004	Allen Sinai
04-02	Korea after Kim Jong-il	Marcus Noland
04-03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Hugh Patrick/ Gerald Curtis
04-04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04-05	The Case for a Common Currency in Asia	Robert Mundell
04-06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2005

	Title	Author
05-01	US Trade Policy after the 2004 US Election	Peter F. Cowhey
05-02	Asia in Trans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Dominic Barton
05-03	Post-Election US and Global Economies: Market Prospects, Risks, and Issues	Allen Sinai
05-04	The Korean Economy: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Yukiko Fukagawa
05-05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Competing Perspectives on Global Imbalances	Barry Eichengreen
05-06	Mutual Interdependence: Asia and the World Economy	Anne O. Krueger

	Title	Author
05-07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Global Economy	Wendy Dobson
05-08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East Asia and Asia-Pacific	Robert Scollay
05-09	Moody's Perspective on Korea's Ratings	Thomas Byrne

2006

	Title	Author
06-01	Oil Prices, Ben Bernanke, Inflation, and the Fourth Energy Recession	Philip K. Verleger
06-02	US and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Prospects: Picking up Steam	Allen Sinai
06-03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06-04	Japan's Foreign Policy for Economy and Japan-Korea FTA	Oshima Shotaro
06-05	Japan's Economic Recovery: Implications for Korea	Yukiko Fukagawa
06-06	M&A in the 21st Century and its Implications	Robert F. Bruner
06-07	Korea's Growing Stature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6-08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Common Asian Currency	Eisuke Sakakibara
06-09	Measuring American Power in Today's Complex World and China "Rising": What Lessons for Today from the Past?	Paul Kennedy/ Bernard Gordon
06-10	- Whither China? - The Global Scramble for IT Leadership: Winners and Losers	-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2007

	Title	Author
07-01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A View from Washington	Edwin J. Feulner
07-02	Germany: Understanding for the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Juergen B. Donges
07-03	Seismic Shifts, the World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2007	Allen Sinai
07-04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gel Gurría
07-05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A Chinese Perspective	Zhang Yunling
07-06	The Global Oil and Gas Market: Paradigm Shift and Implications for Korea	Fereidun Fesharaki

	Title	Author
07-07	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07-08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Yukiko Fukagawa
07-09	Digital Networked Economy and Global Corporate Strategy	Ben Verwaayen
07-10	Moving Forward on the KORUS FTA: Now for the Hard Time	Jeffrey Schott
07-11	The Korean Economy and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Barry Eichengreen
07-12	- The Outlook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oping with American Protectionism, Chinese Power, and Japanese Recovery - Economic Outlook for Korea and the Region	- David Hale - Jerald Schiff
07-13	- Why the US Will Continue to Lead the 21st Century? - The Outlook of the Indian Economy from Business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	- Guy Sorman - Tarun Das

2008

	Title	Author
08-01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Anne O. Krueger
08-02	The US "Risk" to Asia and Global Expansion	Allen Sinai
08-03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Guy Sorman
08-04	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James A. Baker III
08-05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Japanese Capital Markets	Atsushi Saito
08-06	Economic and Political Outlook for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World	Phil Gramm
08-07	The Outlook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anking	Charles Dallara
08-08	Can South Korea Still Compete?	Guy Sorman
08-09	- Sovereign Wealth Funds: Perceptions and Realities - Global Financial Markets under Stress	-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2009

	Title	Author
09-01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Subir Lall
09-02	Competing in an Era of Turbulence and Transition	Deborah Wince-Smith
09-03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Prospects, Policies, and Perspectives	Allen Sinai
09-04	US Trade Policy in the Obama Era	Jeffrey Schott
09-05	Beyond Keynesianism	Justin Yifu Lin
09-06	- Current Crisis and th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 Lessons from the Current Economic Crisis	-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09-07	- Obama, Can It Work? -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 Guy Sorman - Jeffrey Schott

2010

	Title	Author
10-01	The EU in Transition in the New Global Paradigm: Opportunities for Korea	Jean-Pierre Lehmann
10-02	Aftermath of the 'Crises': US and Global Prospects, Legacies, and Policies	Allen Sinai
10-03	The Global Economy: Where Do We Stand?	Anne O. Krueger
10-04	-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10-05	- Emerging Markets and New Frontiers - Asia in the Global Economy	- Mark Mobius - Dominique Strauss-Kahn
10-06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Paul A. Volcker

2011

	Title	Author
11-01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1-02	Safety and Economics of Nuclear Power	SoonHeung Chang
11-03	A Special Lecture on the Rebalancing of the Chinese Economy	Yu Yongding

	Title	Author
11-04	Reshaping the Global Financial Landscape: An Asian Perspectiv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1-05	- Economic Outlook and Future Challenges in Developing Asia - Europe's Financial Woes	- Haruhiko Kuroda - Richard N. Cooper
11-06	-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 Markets, 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 Danny Leipziger - Marcus Noland

2012

	Title	Author
12-01	US and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Turmoil: What Lies Ahead?	Allen Sinai
12-02	- Advancement and Edu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nd Economic Growth - Prospects of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 Nam Pyo Suh - Hans Martens
12-03	- The US Elections in 2012 and the Future of US Asia-Pacific Policy - Current Economic Affairs and the Financial Market - An Optimist View on the Global Economy	- Charles Morrison - Charles Dallara - Guy Sorman
12-04	- FTAs, Asia-Pacific Integration and Korea - The Eurozone Crisis: Update and Outlook	- Peter A. Petri - Nicolas Véron
12-05	- China's New Leadership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 Can the WTO Be Resuscitated?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Pacific	- Andrew Sheng - Jean-Pierre Lehmann

2013

	Title	Author
13-01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3-02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Guntram B. Wolff
13-03	-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Challenges and How to Solve Them - The Global Outlook: Grounds for Optimism, but Risks Remain Relevant	- Andreas Dombret - John Lipsky
13-04	- The State and Outlook of the US and Chinese Economy - Japan's Abenomics and Foreign Policy	- David Hale - Hugh Patrick/ Gerald Curtis

	Title	Author
13-05	-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e in Korea - Abenomics, Future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 TPP	- Guy Sorman -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6	- Unified Germany in Europe: An Economic Perspective - Chinese Economic Policymaking: A Foreigners' Perspective	- Karl-Heinz Paqué - Bob Davis
13-07	- The Outlook for Japan under Abenomics and Abenationalism - After the Pax Americana (Korea-China-Japa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 Whither to?)	- David Asher - David Filling

2014

	Title	Author
14-01	U.S. and Global Economics-Poised for Better Times	Allen Sinai
14-02	- Abe in the Driver's Seat: Where is the Road Leading? - The Secret of Germany's Performance: The Mittelstand Economy	- Gerald Curtis - Peter Friedrich
14-03	- The Eurozone Economy: Out of the Doldrums? - The Global Economy 2014	- Karl-Heinz Paqué - Martin Feldstein
14-04	Philanthropy and Welfare	Guy Sorman
14-05	-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 From BRICs to America	- Roberto Azevêdo - Sung Won Sohn
14-06	- Risks and Opportunities i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 Abe's Labor Reform and Innovative Strategies	- Charles Dallara - Yukiko Fukagawa
14-07	- China's Economy and Anti-Corruption Drive	- Bob Davis
	- US Fed's QE Ending & Asian Financial Markets	- Anoop Singh
	- China's New Economic Strategies and the Korea-China FTA	- Zhang Yunling

2015

	Title	Author
15-01	- Will the Global Economy Normalize in 2015?	- Allen Sinai
15-02	- The EU Economy in 2015: Will It Take Off?	- Jeroen Dijsselbloem
	- U.S.-Korea Economic Relations: Partnership for Shared Economic Prosperity	- Mark W. Lippert
	- The Hartz Labor Reforms of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 Peter Hartz
15-03	- What Makes China Grow?	- Lawrence Lau
	- What can Korea Learn from Europe's Slow Growth?	- Guy Sorman

	Title	Author
15-04	-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Switzerland - The Emerging New Asian Economic Disorder	- H.E. Doris Leuthard - David L. Asher
15-05	-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 towards the New Normal - Germany's Industry 4.0: Harnessing the Potential of Digitization	- Huang Yiping - Matthias Machnig
15-06	- Four Global Forces Changing the World - Turbulence in Emerging Markets and Impact on Korea	- Dominic Barton - Sung-won Sohn
15-07	-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North Korea's Economic Potential - Perspectives on China's Economy and Economic Reform	- Thomas Byme - Huang Haizhou

2016

	Title	Author
16-01	- The U.S. and Global Prospects and Markets in 2016: A Look Ahead	- Allen Sinai
16-02	- The Key Themes and Risks of the Global Economy in 2016 - The U.S. in the Global Economy	- Hung Tran - Anne Krueger
16-03	-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	- Martin Feldstein - Gerald Curtis
16-04	-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 The World Economy at a Time of Monetary Experimentation and Political Fracture -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 Marcus Noland & Sung-won Sohn - Charles Dallara - Mark Lippert

2017

	Title	Author
17-01	- Big Changes, Big Effects -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Prospects 2017	- Allen Sinai
17-02	- The 2017 US and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 Automation,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Korea	- Martin Feldstein - Jonathan Woetzel
17-03	-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 - Between Brexit and Trump: Global Challenges for the European Union	- Gerald Curtis & Hugh Paztrick - Thomas Wieser
17-04	- The Future of Work: Is This Time Different?	- Carl Benedikt Frey

	Title	Author
17-05	- The Future of Growth - The Current State of US Economy and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US FTA Revision	- Simon Baptist -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Title	Author
18-01	- Dr. Martin Feldstein's Analysis of the US and Global Economy - U.S. and Global Prospects Looking Ahead	- Martin Feldstein - Allen Sinai
18-02	- US Protectionism, China's Political Shift and Their Implications - Japan's Labor Reform and Future Korea-Japan Cooperation	- Kenneth Courtis - Yukiko Fukagawa
18-03	- U.S. Economic and Trade Policy for Korea and Asia - How Europeans See China, Changing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Charles Freeman - Guy Sorman
18-04	- Asia's New Economic Landscape: India, Japan and China - Climate, Energy and Green Tech: Transforming Our Economies	- Eisuke Sakakibara - Karsten Sach
18-05	- Global Economic Outlook : 2019 and Beyond - US Economic and Trade Policies of the Post Midterm Election	- Danny Leipziger - Jeffrey Schott

Proceedings and Reports

	Title	Author
94-01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Il SaKong
94-02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US Cooperation	Il SaKong/ C. Fred Bergsten
95-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5-02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5-03	Korea-US Cooperation in the New World Order	Il SaKong/ C. Fred Bergsten
96-01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Il SaKong
96-02	Korea-US Relations in the Globalization Era	Il SaKong/ C. Fred Bergsten
96-03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6-04	I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in a Trap and Can It Get Out?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7-01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Il SaKong
97-02	Financial Reform in Kore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8-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V]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8-02	Korean Unifica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for Korea-US Relationship	Il SaKong
98-03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Il SaKong/ KwangSeok Kim
98-04	The Fifty Years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Il SaKong/ KwangSeok Kim
99-01	Asian Financial Crisis: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Il SaKong/ Young Hun Koo
99-02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Korea-US Relation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9-03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00-0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Il SaKong/ Yunjong Wang
00-02	Northeast Asia Forum 2000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itle	Author
00-03	Proceedings of the Sixth Korea-US 21st Century Council Meeting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1-01	Building Constituencies for a Global Liberal Trade Agend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1-02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EG Seoul Report)	Emerging Markets Eminent Persons Group
03-01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2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3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4	IGE's 1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4-01	How to Facilitate Business Start-up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8-01	Globalization and Korean Financial Sector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9-01	Lesson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and Kore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0-01	G20 Reform Initiativ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0-02	G20 Seoul Summit and Development Agend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1	New Global Financial Regulatory Regime in the Making: Impact on Asian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2	Culture, Korean Economy and the Korean Wav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3	Asia in the New Global Financial Scen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1	Fostering Hidden Champions: Lessons from German Experienc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2	Unification and the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3	The 20-Year Report of Activiti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4-01	Leadership & Policy Prioriti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itle	Author
15-01	Women and Growth Potential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7-0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IGE Brief+

2012

	Title	Author
12-01	Culture Industry, Service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Chong-Hyun Nam
12-02	Korea-Japan Economic Integration: Trend and Prospect	Jongyun Lee
12-03	The Eurozone Crisis and Challenges for Korea	Jung-Taik Hyun
12-04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2012: Why Is It More Critical This Time?	Il SaKong
12-05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	JaeUng Lee
12-06	We Must Be Prepared for the Korean Unification	Il SaKong

2013

	Title	Author
13-01	New World Economic Order and Forward-looking Korea-Japan Relationship	Il SaKong
13-02	Financial Reform and China's Political Economy	Yoon-Je Cho

2014

	Title	Author
14-01	No Future for a Society that isn't Alarmed at Attacks against Police	Il SaKong
14-02	To Make the 3-Year Agenda for Economic Reform Successful	Il SaKong
14-03	Reinventing Korea for a Trustworthy Nation	Il SaKong
14-04	Reemergence of Chin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l SaKong

2016

	Title	Author
16-01	Korea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and Surroundings	Il SaKong

Global Economic Horizons

1994

	Title	Author
94-01	Challenges of a Nomadic World	Jacques Attali
94-02	Globalism vs. Regionalism	YoungSun Lee
94-03	Prospects for the Chinese Market	Wan-soon Kim
94-04	How to Prepare for the 21st Century	Paul Kennedy
94-05	Death of Money/Post Capitalist Society	GiTaek Hong/ HanGwang Joo
94-06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ost-UR Era	Yoo Jae Won
94-07	Environment and Trade	Seong-Lin Na/ Seungjin Kim
94-08	Structural Adjustment in Japan and the Korean Economy	JongYoon Lee
94-09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nd Options for Korea	Il SaKong
94-10	Market Opening 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JongSeok Kim

1995

	Title	Author
95-01	Korea's Economy and it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Il SaKong
95-02	Globalization and Competition Norm of the Enterprises	Wan-soon Kim
95-03	What is Globalization?	ByungJoo Kim
95-04	Korea and the US: The Year 2000 in the Global Economy	James Laney
95-05	Will the World Economy Collapse?	ChukKyo Kim
95-06	Possibility of Continuously Strong Yen and Korea's Countermeasures	Jin-Geun Park
95-07	Globalization and the Korean Economy: Boom or Bubble?	BonHo Koo
95-0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Policy Measures	Chong-Hyun Nam
95-09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Korea-Japan Relations	WonTack Hong
95-10	Japan's Industrial Network Organizations and its Efficiency	JongYoon Lee
95-11	Dilemma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JaeUng Lee

	Title	Author
95-12	Overview of the Post-Liberation Korean Economy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wangSeok Kim

1996

	Title	Author
96-01	The Domestic Futures Market: Its Planning and Prospects	Sun Lee
96-02	Will the Era for Medium-sized Firms Be Opened?	Dong-Gil Yoo
96-03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of Korea	MooGi Bae
96-04	Global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Businesses	Cheong Ji
96-05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s in Korea	YoungCheol Park
96-06	Multilateralism vs. Regionalism: Can It Be Compatible?	SeWon Kim
96-07	Risks and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Derivatives	SangKee Min
96-08	Recent Economic Crisis and Policy Measures	KwangSeok Kim
96-09	Economic Development, Policy Reform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Order	SeongSeob Lee
96-10	The Role of Government in Transition	ByeongJu Kim
96-11	New Agenda of the WTO	WanSoon Kim

1997

	Title	Author
97-01	How to Solve the Labor Law Revision?	SooGon Kim
97-02	Why a Low Economic Growth Rate is Desirable	ChukKyo Kim
97-03	Lessons from the Hanbo Crisis	JaeUng Lee
97-04	Economic Manag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eokWoo Nam
97-05	A True Story of Company Growth: Lessons from the Hanbo Crisis	Cheong Ji
97-06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Collective Farming	PalYong Moon
97-07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	KeSop Yun
97-08	An Aging Population and the Budget Crisis	Jong-Gi Park
97-09	Korea's Response Strategies Based on a General Model of Foreign Exchange Crisis	JinGeun Park
97-10	How to Open an Era of Ventures	Dong-Gil Yoo

1998

	Title	Author
98-01	Has Korea's Economic Miracle Ended?	Chong-Hyun Nam
98-02	The Impossibility of Overcoming a Crisis without a Grand Paradigm Shift	DaeHee Song
98-03	Corporate Restructuring and Desirable Relationships between Banks and Corporations	SangWoo Nam
98-04	A Search for New Corporate Governance and Roles of Outside Directors	Yeong-gi Lee
98-05	Suggestions for Breaking the Circle of High Investments and High Savings	YeongTak Lee

1999

	Title	Author
99-01	Prospects and Agenda for Pension Reform	Jong-Ki Park
99-02	The Subway Strike and Review of Issues Regarding Full Time Unionists	Soo-Gon Kim
99-03	Financial Restructuring and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JunGyeong Park
99-04	Environmental Policy Agenda for the 21st Century	Jong-Ki Kim
99-05	How to Deal with Income Distribution Problems in Korea	KwangSeok Kim
99-06	Fallacy and Reality in Productive Social Welfare System	Kwang Choi
99-07	Toward Closer Economic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l SaKong
99-08	WTO New Round - Recent Ministerial Meeting in Seattle and its Prospect	Tae-ho Bark

2000

	Title	Author
00-01	The Prospect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Korean Economy 2000	Joon-Kyung Kim
00-02	What Happened to the Debate on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Il SaKong
00-03	The Recent Financial Crisis and Korea's Economic Future	Il SaKong
00-04	Revisit of High Cost with Low Efficiency	JongYun Lee
00-05	Is Asia's Recovery Sustainable?	Il SaKong

	Title	Author
00-06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Yoon-Je Cho
00-07	The Role of International Investors in the Evolu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JaeUng Lee
00-08	US Restructuring Experience and Lessons	YeongSe Lee

2001

	Title	Author
01-01	A Perspective of Korean Industries and Strategi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DoHoon Kim
01-02	Reconsidering Working Five Days a Week	Young-bum Park

Research Reports (Global Economy Series)

1994

	Title	Author
94-01	The Task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ost-UR Era and Policy Options for Korea	JaeWon Yoo
94-02	Current Discussions on Environment - Trade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Trade	SeungJin Kim/ SeongRin Na
94-03	Japan's Structural Adjustments to a Strong Yen and Strategies for the Korean Economy	JongYun Lee
94-04	Market Opening 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JongSeok Kim

1995

	Title	Author
95-01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ts Current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HanGwang Joo/ SeungJin Kim
95-02	Receptivity of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 Korean and Japanese Firms	JaeGyu Lee
95-03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ime and Korea's Strategy	JiHong Kim

1996

	Title	Author
96-01	The Domestic Futures Market: Its Planning and Prospects	Sun Lee
96-02	Japan's Industrial Network Organization and its Efficiency: A Case Study of the Automobile Industry	JongYun Lee

1997

	Title	Author
97-01	Romania's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Reform Issues	GwangSeok Kim/ ByeongJi Kim/ ILDong Koh

1998

	Title	Author
98-01	Sources of Korea's Economic Growth and Future Growth Potentials	KwangSeok Kim
98-02	Trade Patterns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Their Changes and Korea's Response	SeungJin Kim
98-03	The Global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WanSoon Kim/ NakGyun Choi
98-04	Intern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Korea's Strategy	JongGuk Park

2000

	Title	Author
00-01	Financial Crisis and Industry Policy in Korea	YeongSe Lee / YongSeung Jeong

2001

	Title	Author
01-01	Korea's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Their Evolution from 1961 to 1999	KwangSeok Kim
01-02	Technology Transfer and the Role of Information in Korea	YeongSe Lee

Special Lecture Series

1993

No.	Date	Title	Speaker
93-01	Feb 1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Mar 18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93-03	Apr 9	The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Outlook and Issues	Allen Sinai
93-04	Jun 22	Economic Outlook for the Pacific and Implications for Korea	Lawrence Krauss
93-05	Nov 4	Challenges of a Nomadic World	Jacques Attali

1994

No.	Date	Title	Speaker
94-01	Jan 5	Korea in the World: Today and Tomorrow	Paul Kennedy
94-02	Mar 22	US-Japa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A. Morse
94-03	Mar 25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oyoo Gyohten
94-04	Apr 18	Changing US and World Economies and their Market Prospects	Allen Sinai
94-05	Jun 28	Prospects for East European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Freeman
94-06	Sep 6	Prospects for New World Monetary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John Williamson
94-07	Oct 18	Prospects for New Trade Order and Implications for Korea	Arthur Dunkel
94-08	Dec 15	Financial Reform for the New Economy: Evaluations and Prospects	Jaeyoon Park

1995

No.	Date	Title	Speaker
95-01	Jan 26	Strategies for Globalization and Future Economic Policy	JaeHyong Hong
95-02	Jan 27	Mexican Peso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No.	Date	Title	Speaker
95-03	Mar 6	The World Economic Trend and US Economic Outlook	Allen Sinai
95-04	Mar 29	Korea and US: The Year 2000 in the Global Economy	James Laney
95-05	Apr 11	New Games, New Rules, and New Strategies	Lester Thurow
95-06	Apr 21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uture Prospects	Robert Scalapino
95-07	May 18	US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James A. Baker III
95-08	Jun 14	New World Trade Regime in the Post-UR Er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95-09	Jun 20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fter Mexico and Recent Currency Crisis	Stanley Fischer
95-10	Jul 19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New Challenges	Jagdish Bhagwati
95-11	Sep 1	Prospects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and the Role of Korea	Hisao Kanamori
95-12	Oct 17	Russian Intelligence System: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Vadim Kirpitchenko
95-13	Oct 19	Trend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Allen Sinai
95-14	Nov 7	Current US Political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for US-Korea Relations	Thomas Foley
95-15	Nov 13	APEC and the Worl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 Fred Bergsten
95-16	Nov 28	International Monetary Regime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Toyoo Gyohten
95-17	Dec 6	WTO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 Where Do We Go from Here?	Anne O. Krueger

1996

No.	Date	Title	Speaker
96-01	Jan 25	Challenges for the Global Trading System	Robert Lawrence
96-02	Feb 1	Trade Policies of the New Economy	Jaeyoon Park
96-03	Feb 26	Technology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Sylvia Ostry
96-04	Mar 19	Information Era: Korea's Strategies	Sukchae Lee

No.	Date	Title	Speaker
96-05	Apr 9	Future European Model: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e Decentralization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6	Apr 23	Evolving Role of the OECD in the Global Economy	Donald Johnston
96-07	May 7	New Issues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ingapore and Beyond	Chulsu Kim
96-08	May 17	Financial Globalization and World Economy: Implications for Korea	Paul A. Volker
96-09	May 21	Cooperation or Conflict? - A European Perspective on East Asia's Place in the Global Economy	Martin Wolf
96-10	May 23	East Asia in Overdrive: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s	Wendy Dobson
96-11	May 28	Japan's Banking Difficulties: Causes and Implications	Hugh Patrick
96-12	Jun 29	The Political Context and Consequences of East Asian Economic Growth	Francis Fukuyama
96-13	Jul 9	President Clinton's First Term and Prospects for a Second: Implications for Korea	Robert Warne
96-14	Sep 17	Global Free Trade: A Vision for the Early 21st Century	C. Fred Bergsten
96-15	Oct 22	Korea'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A. W. Clausen
96-16	Nov 26	The Free Trade Area of Clinton's Second Term: Implications for APEC and Korea	Richard Feinberg

1997

No.	Date	Title	Speaker
97-01	Feb 25	Economic manag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uckwoo Nam
97-02	Mar 18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Juergen B. Donges
97-03	May 27	American Security Policy in the Asia Pacific- Three Crisis and How We Dealt With Them	William Perry
97-04	Jun 10	Global Cooperations and National Government: Why We Nee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Edward Graham
97-05	Jul 8	Public Sector Reform in New Zealand and its Relevance to Korea	Donald Hunn

No.	Date	Title	Speaker
97-06	Sep 18	Korean-American Relations: The Search for Stability at a Time of Change	W. Anthony Lake
97-07	Oct 21	Korea: From Vortex to Hub of Northeast Asia	Donald P. Gregg
97-08	Dec 9	The Japanese Economic Slump and Currency Crises in Other East Asian Economies	Ronald McKinnon

1998

No.	Date	Title	Speaker
98-01	Jan 14	Globalization and versus Tribalization: The Dilemm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uy Sorman
98-02	Feb 3	Asian Currency Turmoil and Japan's Role	Takatoshi Kato
98-03	Feb 5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Challenges Facing Korea: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Charles Dallara
98-04	Apr 28	The Significance of the European Economic Monetary Union: in Europe and Beyond	Tue Rohsted
98-05	Jun 23	Asian Currency Crisis: What Has Happened?	Anne O. Krueger
98-06	Sep 17	How to Reform Public Sector Management	Nyum Jin
98-07	Dec 4	Economic Outlook for 1999: Asia and Korea	Hubert Neiss
98-08	Dec 11	North Korea in Global Perspective	Marcus Noland

1999

No.	Date	Title	Speaker
99-01	Feb 11	Korea in the World Economy: An OECD Appreciation of its Newest Member	Donald Johnston
99-02	Mar 5	Prospects for US Stock Exchanges and US Economy	Richard A. Grasso
99-03	Apr 6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US Dollar/Yen Exchange Rate: An Overview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enneth S. Courtis
99-04	May 19	Reflections on Contrasting Present-day US and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s	Hugh Patrick
99-05	Jul 22	Challenge for the World Economy: Where Do the Risks Lie?	Rudiger Dornbusch

No.	Date	Title	Speaker
99-06	Oct 5	How Should Korea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James P. Rooney
99-07	Dec 2	Global Financial Market: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Robert Hormats
99-08	Dec 14	North Korea-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2000

No.	Date	Title	Speaker
00-01	Jan 19	The Outlook for Asia and Other Emerging Markets in 2000	Charles Dallara
00-02	Feb 15	Global New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Soogil Young
00-03	Feb 29	Asia Grows, and Japan Slows- Prospect for the World Economy and Markets	Kenneth S. Courtis
00-04	Mar 28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orris Goldstein
00-05	Apr 26	Policies toward Continued Corporate and Financial Reform	Youngkeun Lee
00-06	May 26	Prospects for Millenium Round Trade Negotiations an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effrey Schott
00-07	Jun 23	Prospects for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ne O. Krueger
00-08	Jul 13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Marcus Noland
00-09	Sep 14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Andrew Fraser
00-10	Nov 10	The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 Fred Bergsten

2001

No.	Date	Title	Speaker
01-01	Feb 6	The US Economy on the Brink? Japan on the Edge? Implications for Asian and the World Economy	Kenneth S. Courtis
01-02	Feb 27	Economic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ward Korea	Marcus Noland
01-03	Apr 26	Jeffrey Jones' Evaluation of Korean Business and Economy: Overcoming Three 'C's	Jeffrey D. Jones

No.	Date	Title	Speaker
01-04	Jun 5	High Tech, The Consequences of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on our Lives and Businesses	John Naisbitt
01-05	Jul 9	Korea and the IMF	Stanley Fischer
01-06	Jul 19	Outlook on Korea Over the Next Ten Years	Dominic Barton
01-07	Sep 4	The World Dollar Standard and the East Asian Exchange Rate Dilemma	Roland McKinnon
01-08	Oct 9	Europe's Role in Global Govern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Korea	Pierre Jacquet
01-09	Nov 6	Globalization and Dangers in the World Economy	Martin Wolf
01-10	Nov 16	Preventing Financial Crises: The Chilean Perspective	Carlos Massad
01-11	Nov 20	The New US-Japan Economic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Korea	Marcus Noland

2002

No.	Date	Title	Speaker
02-01	Jan 9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Patricia Hewitt
02-02	Jan 16	The World After 9/11: A Clash of Civilizations?	Francis Fukuyama
02-03	Feb 22	Hanging Together: O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Barry Eichengreen
02-04	Apr 16	US and Global Recovery: For Real? Prospects and Risks	Allen Sinai
02-05	May 7	The Global Economy Rebounds - But How Fast and For How Long?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Kenneth S. Courtis
02-06	Jun 14	The US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Dollar	Marcus Noland
02-07	Jul 10	The Doha Round: Objectives, Problems and Prospects	Jagdish Bhagwati
02-08	Sep 24	The Outlook for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2002-2003	Paul F. Gruenwald
02-09	Oct 11	The Outlook for US Economy, the Dollar and US Trade Policy	C. Fred Bergsten
02-10	Oct 22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02-11	Oct 24	The US and World Economy: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John B. Taylor

No.	Date	Title	Speaker
02-12	Dec 3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ies	Peter F. Cowhey

2003

No.	Date	Title	Speaker
03-01	Apr 8	The US and World Economy: After the Iraq War	Allen Sinai
03-02	May 30	2003 Global Economy and Key Economic Issues: From the OECD's Perspectives	Donald Johnston
03-03	Jun 10	The New Role of the US in the Asia-Pacific	Charles Morrison
03-04	Jul 4	Global Economic Outlook and the Impact of President Bush's Economic Stimulus Package	Phil Gramm
03-05	Oct 28	The Global Exchange Rate Regime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urrencies	John Williamson
03-06	Nov 4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Hans Tietmeyer
03-07	Nov 21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2004

No.	Date	Title	Speaker
04-01	Feb 3	An Outlook for the US and World Economy in 2004	Allen Sinai
04-02	Apr 7	Korea After Kim Jong-il	Marcus Noland
04-03	Apr 21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04-04	Jun 1	- The US Election,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US Economic Performance,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04-05	Jul 13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04-06	Oct 14	The Case for a Common Currency in Asia	Robert Mundell
04-07	Nov 2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US Trade Policy	Peter F. Cowhey
04-08	Dec 7	Asia in Transition and Implication for Korea	Dominic Barton

2005

No.	Date	Title	Speaker
05-01	Jan 18	Post-Election US and Global Economies and Markets Prospects, Risks, and Issues	Allen Sinai
05-02	Mar 2	The Korean Economy: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Yukiko Fukagawa
05-03	Apr 12	A Rating Agency Perspective on Korea	Thomas Byrne
05-04	May 10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World Economy	Wendy Dobson
05-05	May 31	Visions of East Asian and Asian-Pacific Integration: Competing or Complementary	Robert Scollay
05-06	Jun 30	Mutual Independence: Asia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Anne O. Krueger
05-07	Sep 1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Competing Perspectives on Global Imbalances	Barry Eichengreen
05-08	Oct 13	Measuring American Power in Today's Complex World	Paul Kennedy
05-09	Oct 28	China "Rising": What Lessons for Today from the Past?	Bernard Gordon
05-10	Nov 15	Oil Prices, Ben Bernanke, Inflation, and the Fourth Energy Recession	Philip K. Verleger

2006

No.	Date	Title	Speaker
06-01	Jan 23	US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Prospects: Picking up Steam	Allen Sinai
06-02	Feb 14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06-03	Mar 28	Japan's Economic Recovery: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Yukiko Fukagawa
06-04	Apr 18	The Global Scramble for IT Leadership: Winners and Losers	George Scalise
06-05	May 10	Korea's Growing Stature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6-06	Jun 20	Japan's Foreign Policy for Economy and Japan-Korea FTA	Oshima Shotaro
06-07	Jun 30	Whither China?	Richard N. Cooper
06-08	Jul 20	M&A in the 21st Century and its Implications	Rpbert F. Bruner

No.	Date	Title	Speaker
06-09	Sep 1	Korea and the U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A View from Washington	Edwin J. Feulner
06-10	Sep 12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Common Asian Currency	Eisuke Sakakibara
06-11	Sep 15	Germany: Understanding the Economic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Juergen B. Donges
06-12	Sep 21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gel Gurría
06-13	Oct 12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A Chinese Perspective	Zhang Yunling
06-14	Nov 9	The Global Oil and Gas Market: Paradigm Shift and Implications for Korea	Fereidun Fesharaki
06-15	Nov 29	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2007

No.	Date	Title	Speaker
07-01	Jan 9	Seismic Shifts, the World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2007	Allen Sinai
07-02	Feb 13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Yukiko Fukagawa
07-03	Mar 9	Digital Networked Economy and Global Corporate Strategy	Ben Verwaayen
07-04	May 3	The Outlook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oping with American Protectionism, Chinese Power, and Japanese Recovery	David Hale
07-05	May 8	Key Trend in the 2008 US Presidential Campaign	Stephen J. Yates
07-06	May 11	Strengthening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7-07	Jun 21	Moving Forward the KORUS FTA: Now for the Hard Time	Jeffrey Schott
07-08	Aug 24	The Korea Economy and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Barry Eichengreen
07-09	Oct 4	Why the US Will Continue to Lead the 21st Century?	Guy Sorman
07-10	Oct 19	The Outlook of the Indian Economy from Business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	Tarun Das

No.	Date	Title	Speaker
07-11	Oct 25	Globalization, Diversity and Recruitment of Business Talents	Ben Verwaayen
07-12	Nov 8	Economic Outlook for Korea and the Region	Jerald Schiff
07-13	Dec 14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Anne O. Krueger

2008

No.	Date	Title	Speaker
08-01	Jan 15	The US "Risk" to Asia and the Global Expansion	Allen Sinai
08-02	Mar 25	Sovereign Wealth Funds: Perceptions and Realities	Robert C. Pozen
08-03	May 14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Guy Sorman
08-04	May 30	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James A. Baker III
08-05	Jun 10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Japanese Capital Market	Atsushi Saito
08-06	Jun 18	Economic and Political Outlook for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World	Phil Gramm
08-07	Sep 17	The Outlook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anking	Charles Dallara
08-08	Sep 23	Can South Korea Still Compete?	Guy Sorman
08-09	Oct 17	Global Financial Markets under Stress	Jeffrey Shafer
08-10	Nov 4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Dollar, and the Price of Oil	Martin Feldstein
08-11	Dec 9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ct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Subir Lall

2009

No.	Date	Title	Speaker
09-01	Jan 13	Competing in an Era of Turbulence and Transition	Deborah Wince-Smith
09-02	Feb 3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Prospects, Policies, and Perspectives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09-03	Feb 24	Current Crisis and th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Danny Leipziger
09-04	Feb 25	US Trade Policy in the Obama Era	Jeffrey Schott
09-05	Mar 19	Obama, Can It Work?	Guy Sorman
09-06	Apr 15	Lessons from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ne O. Krueger
09-07	Jun 23	Beyond Keynesianism	Justin Yifu Lin
09-08	Jul 21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Jeffrey Schott
09-09	Aug 20	Prospects for Investment aft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Role of IFC and Developing Countries	Lars H. Thunell
09-10	Oct 15	Is a Double-Dip a Realistic Possibility?	SungWon Sohn
09-11	Dec 8	The EU in Transition in the New Global Paradigm: Opportunities for Korea?	Jean-Pierre Lehmann

2010

No.	Date	Title	Speaker
10-01	Jan 21	Aftermath of the 'Crisis': US and Global Prospects, Legacies, and Policies	Allen Sinai
10-02	Apr 8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Yukiko Fukagawa
10-03	Apr 22	Emerging Markets and New Frontiers	Mark Mobius
10-04	May 18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Danny Leipziger
10-05	Jul 13	Asia in the Global Economy	Dominique Strauss-Kahn
10-06	Aug 31	The Global Economy: Where Do We Stand?	Anne O. Krueger
10-07	Oct 15	How Close Are We to a Double-Dip and Deflation?	SungWon Sohn
10-08	Nov 5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Paul A. Volcker

2011

No.	Date	Title	Speaker
11-01	Jan 20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11-02	Feb 24	Economic Outlook and Future Challenges in Developing Asia	Haruhiko Kuroda
11-03	Mar 23	Europe's Financial Woes	Richard N. Cooper
11-04	Apr 28	Safety and Economics of Nuclear Power	SoonHeung Chang
11-05	May 24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Danny Leipziger
11-06	Jun 29	Markets, 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11-07	Aug 30	A Special Lecture on the Rebalancing of the Chinese Economy	Yu Yongding
11-08	Dec 31	Global Economic Turbulence and Investment Implications	SungWon Sohn

2012

No.	Date	Title	Speaker
12-01	Jan 19	US and Global Economy and Markets Turmoil: What Lies Ahead?	Allen Sinai
12-02	Mar 13	The US Elections in 2012 and the Future of US Asia-Pacific Policy	Charles Morrison
12-03	Jun 22	Advancement and Edu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nd Economic Growth	NamPyo Suh
12-04	Jul 17	Prospects of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Hans Martens
12-05	Sep 14	Current Economic Affairs and the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12-06	Sep 18	An Optimist View on the Global Economy	Guy Sorman
12-07	Oct 11	FTAs, Asia-Pacific Integration and Korea	Peter A. Petri
12-08	Oct 29	The Eurozone Crisis: Update and Outlook	Nicolas Veron
12-09	Nov 21	China's New Leadership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Andrew Sheng
12-10	Dec 7	Can the WTO Be Resuscitated?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Pacific	Jean-Pierre Lehmann

2013

No.	Date	Title	Speaker
13-01	Jan 10	The US and Global Economies after the US Election and in the New Year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13-02	Jan 17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Guntram B. Wolff
13-03	Feb 8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Challenges and How to Solve Them	Andreas Dombret
13-04	Mar 22	The Global Outlook: Grounds for Optimism, but Risks Remain Relevant	John Lipsky
13-05	Apr 3	The State and Outlook of the US and Chinese Economy	David Hale
13-06	Apr 9	Japan's Abenomics and Foreign Policy	Hugh Patrick/ Gerald Curtis
13-07	Apr 30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e in Korea	Guy Sorman
13-08	May 21	The Japanese Economy an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9	Jun 27	Unified Germany in Europe: An Economic Perspective	Karl-Heinz Paqué
13-10	Jul 19	Chinese Economic Policymaking: A Foreigner's Perspective	Bob Davis
13-11	Sep 27	Japanese Politics and Abenomics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World	David Asher
13-12	Nov 15	Korea-China-Japan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er to?	David Philling

2014

No.	Date	Title	Speaker
14-01	Jan 7	U.S. and Global Economies - Poised for Better Times?	Allen Sinai
14-02	Jan 14	Swiss Made	R. James Breiding
14-03	Feb 20	Abe in the Driver's Seat: Where is the Road Leading?	Gerald Curtis
14-04	Feb 26	The Secret of Germany's Performance: The Mittlestand Economy	Peter Friedrich
14-05	Mar 5	The Eurozone Economy: Out of Doldrums?	Karl-Heinz Paqué
14-06	Mar 17	The Global Economy 2014	Martin Feldstein
14-07	Apr 3	Philanthropy and Welfare	Guy Sorman
14-08	May 16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Roberto Azevedo
14-09	May 23	From BRICs to America	SungWon Sohn

No.	Date	Title	Speaker
14-10	Jul 24	Risks and Opportunities i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Charles Dallara
14-11	Sep 12	Abe's Labor Reform and Innovative Strategies	Yukiko Fukagawa
14-12	Sep 26	a's Economy and Anti-Corruption Drive	Bob Davis
14-13	Oct 17	US Fed's QE Ending & Asian Financial Markets	Anoop Singh
14-14	Nov 14	China's New Economic Strategy and the Korea-China FTA	Zhang Yunlingng

2015

No.	Date	Title	Speaker
15-01	Jan 15	The EU Economy in 2015: Will It Take Off?	Jeroen Dijsselbloem
15-02	Jan 20	Will the Global Economy Normalize in 2015?	Allen Sinai
15-03	Apr 24	What Makes China Grow?	Lawrence Lau
15-04	Apr 28	U.S.-Korea Economic Relations: Partnership for Shared Economic Prosperity	Mark W. Lippert
15-05	May 5	The Hartz Labor Reforms of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Peter Hartz
15-06	Jun 2	What can Korea Learn from Europe's Slow Growth?	Guy Sorman
15-07	Jul 9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Switzerland	Doris Leuthard
15-08	Sep 11	The Emerging New Asian Economic Disorder	David L. Asher
15-09	Sep 21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 towards the New Normal	Huang Yiping
15-10	Oct 13	Germany's Industry 4.0: Hamessing the Potential of Digitization	Matthias Machnig
15-11	Oct 29	Four Global Forces Changing the World	Dominic Barton
15-12	Nov 12	Turbulence in Emerging Markets and Impact on Korea	Sung-won Sohn
15-13	Nov 17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North Korea's Economic Potential	Thomas Byrne
15-14	Dec 10	Perspectives on China's Economy and Economic Reform	Huang Haizhou
15-15	Dec 15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Sudhir Shetty Philip O'Keefe

2016

No.	Date	Title	Speaker
16-01	Jan 12	The U.S. and Global Prospects and Markets in 2016: A Look Ahead	Allen Sinai
16-02	Feb 23	The Key Themes and Risks of the Global Economy in 2016	Hung Tran
16-03	Mar 2	The U.S. in the Global Economy	Anne Krueger
16-04	May 16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Martin Feldstein
16-05	May 24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	Gerald Curtis
16-06	Jun 1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Mark Lippert
16-07	Sep 20	How Ready Are W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oh-Yeon Kim
16-08	Oct 21	The World Economy at a Time of Monetary Experimentation and Political Fracture	Charles Dallara
16-09	Nov 10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Marcus Noland & Sung-won Sohn

2017

		Title	Speaker
17-01	Jan 19	Big Changes, Big Effects -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Prospects 2017	Allen Sinai
17-02	Mar 13	The 2017 US and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Martin Feldstein
17-03	Apr 13	Automation,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Korea	Jonathan Woetzel
17-04	Jun 8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	Gerald Curtis & Hugh Patrick
17-05	Jul 5	Between Brexit and Trump: Global Challenges for the European Union	Thomas Wieser
17-06	Sep 11	Future of Growth	Simon Baptist
17-07	Oct 19	The Future of Work: Is This Time Different?	Carl Benedikt Frey
17-08	Nov 7	The Current State of US Economy and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US FTA Revision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Title	Speaker
18-01	Jan 9	U.S. and Global Prospects Looking Ahead	Allen Sinai
18-02	Mar 13	US Protectionism, China's Political Shift and Their Implications Japan's Labor Reform and Future Korea-Japan Cooperation	Ken Courtis & Yukiko Fukagawa
18-03	Mar 20	Dr. Martin Feldstein's Analysis of the US and Global Economy	Martin Feldstein
18-04	Apr 11	U.S. Economic and Trade Policy for Korea and Asia	Charles Freeman
18-05	Apr 17	How Europeans See China, Changing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Guy Sorman
18-06	May 15	Asia's New Economic Landscape: India, Japan and China	Eisuke Sakakibara
18-07	Jun 29	Climate, Energy and Green Tech: Transforming Our Economies	Karsten Sach
18-08	Oct 5	Global Economic Outlook : 2019 and Beyond	Danny Leipziger
18-09	Nov 29	US Economic and Trade Policies of the Post Midterm Election	Jeffrey Schott

Specialist's Diagnosis**2004**

	Title	Author
04-01	A Critical Assessment of Korea's FTA Policy	Chong-hyun Nam
04-02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 on the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2005

	Title	Author
05-01	Korea in the World Economy: Challenges and Prospects	Il SaKong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Occasional Paper Series

1993

연 번	제 목	저 자
93-0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칠 영향	Ronald A.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ur Dunkel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멕시코 폐쇄화 위기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2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3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4	미국 · 북한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5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 III
95-06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7	동북아경제권 개발 전망: 일본의 시각	Hisao Kanamori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Tre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3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연 번	제 목	저 자
96-0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 W. Clausen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7-02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J. Perry
97-03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Hunn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범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98-02	변화 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98-03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8-04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Juergen B. Donges
98-05	세계화와 종족화: 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1999

연 번	제 목	저 자
99-01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99-02	엔-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	Kenneth S. Courtis
99-03	한국과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Donald Johnston/ Hubert Neiss
99-04	미국과 일본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한미관계: 변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수길
00-03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	이용근
00-04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5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6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FTA전망	Jeffrey Schott/ 최인범
00-07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연 번	제 목	저 자
00-09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경제정책방향	C. Fred Bergsten
00-11	한미관계: 번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00-12	2000년 국제금융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Robert Hormats
00-13	기업·금융 관계: 현황과 전망	이용근
00-14	금융세계화, 어떻게 대처하나	James P. Rooney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2001년 미국, 일본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2002

연 번	제 목	저 자
02-01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만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2-02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험	Martin Wolf
02-03	美·日 경제현황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Patricia Hewitt
02-06	9·11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7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8	세계경제, 회복되나?	Kenneth S. Courtis
02-09	미국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10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11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 Gruenwald
02-12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3	9·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정책	Thomas C. Hubbard
02-14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5	미국의 IT산업 관련 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2003

연 번	제 목	저 자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Donald Johnston
03-03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침체된 독일 · 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사	Hans Tietmeyer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03-07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2004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20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미국 대통령 선거와 韓 · 美 · 日관계	Hugh Patrick/ Gerald Curti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04-05	아시아 화폐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04-06	외국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2005

연 번	제 목	저 자
05-01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5-02	아시아 경제 · 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05-03	제2기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4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Yukiko Fukagawa
05-05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arry Eichengreen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05-08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5-09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2006

연 번	제 목	저 자
06-01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06-02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연 번	제 목	저 자
06-03	한미FTA: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4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06-05	일본경제 회생과 한국경제	Yukiko Fukagawa
06-06	세계 M&A시장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6-07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06-08	아시아 공통통화와 아시아 경제통합	Eisuke Sakakibara
06-09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Paul Kennedy/ Bernard Gordon
06-10	- 20년 후의 중국, 어떤 모습일까? - 세계 IT 리더십 경쟁: 승자와 패자	-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2007

연 번	제 목	저 자
07-01	한미관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7-0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체제의 교훈	Juergen B. Donges
07-03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4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ía
07-05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7-06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7-07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07-08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전망과 과제	Yukiko Fukagawa
07-09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	Ben Verwaayen
07-10	한미FTA: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11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7-12	- 동아시아 경제통합, 어떻게 보나 - 한국경제 및 동아시아경제 전망	- David Hale - Jerald Schiff
07-13	- 21세기는 여전히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 기업	- Guy Sorman - Tarun Das

2008

연 번	제 목	저 자
08-01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08-02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08-03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자본시장의 현재와 전망	Atsushi Saito

연 번	제 목	저 자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전망	Charles Dallara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8-09	- 국부펀드: 인식과 현실 -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2009

연 번	제 목	저 자
09-01	20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 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6	-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대응 -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교훈과 전망	-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09-07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 한미 경제 파트너십: 세계적 위기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Guy Sorman - Jeffrey Schott

2010

연 번	제 목	저 자
10-01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10-02	위기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 과제	Allen Sinai
10-03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4	-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 중국 경제의 虛와 實	-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10-05	-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런티어 -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 Mark Mobius -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2011

연 번	제 목	저 자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순홍
11-03	중국 경제의 재(再)균형	Yu Yongding
11-04	세계금융질서의 개편: 아시아의 시각	세계경제연구원
11-05	-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 Haruhiko Kuroda - Richard N. Cooper
11-06	- 기로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 Danny Leipziger - Marcus Noland

2012

연 번	제 목	저 자
12-01	혼돈 속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분석과 2012년 전망	Allen Sinai
12-02	- 카이스트의 혁신 - 유로위기 해결책은 없나	- 서남표 - Hans Martens
12-03	- 20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정책 전망 -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 Charles Morrison - Charles Dallara - Guy Sorman
12-04	- FTA와 아태지역 통합 그리고 한국 -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	- Peter A. Petri - Nicolas Véron
12-05	-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 국제통상질서의 현황과 WTO의 미래	- Andrew Sheng - Jean-Pierre Lehmann

2013

연 번	제 목	저 자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 Andreas Dombret - John Lipsky
13-04	-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 David Hale - Hugh Patrick/Gerald Curtis
13-05	-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 Guy Sorman -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6	- 통일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외국인이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 Karl-Heinz Paqué - Bob Davis

2014

연 번	제 목	저 자
14-01	2014년 세계경제, 나아질 것인가?	Allen Sinai
14-02	- 아베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 - 중견기업: 순항하는 독일경제의 비결	- Gerald Curtis - Peter Friedrich
14-03	- 유럽경제, 살아날 것인가? - 2014년 세계 경제의 향방은?	- Karl-Heinz Paqué - Martin Feldstein
14-04	복지향상과 기부문화	Guy Sorman
14-05	- 세계무역 환경과 세계경제의 미래 - 브릭스(BRICs)에서 미국으로	- Roberto Azevêdo - Sung Won Sohn
14-06	-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 아베 정권의 노동개혁과 혁신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 Charles Dallara - Yukiko Fukagawa
14-07	- 중국경제 현황과 시진핑의 반부패운동 - 다카올 미 연준의 QE종료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 중국의 신경제 전략과 한-중 FTA	- Bob Davis - Anoop Singh - Zhang Yunling

2015

연 번	제 목	저 자
15-01	2015년 세계경제, 정상화될 것인가	Allen Sinai
15-02	-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 - 공동 번영을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Jeroen Dijsselbloem - Mark W. Lippert - Peter Hartz
15-03	- 중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며 -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Lawrence Lau - Guy Sorman
15-04	- 글로벌 에너지(중점)환경 이슈와 스위스의 경험 - 혼돈의 아시아 경제, 어디로 가는가	- H.E. Doris Leuthard - David L. Asher
15-05	-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는 무엇인가 - 디지털화를 활용한 독일의 산업혁명 4.0	- Huang Yiping - Matthias Machnig
15-06	- 세상을 바꾸는 네 가지 글로벌 흐름 - 격변하는 신흥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	- Dominic Barton - Sung-won Sohn
15-07	- 내가 본 한국, 한국 경제,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잠재력 - 중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 Thomas Byrne - Huang Haizhou

2016

연 번	제 목	저 자
16-01	2016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Allen Sinai
16-02	- 2016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 미국의 경제 · 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Hung Tran - Anne Krueger
16-03	-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 Martin Feldstein - Gerald Curtis

연 번	제 목	저 자
16-04	-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 - 통화정책 실험과 정치 분열기의 세계 경제 -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 Marcus Noland & Sung-won Sohn - Charles Dallara - Mark Lippert

2017

연 번	제 목	저 자
17-01	- 대변혁 속의 2017 - 미국과 세계 경제 금융 전망	- Allen Sinai
17-02	-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2017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 -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화, 일자리, 그리고 직업의 미래	- Martin Feldstein - Jonathan Woetzel
17-03	-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 Thomas Wieser
17-04	- 직업의 미래 - 이번엔 다른가	- Carl Benedikt Frey
17-05	- 세계경제 성장 전망과 기술의 역할 - 미국경제 현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한미 FTA 개정	- Simon Baptist -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연 번	제 목	저 자
18-01	- 펠드스타인 교수가 진단하는 미국과 세계경제 - 2018년 미국과 세계 경제 · 금융 전망	- Martin Feldstein - Allen Sinai
18-02	- 미국 보호주의와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함의 - 일본 노동개혁과 한일 협력의 미래	- Kenneth Courtis - Yukiko Fukagawa
18-03	-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 · 경제 정책 -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 질서	- Charles Freeman - Guy Sorman
18-04	-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 독일의 기후변화, 에너지 및 녹색기술 정책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Eisuke Sakakibara - Karsten Sach
18-05	- 세계 경제: 전망과 현황 -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 무역 정책과 한국	- Danny Leipziger - Jeffrey Schott

보고서 (책자)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사공 일
94-02	탈냉전시대 韓美 정치·경제 협력 관계	사공 일/ C. Fred Bergsten
95-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	세계경제연구원
95-02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	세계경제연구원
95-03	새로운 韓美 협력체제의 모색	사공 일/ C. Fred Bergsten
96-01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6-02	세계화시대의 韓·美관계	사공 일/ C. Fred Bergsten
96-03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I]	세계경제연구원
96-04	세계 반도체산업의 발전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경제연구원
97-01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7-02	한국의 금융개혁	세계경제연구원
98-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V]	세계경제연구원
98-02	한반도 통일 및 韓美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 일
98-03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사공 일/김광석
98-04	The Fifty Years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사공 일/김광석
99-01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사공 일/구영훈
99-02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미 관계	세계경제연구원
99-03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00-0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사공 일/왕윤중
00-02	동북아시아포럼 2000	세계경제연구원
00-03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 보고서	세계경제연구원
01-01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01-02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G 서울보고서)	Emerging Markets Eminent Persons Group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 - 새로운 세계질서: 기회와 도전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 -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의 앞날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I) - 한국경제의 진로	세계경제연구원
03-02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국제회의	세계경제연구원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창업활성화, 어떻게 하나	세계경제연구원
08-01	세계화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	세계경제연구원
09-01	최근 세계금융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계경제연구원
10-01	G20 개혁과제: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세계경제연구원
10-02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세계경제연구원
12-01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체제: 아시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2-02	문화와 한국경제, 그리고 한류	세계경제연구원
12-03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대, 아시아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13-01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세계경제연구원
13-02	통일과 한국경제	세계경제연구원
13-03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길잡이	세계경제연구원
14-01	리더십과 정책의 우선순위	세계경제연구원
15-01	여성과 성장잠재력	세계경제연구원
17-01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IGE Brief+

2012

연 번	제 목	저 자
12-01	문화산업과 서비스교역 그리고 한국경제	남종현
12-02	한일 간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그 추진방향	이종윤
12-03	유럽 경제위기와 한국의 과제	현정택
12-04	이번 대통령 선거, 왜 더욱 중요한가	사공 일
12-05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 옴부즈맨 제도	이재용
12-06	통일 준비 해둬야	사공 일

2013

연 번	제 목	저 자
13-01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사공 일
13-02	금융개혁과 중국의 정치경제	조윤제

2014

연 번	제 목	저 자
14-01	경찰관이 폭행당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 없다	사공 일
14-02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성공하려면	사공 일
14-03	품격 있는 나라를 향한 정부개조	사공 일
14-04	중국의 재부상과 한국: 도전과 기회	사공 일

2016

연 번	제 목	저 자
16-01	세계와 주변 여건은 급변하는데...	사공 일

세계경제지평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유목적 세계의 도전	Jacques Attali
94-02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混在	이영선
94-03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김원순
94-04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5	화폐의 종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홍기택/주한광

연 번	제 목	저 자
94-06	UR 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재원
94-07	환경과 무역	나성린/김승진
94-08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 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종운
94-09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
94-10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종석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도전과 기회	사공 일
95-02	기업의 세계화와 경쟁 규범	김원순
95-03	무엇이 세계화인가	김병주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cy
95-05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김적교
95-06	엔화강세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박진근
95-07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구본호
95-08	확산되는特惠무역협정과 정책과제	남종현
95-09	역사인식과 한일 관계	홍원탁
95-10	일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효율성	이종운
95-11	국제경쟁력의 갈등	이재웅
95-12	해방 후 우리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김광석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국내 선물시장의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중소기업시대 열릴 것인가	류동길
96-03	단체교섭제도有感	배무기
96-04	세계화와 기업의 변신	지 청
96-05	우리나라 금융시장개방의 추진방향	박영철
96-06	다변주의의對 지역주의, 兩立은 가능한가?	김세원
96-07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과 효용	민상기
96-08	최근 경제위기감의 실체와 대응방향	김광석
96-09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이성섭
96-10	轉機를 맞이한 정부의 기능	김병주
96-11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김원순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노동법개정 難局의 해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前提한 複數勞組하용	김수곤
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적교
97-03	韓寶사태의 敎訓	이재용
97-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영	남덕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寶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팔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계섭
97-08	高齡化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종기
97-09	外換危機의 일반모형을 감안한 우리의 대응 방향	박진근
97-10	벤처기업시대를 열어가려면	유동길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한국의 經濟奇蹟은 끝난 것인가?	남중현
98-02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송대희
98-03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남상우
98-04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모색과 사외이사의 역할	이영기
98-05	고투자-고저축 고리의 단절을 위한 제언	이영탁

1999

연 번	제 목	저 자
99-01	연금개혁의 전망과 과제	박종기
99-02	지하철파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수곤
99-03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박준경
99-0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제	김종기
99-05	소득분배 문제의 실상과 대응방향	김광석
99-06	“생산적 복지” 정책의 허와 실	최 광
99-07	세계화시대의 韓中日 經濟協力 強化 方案	사공 일
99-08	시애틀 WTO 각료회의의 결렬과 향후전망	박태호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2000년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김준경
00-02	세계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공 일

연 번	제 목	저 자
00-03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사공 일
00-04	高비용 低능률구조의 부활	이종윤
00-05	아시아 경제회복, 지속될 것인가?	사공 일
00-06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조운제
00-07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재용
00-08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이영세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김도훈
01-02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박영범

연구보고서 (세계경제 시리즈)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재원
94-02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승진/나성린
94-03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종윤
94-0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종석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주한광/김승진
95-02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한·일 기업의 수용 가능성 비교	이재규
95-03	WTO 체제와 우리의 대응	김지홍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국내 선물시장에 대한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일본 산업의 네트워크구조와 그 효율성	이종윤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루마니아의 경제현황과 주요개혁과제	김광석/김병주/ 고일동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우리 경제의 成長要因과 成長潛在力 展望	김광석
98-02	한국과 ASEAN 諸國 間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대응 방향	김승진
98-03	국제무역체제의 도전과제	김원순/최낙균
98-04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종국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한국의 금융 위기와 산업 정책	이영세/정용승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우리나라의 산업·무역 정책 전개 과정	김광석
01-02	한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정보의 역할	이영세

전문가 진단

2004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한국 FTA정책의 虛와 實	남종현
04-02	외국 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2005

연 번	제 목	저 자
05-01	세계 속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특별강연

1993

연 번	제 목	연 사
93-01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경제관계	C. Fred Bergsten
93-02	UR 및 NAFTA의 장래와 한국의 대응	Jeffrey Schott
93-03	국제환경 변화와 세계경제 장·단기 전망	Allen Sinai
93-04	태평양지역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응	Lawrence Krauss
93-05	21세기 세계구도 변화와 한국	Jacques Attali

1994

연 번	제 목	연 사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칠 영향	Ronald A.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동구권 경제전망과 한국의 진출방안	Ronald Freeman
94-06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7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Arthur Dunkel
94-08	新경제의 금융개혁: 평가와 전망	박재윤

1995

연 번	제 목	연 사
95-01	세계화 전략과 앞으로의 경제운용방향	홍재형
95-02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 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3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6	미국-북한 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7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 III
95-08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9	국제금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Stanley Fischer
95-10	세계무역기구 - 새로운 도전	Jagdish Bhagwati
95-11	동북아 경제권 개발 전망	Kanamori Hisao
95-12	러시아 정보제도의 현황과 변화 전망	Vadim Kirpitchenko
95-13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96년도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95-14	최근 미국 정치동향과 한미 관계	Thomas Foley

연 번	제 목	연 사
95-15	APEC과 세계무역체제	C. Fred Bergsten
95-16	국제금융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Toyoo Gyohten
95-17	WTO와 세계무역체제	Anne O. Krueger

1996

연 번	제 목	연 사
96-01	세계경제의 도전과 한국	Robert Lawrence
96-02	新경제의 통상정책	박재운
96-03	다자간 무역체제 하의 기술협약과 한국	Sylvia Ostry
96-04	정보화 시대: 한국의 대응	이석채
96-05	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6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7	다자간 무역체제 하의 새로운 과제	김철수
96-08	금융세계화와 세계경제	Paul A. Volcker
96-09	세계경제와 동아시아경제: 협력인가, 갈등인가?	Martin Wolf
96-10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6-11	위기에 처한 일본의 은행부문: 원인과 시사점	Hugh Patrick
96-12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13	클린턴 행정부의 업적과 재선 전망 및 한국에 미칠 영향	Robert Warne
96-14	세계무역 - 21세기 비전	C. Fred Bergsten
96-1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 W. Clausen
96-16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Richard Feinberg

1997

연 번	제 목	연 사
97-01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용	남덕우
97-02	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독의 교훈	Juergen B. Donges
97-03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Perry
97-04	범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Graham
97-05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Hunn
97-06	한미 관계: 변화 속의 안정	W. Anthony Lake
97-07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7-08	일본의 경제침체와 동아시아 통화위기	Ronald McKinnon

1998

연 번	제 목	연 사
98-01	세계화와 국가의 주체성	Guy Sorman
98-02	아시아 통화위기와 일본의 역할	Takatoshi Kato
98-03	한국의 통화·금융위기: 미국의 시각	Charles Dallara
98-04	유럽 단일통화(Euro)와 세계금융 질서	Tue Rohsted
98-05	아시아 통화위기: 원인과 전망	Anne O. Krueger
98-06	국가경영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진 념
98-07	99년의 아시아와 한국경제 전망	Hubert Neiss
98-08	최근 북한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Marcus Noland

1999

연 번	제 목	연 사
99-01	세계 속의 한국경제와 OECD	Donald Johnston
99-02	미국의 경제현황과 주식시장 전망	Richard A. Grasso
99-03	국제금융시장과 달러/엔 환율 전망	Kenneth S. Courtis
99-04	미국과 일본 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99-06	한국의 금융세계화, 어떻게 해야 하나?	James P. Rooney
99-07	국제금융시장 전망: 미국경제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Robert Hormats
99-08	한미관계: 번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2000

연 번	제 목	연 사
00-01	2000년도 아시아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수길
00-03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4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5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향후 정책방향	이용근
00-06	시애틀 이후 WTO와 한미FTA 전망	Jeffrey Schott
00-07	세계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정책대응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00-09	지식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경제·대외 정책방향	C. Fred Bergsten

2001

연 번	제 목	연 사
01-01	2001년 미국, 일본 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내가 본 한국기업과 한국경제: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01-09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협: 긴급진단	Martin Wolf
01-10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1-11	21세기 미일 경제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Marcus Noland

2002

연 번	제 목	연 사
02-01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Patricia Hewitt
02-02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3	아시아 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경제, 회복되고 있나?	Kenneth S. Courtis
02-06	미국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07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08	2003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Paul F. Gruenwald
02-09	미국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 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0	9·11 사태 1주년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Thomas C. Hubbard
02-11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2	미국의 IT산업 관련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2003

연 번	제 목	연 사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2003 세계경제와 한국: OECD의 시각	Donald Johnston
03-03	亞太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03-06	침체된 독일·유럽경제가 주는 교훈과 정책적 시사	Hans Tietmeyer

연 번	제 목	연 사
03-07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2004

연 번	제 목	연 사
04-01	2004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외국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04-04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日 관계 -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 韓日 관계 - 미국 경제와 일본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04-05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04-06	아시아 화폐 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04-07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4-08	아시아 세계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2005

연 번	제 목	연 사
05-01	제2기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2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Yukiko Fukagawa
05-03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05-04	급부상하는 중국과 인도 경제	Wendy Dobson
05-05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arry Eichengreen
05-08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Paul Kennedy
05-09	중국의 부상, 어떻게 보아야 하나	Bernard Gordon
05-10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2006

연 번	제 목	연 사
06-01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2	한미FTA: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3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Yukiko Fukagawa
06-04	세계 IT 리더십 경쟁: 승자와 패자	George Scalise
06-05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06-06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연 번	제 목	연 사
06-07	20년 후의 중국, 어떻게 될까?	Richard N. Cooper
06-08	세계 M&A 시장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6-09	한미 관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6-10	아시아 공동통화와 아시아 경제통합	Eisuke Sakakibara
06-11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6-12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ía
06-13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6-14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6-15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2007

연 번	제 목	연 사
07-01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2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전망과 과제	Yukiko Fukagawa
07-03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전략	Ben Verwaayen
07-04	동아시아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David Hale
07-05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Stephen J. Yates
07-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위상강화 어떻게 하나?	Charles Dallara
07-07	한미FTA: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08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7-09	왜 21세기에도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Guy Sorman
07-10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기업	Tarun Das
07-11	세계화시대의 기업 인재 확보	Ben Verwaayen
07-12	2008년 한국경제와 동아시아 경제 전망	Jerald Schiff
07-13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2008

연 번	제 목	연 사
08-01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8-02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인식과 현실	Robert C. Pozen
08-03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자본시장의 현재와 전망	Ats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어떻게 되나?	Charles Dallara

연 번	제 목	연 사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8-09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Jeffrey Shafer
08-10	세계금융위기, 달러, 그리고 유가	Martin Feldstein
08-11	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경제 전망	Subir Lall

2009

연 번	제 목	연 사
09-01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2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3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우리의 대응	Danny Leipziger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Guy Sorman
09-06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우리의 교훈	Anne O. Krueger
09-07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8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한미 협력관계: 과제와 전망	Jeffrey Schott
09-09	경제위기 이후 세계의 투자 전망: IFC와 개도국의 역할	Lars H. Thunell
09-10	과연 더블딕 경제침체는 올 것인가?	손성원
09-11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2010

연 번	제 목	연 사
10-01	위기 이후의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과제	Allen Sinai
10-02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Yukiko Fukagawa
10-03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론티어	Mark Mobius
10-04	중국 경제의 虛와 實: 과제와 전망	Danny Leipziger
10-05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7	더블딕과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손성원
10-08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2011

연 번	제 목	연 사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Haruhiko Kuroda

연 번	제 목	연 사
11-03	유럽국가의 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Richard N. Cooper
11-04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순홍
11-05	기रो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Danny Leipziger
11-06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Marcus Noland
11-07	중국경제 재균형에 관한 특강	Yu Yongding
11-08	격동 속의 세계경제: 전망과 투자전략	손성원

2012

연 번	제 목	연 사
12-01	혼돈 속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Allen Sinai
12-02	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 정책 전망	Charles Morrison
12-03	과학기술 연구대학의 발전과 교육, 경제성장	서남표
12-04	유로 위기: 해결책은 없나?	Hans Martens
12-05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Charles Dallara
12-06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Guy Sorman
12-07	FTA와 아태지역통합, 그리고 한국	Peter A. Petri
12-08	유로 위기: 언제 끝나나?	Nicolas Véron
12-09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Andrew Sheng
12-10	국제통상질서의 현황과 WTO의 미래	Jean-Pierre Lehmann

2013

연 번	제 목	연 사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Andreas Dombret
13-04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John Lipsky
13-05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David Hale
13-06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Hugh Patrick, Gerald Curtis
13-07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Guy Sorman
13-08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9	통일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	Karl-Heinz Paqué
13-10	외국인이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Bob Davis

연 번	제 목	연 사
13-11	일본 아베정권의 정치 ·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David Asher
13-12	한중일 정치 · 경제 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David Philling

2014

연 번	제 목	연 사
14-01	2014년 세계경제, 나아질 것인가	Allen Sinai
14-02	스위스 메이드	R. James Breiding
14-03	아베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	Gerald Curtis
14-04	중견기업: 순항하는 독일 경제의 비결	Peter Friedrich
14-05	유럽경제, 살아날 것인가?	Karl-Heinz Paqué
14-06	2014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Martin Feldstein
14-07	복지향상과 기부문화	Guy Sorman
14-08	세계무역 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미래	Roberto Azevêdo
14-09	브릭스(BRICs)에서 미국으로	Sung Won Sohn
14-10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Charles Dallara
14-11	아베의 노동개혁과 혁신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Yukiko Fukagawa
14-12	중국경제 현황과 시진핑의 반부패운동	Bob Davis
14-13	다가올 미 연준의 QE 종료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Anoop Singh
14-14	중국의 신경제전략과 한중 FTA	Zhang Yunling

2015

연 번	제 목	연 사
15-01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	Jeroen Dijsselbloem
15-02	2015년 세계경제, 정상화될 것인가	Allen Sinai
15-03	중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며	Lawrence Lau
15-04	공동 번영을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Mark W. Lippert
15-05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Peter Hartz
15-06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Guy Sorman
15-07	글로벌 에너지 · 환경 이슈와 스위스의 경험	Doris Leuthard
15-08	혼돈의 아시아 경제, 어디로 가는가	David L. Asher
15-09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는 무엇인가	Huang Yiping
15-10	디지털화를 활용한 독일의 산업혁명 4.0	Matthias Machnig
15-11	세상을 바꾸는 네 가지 글로벌 흐름	Dominic Barton
15-12	격변하는 신흥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	Sung-won Sohn

연 번	제 목	연 사
15-13	내가 본 한국, 한국 경제,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잠재력	Thomas Byrnc
15-14	중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Huang Haizhou
15-15	동아태지역 국가의 인구 노령화 문제와 경제성장 전망	Sudhir Shetty Philip O'Keefe

2016

연 번	제 목	연 사
16-01	2016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16-02	2016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Hung Tran
16-03	미국의 경제 · 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ne Krueger
16-04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Martin Feldstein
16-05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Gerald Curtis
16-06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Mark Lippert
16-07	제4차 산업혁명, 우리의 준비는	Doh-Yeon Kim
16-08	통화정책 실험과 정치 분열기의 세계 경제	Charles Dallara
16-09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	Marcus Noland & Sung-won Sohn

2017

연 번	제 목	연 사
17-01	대변혁 속의 2017 - 미국과 세계 경제 금융 전망	Allen Sinai
17-02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2017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	Martin Feldstein
17-03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화, 일자리, 그리고 직업의 미래	Jonathan Woetzel
17-04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Gerald Curtis & Hugh Patrick
17-05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Thomas Wieser
17-06	세계경제 성장 전망과 기술의 역할	Simon Baptist
17-07	직업의 미래 - 이번엔 다른가	Carl Benedikt Frey
17-08	미국경제 현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한미FTA 개정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연 번	제 목	연 사
18-01	2018년 미국과 세계 경제 · 금융 전망	Allen Sinai
18-02	미국 보호주의와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합의 일본 노동개혁과 한일 협력의 미래	Ken Courtis & Yukiko Fukagawa

연 번	제 목	연 사
18-03	펠드스타인 교수가 진단하는 미국과 세계경제	Martin Feldstein
18-04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경제 정책	Charles Freeman
18-05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 질서	Guy Sorman
18-06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Eisuke Sakakibara
18-07	독일의 기후변화, 에너지 및 녹색기술 정책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arsten Sach
18-08	세계 경제: 전망과 현황	Danny Leipziger
18-09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무역 정책과 한국	Jeffrey Schott